

JRI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

이용규·양성필



발 간 사

최근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성이시돌 목장에는 ‘테쉬폰’이라는 이색 건축물이 있습니다. 테쉬폰은 현수 아치(현수선:Catenary)가 연속된 파곡(波谷) 모양의 셀 구조 건축구법으로, (故)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J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의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에 도입되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1954년 선교사로 제주시 한림 본당에 부임하면서 제주와 연을 맺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제주 4·3사건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황폐했던 제주에서 제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버려져 있던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의 목축 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축에 필요한 주거시설, 창고 시설, 돈사 등을 단 시간내에 건설하기 위해 테쉬폰 구법을 실천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제주 목축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이시돌목장을 중심으로 제주에 보급된 테쉬폰 주택의 형성과정과 그 안에서 거주하였던 거주자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는 일은 제주학 연구로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테쉬폰’은 1960년대 초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미 50~6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23개 동의 ‘테쉬폰’이 산재해 있는데, 각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과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쉬폰’이 도입되었던 성이시돌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관련 주체들이 8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의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는 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이 연구는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특성 및 형성과정을 규명한 후,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공동체 문화 및 주거생활 문화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테쉬폰’을 활용한 목축 문화와 그 문화를 일궈온 사람들의 문화도 함께 규명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애쓰신 제주대학교 이용규 교수님과 양성필, 최호석, 부기홍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را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준 제주학연구센터 임승희·고은솔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II. 성 이시돌 목장과 테쉬폰주택의 형성과정 규명	5
1. 성 이시돌 목장	5
2.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의 도입과정	8
2-1. 성 이시돌 목장과 테쉬폰 구법	8
2-2.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분포(1960~70)	9
2-3.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 건축물 분포(2020년)	14
3. 성 이시돌 목장의 형성과정(1960~70)	24
4. 음악 개척농가의 형성과정(1960~70)	29
III. 성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 규명	32
1. 커뮤니티 워크숍 (WS)의 개요	32
1-1. 사전 인터뷰 개요	32
1-2. 성 이시돌 목장 및 개척농가 워크숍 개요	33
2. 증언 속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	34
2-1.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34
2-2. 점적 요소	34
2-3. 선적 요소	37
2-4. 면적 요소	41

IV. 테쉬폰의 주거생활 문화 규명	44
1. 박영수 님	44
2. 박고봉 님	49
3. 박용근 님	54
4. 고숙정 님	58
5. 마이클 신부 님	62
6. 김승학 님	64
V. 결론 및 제언	66
1. 결 론	66
2. 제 언	68
참고문헌	69
Abstract	70
〈부록 1〉 인터뷰 자료	74
〈부록 2〉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정부 문건	134

표 목차

〈표 2-1〉 1967, 1979년 항공사진 내 테쉬폰 분포현황	13
〈표 3-1〉 인터뷰 속 점적 요소	36
〈표 3-2〉 인터뷰 속 선적 요소	40
〈표 3-3〉 인터뷰 속 면적 요소(영역)	42
〈표 4-1〉 박영수 님 - 개척농가 거주자 일반 사항	44
〈표 4-2〉 박영수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연 연표	45
〈표 4-3〉 박고봉 님 - 개척 농가 거주자 일반 사항	49
〈표 4-4〉 박고봉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연 연표	50

〈표 4-5〉 박용근 님 - 개척농가 일반 사항	54
〈표 4-6〉 박용근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54
〈표 4-7〉 고숙정 님 - 개척 농가 일반사항	58
〈표 4-8〉 고숙정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58
〈표 4-9〉 마이클 신부 님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62
〈표 4-10〉 김승학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연표	64

그림 목차

〈그림 1-1〉 페르시아 크테쉬폰의 타끼키스라아치와 테쉬폰 구법	1
〈그림 1-2〉 맥그리치 신부와 이시돌목장 테쉬폰 주택 시공과정	2
〈그림 1-3〉 연구의 흐름	4
〈그림 2-1〉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	6
〈그림 2-2〉 과거 금악리와 성이시돌 목장인근	7
〈그림 2-3〉 1966년 성 이시돌 목장 주거와 돈사용 테쉬폰	8
〈그림 2-4〉 1960년대 성 이시돌 목장 전경 촬영 사진 및 촬영 추정 위치 ...	10
〈그림 2-5〉 1967년 항공사진 속 테쉬폰 분포.....	11
〈그림 2-6〉 1979년 항공사진 및 테쉬폰 분포.....	12
〈그림 2-7〉 2020년 현재 이시돌 목장 테쉬폰 분포현황	14
〈그림 2-8〉 ① 금악리 1168-1번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 도면	15
〈그림 2-9〉 ① 금악리 1168-1번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	15
〈그림 2-10〉 ② 금악리 1165-1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	16
〈그림 2-11〉 ② 금악리 1165-1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 사진 ...	16
〈그림 2-12〉 ③ 금악리 313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18
〈그림 2-13〉 ③ 금악리 313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	18
〈그림 2-14〉 ④ 금악리 361-3번지, 주거용 이중 외피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	19
〈그림 2-15〉 ④ 금악리 361-3번지, 주거용 이중 외피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 사진 ...	19
〈그림 2-16〉 ⑤ 금악리 135번지, 직원용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도면 ...	20
〈그림 2-17〉 ⑤ 금악리 135번지, 직원용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현장사진 ...	20
〈그림 2-18〉 ⑥ 금악리 77-4번지, 목장장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	21
〈그림 2-19〉 ⑥ 금악리 77-4번지, 목장장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21
〈그림 2-20〉 ⑦ 금악리 79-1번지,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도면	22
〈그림 2-21〉 ⑦ 금악리 79-1번지,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	22

〈그림 2-22〉 1966년 성 이시돌 목장 전경	25
〈그림 2-23〉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어승행과 식수해결 구상도	26
〈그림 2-24〉 이시돌 목장 어승생 저수지 연결공사	26
〈그림 2-25〉 1973-02-24 박대통령제주도정기순시	27
〈그림 2-26〉 1972년 맥그린치 신부 석탑산업훈장 수여 문서	27
〈그림 2-27〉 1976년 이시돌협회 도로와 전화 등 건의사항 검토 문건	28
〈그림 2-28〉 1966년 금악 개척 농가 전경	30
〈그림 2-29〉 1970년 금악 개척 농가 전경	31
〈그림 3-1〉 인터뷰사진	32
〈그림 3-2〉 워크숍 사진	33
〈그림 3-3〉 점적 요소	35
〈그림 3-4〉 선적 요소(도로)	37
〈그림 3-5〉 선적 요소(전기)	37
〈그림 3-6〉 선적 요소(버스)	38
〈그림 3-7〉 선적 요소(전화)	38
〈그림 3-8〉 선적 요소(수도)	39
〈그림 3-9〉 면적 요소(커뮤니티 일상교류)	41
〈그림 4-2〉 개척농가 영역 (기호 ㉔ 박영수)	45
〈그림 4-1〉 박영수님	45
〈그림 4-3〉 개척 농가 테쉬폰 배치 형태 (기호 ㉔ 박영수)	46
〈그림 4-4〉 박영수님 스케치한 노트	47
〈그림 4-5〉 박고봉 님	50
〈그림 4-6〉 개척 농가 영역(기호 ㉔ 박고봉)	50
〈그림 4-7〉 개척 농가 테쉬폰 배치 형태 (기호 ㉔ 박고봉)	51
〈그림 4-8〉 박용근 님	54
〈그림 4-9〉 개척 농가 영역(기호 ㉓ 박용근)	55
〈그림 4-10〉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형태 (기호 ㉓ 박용근)	56
〈그림 4-11〉 '노나진 밭'(79년 항공사진)	57
〈그림 4-12〉 고숙정 님	58
〈그림 4-13〉 2중외피로 시공된 테쉬폰 구법 건축물	59
〈그림 4-14〉 개척농가 영역 (기호 ㉒, 고숙정)	60
〈그림 4-15〉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형태 (기호 ㉒, 고숙정)	61
〈그림 4-16〉 마이클 신부 님	62
〈그림 4-17〉 김승학 님	64

I. 서론

○ 현수 아치(현수선:Catenary)가 연속된 파곡(波谷) 모양의 셀 구조 건축을 테쉬폰 구법이라 한다. 그 제작과정은 현수아치의 형틀 비계 위에 섬유 거푸집을 설치 후 다시 시멘트 모르타를 여러 차례 입혀 자연스러운 처짐을 만드는 것으로 본 구법은 아일랜드 구조 기술가 제임스 윌러(1884~1968)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테쉬폰 구법이 제주에 소개된 것은 (故)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J.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의해서였다. 현존하는 제주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1960년대 초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들로 그 대부분이 이미 50~6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에는 단 23개 동만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각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과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테쉬폰 구법이 처음으로 제주에 보급된 성이시돌목장을 중심으로 테쉬폰 구법 주택의 형성과정과 그 안에서 거주하였던 거주자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는 일은 제주학 연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1)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특성 및 형성과정 규명, 2)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공동체 문화 규명 3)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 테쉬폰 주택의 주거생활 문화 규명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성 이시돌 목장과 테쉬폰 주택의 형성과정 규명

○ 테쉬폰 구법은 맥그린치 신부가 안식년 때 고국인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건축 시스템으로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를 구현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은 1960년대(형성기)와 70년대(성장기)에 70여 동의 테쉬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 성이시돌목장 내에는 소규모 군집된 돈사, 대규모의 단일 돈사, 직원 숙소 등의 용도에 따라 테쉬폰 구법의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1960년대 초 건설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금악 개척 농가 14개소 농가는 선형의 길을 중심으로 구획된 필지에 면해 테쉬폰 구법으로 지어진 주거동과 창고동이 정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10여 개의 개척 농가들은 비정형적인 형상의 필지로 인근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양적 공급이 개척 농가 형성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과 금융상품 등의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도모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후 '개척 농가'의 성과가 '개척단지'로 확장되었음을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2중 외피로의 기술적 발전이 모색 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이 존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성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 규명

-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는 아일랜드 콜롬반 선교회의 사제로 1954년 한림에 부임한 맥그린치 신부와 함께 성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방법으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는 일단의 공동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직원 중에 개척 농가 회원이 되는 등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공생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기, 전화, 수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인근 축산단지와 금악리를 포함해 이시돌 목장의 주요시설들이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IV. 테쉬폰의 주거생활 문화 규명

○주거 생활사적 측면에서 서양식 주거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제주에 도입된 테쉬폰 구법이 그의 주도하에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과 순응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공간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제주 이외 지역의 이주민들을 다수 수용하면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제주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이질적 주거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들의 운동문화와 일체화된 가족공동체적 주거생활 문화는 중산간이라고 하는 제주의 기후적 환경과 상충하고 있었으나 점차 절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혼란 뒤 근대로의 이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제주의 1960, 70년대에 서양과 육지 그리고 제주 전통의 주거문화들이 절충되며 변용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제주의 주거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특성 및 형성 과정 규명,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의 공동체 문화의 규명, 금악 개척 농가 테쉬폰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문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공동체 문화와 주생활 모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고 성이시돌 목장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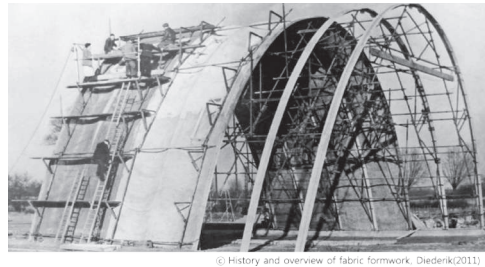
○제주 성 이시돌 목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테쉬폰 구법은 주거사적, 기술사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과 계승에 관한 구체적 성과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언으로서 우선 1) 제주 테쉬폰 구법의 시공 방식 등 구법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특허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2) 현존하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정밀 실측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유 관계와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3) '제주 테쉬폰 구법'의 활용과 현존 '테쉬폰 구법 적용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수 아치(현수선:Catenary)가 연속된 파곡(波谷) 모양의 셸 구조 건축을 테쉬폰 구법이라 한다. 그 제작과정은 현수아치의 형틀 비계 위에 섬유 거푸집을 설치 후 다시 시멘트 모르타를 여러 차례 입혀 자연스러운 처짐을 만드는 것으로 본 구법은 아일랜드 구조 기술가 제임스 윌러(1884-1968)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는 1922년 페르시아 지역의 도시 크테쉬폰의 타끼키스라 아치를 보고 테쉬폰 구조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테쉬폰 구법이 제주에 소개된 것은 (故) 패트릭 제임슨 맥그린치(P.J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의해서였다.

〈그림 1-1〉 페르시아 크테쉬폰의 타끼키스라아치와 테쉬폰 구법



- (故) 패트릭 제임슨 맥그린치(P.J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25세에 사제서품을 받고 1954년 선교사로 제주시 한림 본당에 부임하면서 제주와 연을 맺게 되었다. 한국전쟁과 4·3사건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황폐한 제주의 한림에 부임한 그는 제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버려져 있던 제주의 중산간 지역의 목축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부임 후 6년 만에 찾아온 안식년(1960년) 중 고향 아일랜드에서 테쉬폰 구법을 익히게 된 그는 제주로 귀국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설립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I.D.A)의 성 이시돌 목장(금악리 일대에 위치)과 개척 농가(금악, 월평, 선흘 등) 분양과정(1963년부터)에서 단시간 내에 필요한 주거시설, 창고시설, 돈사 등을 건설하기 위해 테쉬폰을 실천적으로 도입하였다. 개척 농가 사업은 이시돌 목장의 주도로 미국의 PL480 차관을 통해 제주 중산간의 유희지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던 사업이다. 특히 성이시돌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는 다수의 문헌과 증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광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본 연구는 물리적인 협의의 성이시돌목장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기억하는 금악 개척농가를 포함하는 광의의 성이시돌목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림 1-2〉 맥그린치 신부와 이시돌목장 테쉬폰 주택 시공과정



- 현존하는 제주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1960년대 초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들로 그 대부분이 이미 50~6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접근성이나 소유권 등의 이유로 현재 많은 수가 오랜 기간 유희공간으로 방치되어 상당한 훼손이 다수 진행된 상태이다. 그 건축기술사적, 주거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김태일(2019) 등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에는 단 23개 동만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각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과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 테쉬폰 구법을 처음으로 제주로 소개한 맥그린치 신부는 향년 90세로 2018년 4월에 서거하였다. 제주에 도입된 테쉬폰의 정확한 거주생활상과 공동체 문화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테쉬폰 구법의 도입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실제 거주를 했던 관련 주체들 역시 이미 80대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더욱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진은 당시 금악 개척농가 테쉬폰 주택에 거주했던 거주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테쉬폰 구법이 근현대 제주의 독특한 주거유형으로 주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며, 성이시돌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를 중심으로 한 근대 제주의 새로이 등장한 중산간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일 역시 가치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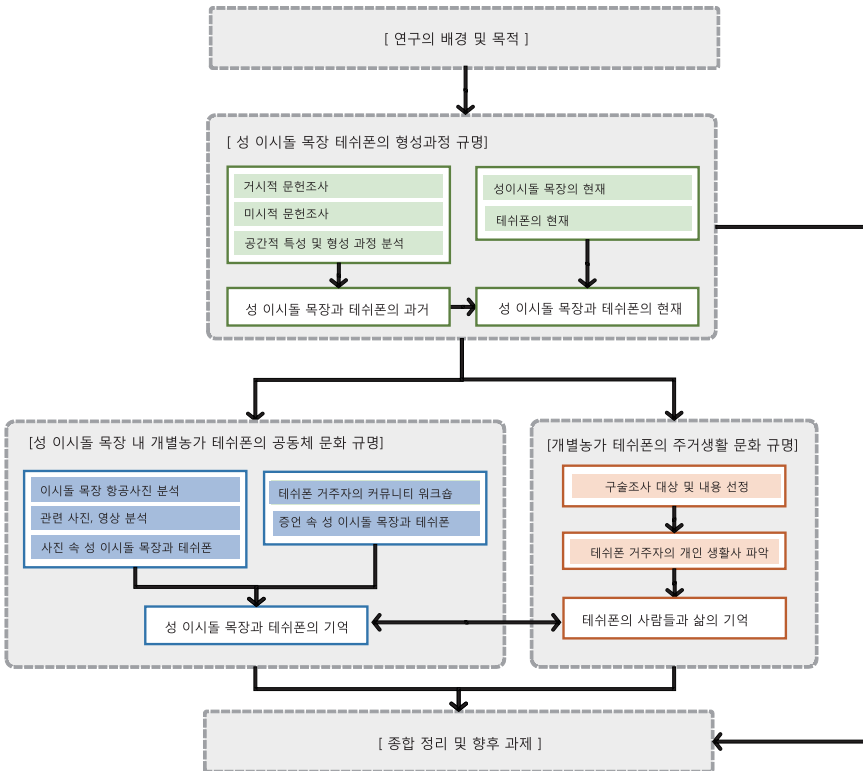
- 이에 테쉬폰 구법이 처음으로 제주에 보급된 성이시돌목장을 중심으로 테쉬폰 구법 주택의 형성과정과 그 안에서 거주하였던 거주자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는 일은 제주학 연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1)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특성 및 형성과정 규명, 2)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공동체 문화 규명 3)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 테쉬폰 주택의 주거생활 문화 규명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성이시돌목장 내 존재했던 테쉬폰 주택의 형성과정을 구명하기 위하여 1960년대 성 이시돌 목장 형성 이후의 향토자료, 항공사진, 관공서 문서 등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해 테쉬폰의 배치 특성 및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 이시돌 목장 형성 이후의 문헌을 거시적(지도, 항공사진 등) 자료와 미시적(향토지, 개인 사진, 뉴스, 영상자료 등) 자료로 구분해 수집하며, 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 이시돌 목장 내 테쉬폰의 공간적 특성과 커뮤니티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지도와 항공사진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 플랫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대한뉴스,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중요한 기록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진 자료는 이시돌 협회, 맥그린치 기념사업회, 개인 소장자료, 제주시 공보실의 자료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 다음으로는 성이시돌 목장과 인근 금악 개척 농가의 미시적 자료를 근거로 성이시돌 목장 개척 농가 테쉬폰 주택에서 거주했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생활사에 대한 구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테쉬폰 주택 거주자들은 우선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를 통해 연구에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당시 성이시돌 목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들로써 성이시돌 목장과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을 통해 다시 인근 금악 개척 농가 테쉬폰 주택에 거주했던 인터뷰이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인터뷰조사는 연구진의 사전 협조 요청에 응할 경우 개별적으로 사전 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후 조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에는 사진 촬영과 녹취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향후 활용 방향에 관해 설명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사전에 인터뷰 경험이 풍부한 선임 연구원의 교육과 사전 회의를 통해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성이시돌 목장 내 커뮤니티와 개척 농가의 테쉬폰 주택 거주자들의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테쉬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지도 등 거시적 근거 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 워크숍을 실시해 테쉬폰 주택에서의

공동체 생활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주생활 조사에 협조한 인터뷰 이 중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이들로 처음 개척 농가가 형성되는 1960년대 시점의 공동체 문화를 기억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970년대의 형성과정 당시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 이사장인 마이클 리어던 조셉 신부와 1970년대 형성된 인근 축산단지 거주자, 1970년대에 마지막으로 개척 농가 24호에 입주했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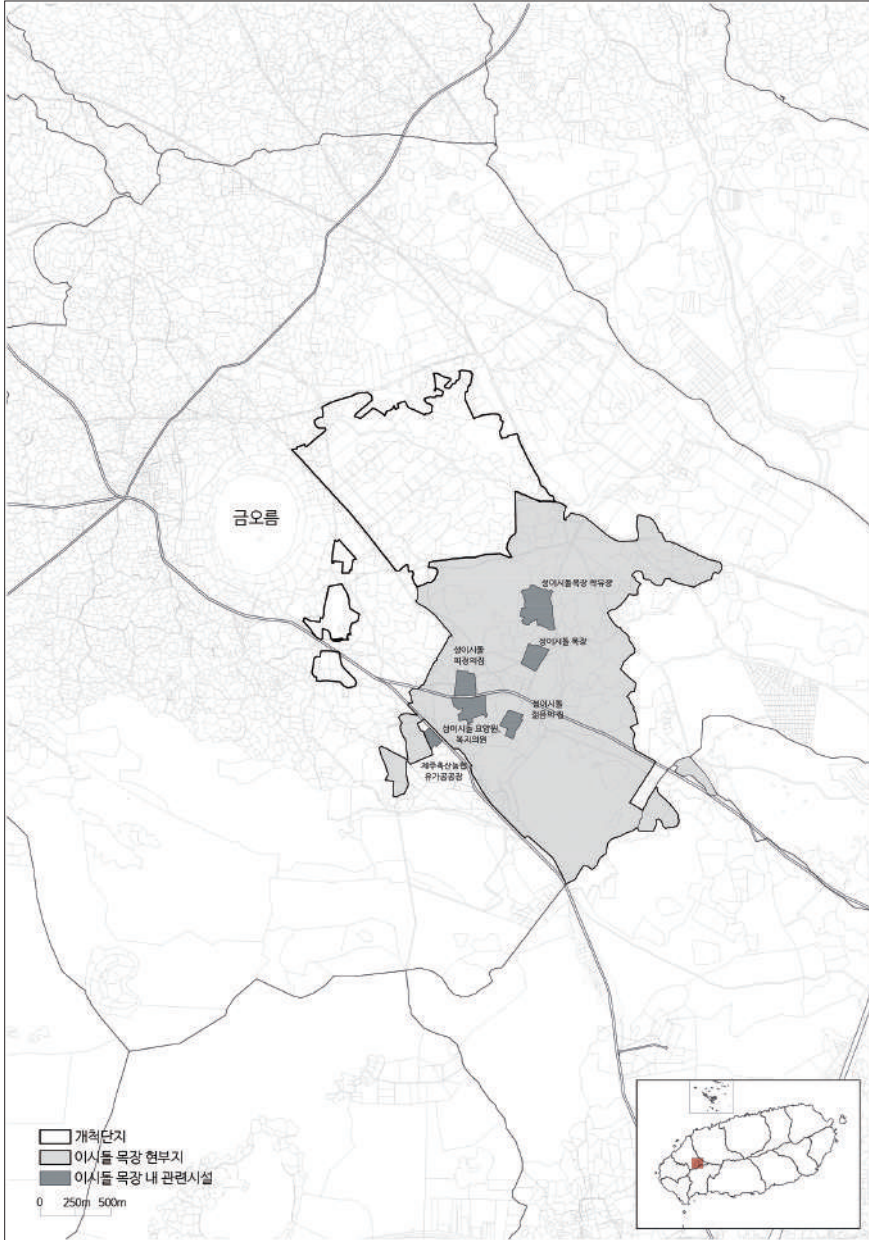


II. 성 이시돌 목장과 테쉬폰주택의 형성과정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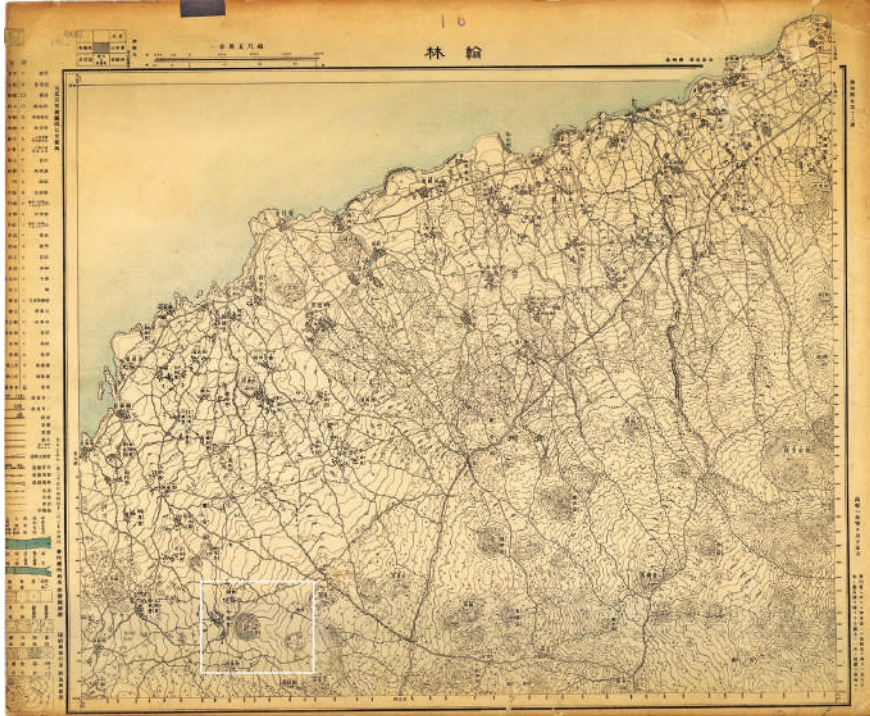
1. 성 이시돌 목장

- 성 이시돌 목장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49번지 일대에 있으며, 인근에 금악 개척 농가 단지가 있다. 특히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가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가 주체가 되어 동시기에 이루어졌으며, 테쉬폰 구법을 농가 주택과 직원 숙소 등 주거용으로 함께 도입되었다는 점,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 이시돌 목장을 금악 개척 농가를 포함한 광의의 범위로 연구를 하였다.
- 이시돌 목장이 위치한 금악리는 제주의 서 측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행정구역상 한림읍에 속한다. 한림읍의 최고 산간지대로 해발 230고지에 있다. 일제 강점기 제작된 1917년 지도에서 금악리는 금악봉 서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시돌 목장이 위치한 금악봉의 우측은 초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악은 과거부터 축산이 발달 하였으나 일제 말기에 강제 공출과 1946년 콜레라 발생, 1948년 4·3사건으로 인한 소 개령까지 내려져 마을은 폐허로 남겨져 있었다. 1953년 8월에 소개령이 해제되면서 본리로 마을이 재건되었으며, 1961. 5. 16 이후 재건 국민운동이 전개되면서 1962년, 63년 복구주택이 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다(제주시, 2020). 민간 영역에 의해 형성된 이시돌 목장은 제주시로의 직접적인 접근로가 없었으며, 당시 맥그린치 신부가 활동한 한림 지역을 근거로 물류와 자원을 활용해 성장한다는 점에서 금악을 매개로 한 한림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였다고 하겠다. 개척 농가 역시 금악리와 성이시돌목장의 중간에 있다는 점 역시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 지리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이시돌 목장은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1961년 세워진 ‘성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에서 시작해 한림읍 금악리 일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전하였다. ‘성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은 이를 위해 농가들의 교육과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지역에 자원이 환원될 수 있는 실천 체계를 모색하였다. 특히 테쉬폰 구법을 활용해 다양한 시설들이 지어졌으며, 인근 금악에 개척 농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쉬폰 구법의 주거동을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립에 기여하였다.

〈그림 2-1〉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



〈그림 2-2〉 과거 금악리와 성이시돌 목장인근



1917년(대정6년) 측량, 1918년(대정7년) 제작

출처:국토지리정보원



2.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의 도입과정

2-1. 성 이시돌 목장과 테쉬폰 구법

-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주에 테쉬폰이 소개된 것은 1954년 제주로 부임해 이시돌 목장을 개척한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서다. 1960년 7년마다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을 맞아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14개월을 지낸 맥그린치 신부는 테쉬폰 구법의 견고함과 빠른 시공, 비숙련자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시공성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테쉬폰 구법 프레임 임대 업체로부터 형틀을 빌려 자신의 집 차고에서 자신의 형과 함께 테쉬폰 시스템으로 차고를 지어 보았다고 한다(박철수, 2018). 1961년 아일랜드에서 제주로 돌아온 그는 1.5m 높이의 테쉬폰 구조물의 시험 시공을 거친 뒤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전문 업체의 도움 없이 이시돌 목장의 직원 수소를 도민들과 함께 자력으로 건설하였다(박철수, 2018). 개척 농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3년부터는 개척 농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량 건설이 필요해 서울에서 내려온 ‘공영’이라는 시공업체를 통해 자신이 고안한 테쉬폰 주택 100여 채와 창고 및 돈사용 구조물 200여 채를 짓도록 했다(박재형, 2006). 관련 사진 자료와 영상을 통해 당시 테쉬폰 구법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이와 형태 역시 다양하였으며 특히 ‘롱테쉬폰’으로 불린 돈사동의 경우 마구리 방향이 원형처리 되는 등 고난도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 1966년 성 이시돌 목장 주거와 돈사용 테쉬폰



1) 1963년부터 제주 개척 농가 분양을 본격 시도하면서 자력에 의한 소단위 개척 농가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교구에 도움을 요청했고, 회사 대표가 가톨릭 신자인 시공업체 공영건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제주 한림항에 위치한 이시돌 사료공장과 금능 공소 등을 김요한(세례명) 대표가 운용하는 공영건설이 시공했고, 개척 농가 역시 상당수를 공영건설이 짓게 되었다. 하지만 바닷모래를 사용한 탓에 잔여 염분으로 인해 구조체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고, 매트 기초 대신 줄 기초를 사용한 까닭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다. 이후 공영건설은 1966년이 되면서 베트남 특수가 생기자 공영건설이 그곳에서 건설사업을 하게 되었고 성 이시돌 목장과는 더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증언되고 있다. (박철수, 2018)



그 뒤로 테쉬폰 양식의 건축물들이 잇따라 건립되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입자리가 필요했다

(출처 : 대한뉴스 제571호, 이시돌 협회)

2-2.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분포(1960~70)

-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1961년 도입된 테쉬폰 시스템은 자체 시공과 공영건업을 통해 이시돌 목장의 숙소와 축사, 개척 농가의 주택, 창고 등을 위해 시공되었음이 문헌 고찰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위치와 범위 등 그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1967년과 1979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관련 사진들을 비교 분석하고, 문헌 조사, 인터뷰 조사를 통해 테쉬폰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개척 농가(금악)는 이시돌 목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면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추진되었다. 배경에는 이시돌 목장이 당시 넓은 땅을 모두 개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제주에 축산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증명을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6). 우선 분포현황은 1961~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시돌 목장 경계 내를 조사하였으며, 금악 개척 농가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B 구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인근 지역(A, C 구역)에도 개척 농가와 유사한 규모와 배치 형태를 가진 테쉬폰이 확인되고 있어 함께 조사하였다.
- 그 결과 196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이시돌 목장 내에는 7동의 연속된 군집을 이루는 직원 숙소 동(일명 ‘칠 텍스폰²⁾) 과 9개의 개별 주거 동(숙소)이 존재하였으며, 소규모 돈사로 사용된 6개소의 군집 동(일명 ‘스몰 텍스폰’), 규모가 크고 길이가 긴 1개의 돈사 동(일명 ‘롱 텍스폰’), 연속해 2개 동이 연결된 1개의 돈사 동(일명 ‘더블 텍스폰’)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해상도 등의 문제로 판정이 유보된 주거와 돈사도 각각 2개 동이 확인되었다. 이시돌 목장 외의 개척 농가로 추정되는 B 구역에는 길에 면해 12개소에서 주거용 테쉬폰과 창고용 테쉬폰이 대지 내 지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2개는 주거용 테쉬폰만 확인되어 최소 14개의 개척 농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A와 B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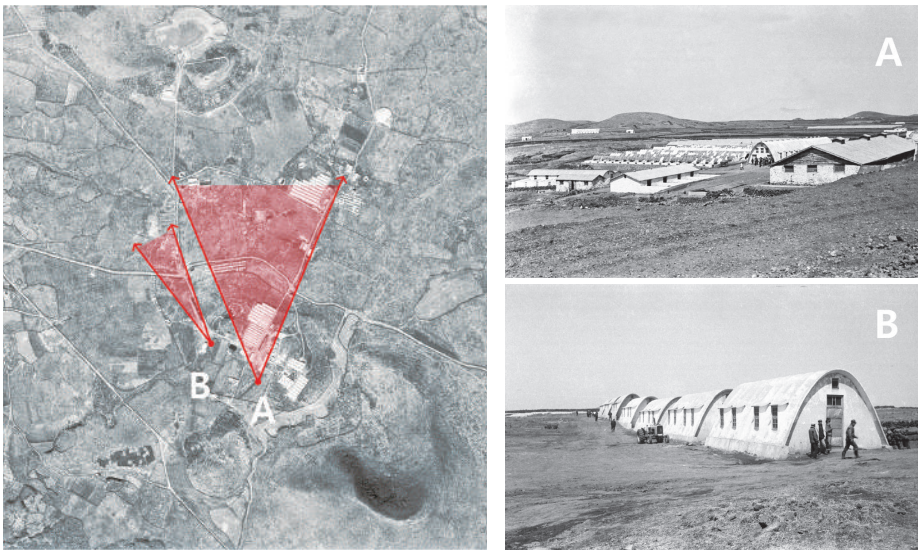
2) 인터뷰 조사 결과 인터뷰이 공동으로 테쉬폰 구법의 건축물이 당시 ‘텍스폰’으로 불리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 1987년도 7월 복제주공에서 발행한 건축물관리 대장(박철수, 2020)에서도 ‘텍스폰’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척 농가 모집 조건은 가구당 약 3만 평씩 땅을 30년 최장기 저금리상환이었다. 또한, 18평의 집과 20평의 창고, 그리고 6평의 비육 돈사와 20마리의 돼지가 함께 분양되었다. (양영철, 2016)

에도 주거용 테쉬폰과 창고용 테쉬폰이 직각으로 배치된 곳이 각각 2개소와 3개소 확인되고 있어 이들 역시 초기 개척 농가의 일부거나 1963년 이후 추가확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또한, A 구역에는 주거용 테쉬폰으로 보이는 미판정 구조물도 2개소 확인되었다.

- 12년이 지난 1979년 항공사진에서도 1967년과 유사한 분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시돌 목장의 확장으로 이시돌 목장 내 테쉬폰 구조 돈사군의 증가와 목장 외 구역에 분포되어 있던 미판정 테쉬폰이 사라지거나 다른 건축 형태로 다시 지어진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다만 특이한 변화로는 B 구역 내 세미소 인근에 주거용 테쉬폰 1개 동이 신축되었다는 것이다. 본 목장은 개척 농가 '24호' (일명 세레나 목장)로 불리고 있으며⁵⁾, 1976년 12월까지 개척 농가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개척 농가 사업의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척 농가 '24호'는 이시돌 목장 자체 인력과 일부 외부 인력(미장공)에 의해 시공되었다. 테쉬폰을 시공하던 공영건업과의 관계가 1966년에 끝났다는 점에서 이시돌 목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시공은 맥그린치 신부의 상상력을 더해 이전과 다른 2중의 외피를 지닌 테쉬폰 구법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림 2-4〉 1960년대 성 이시돌 목장 전경 촬영 사진 및 촬영 추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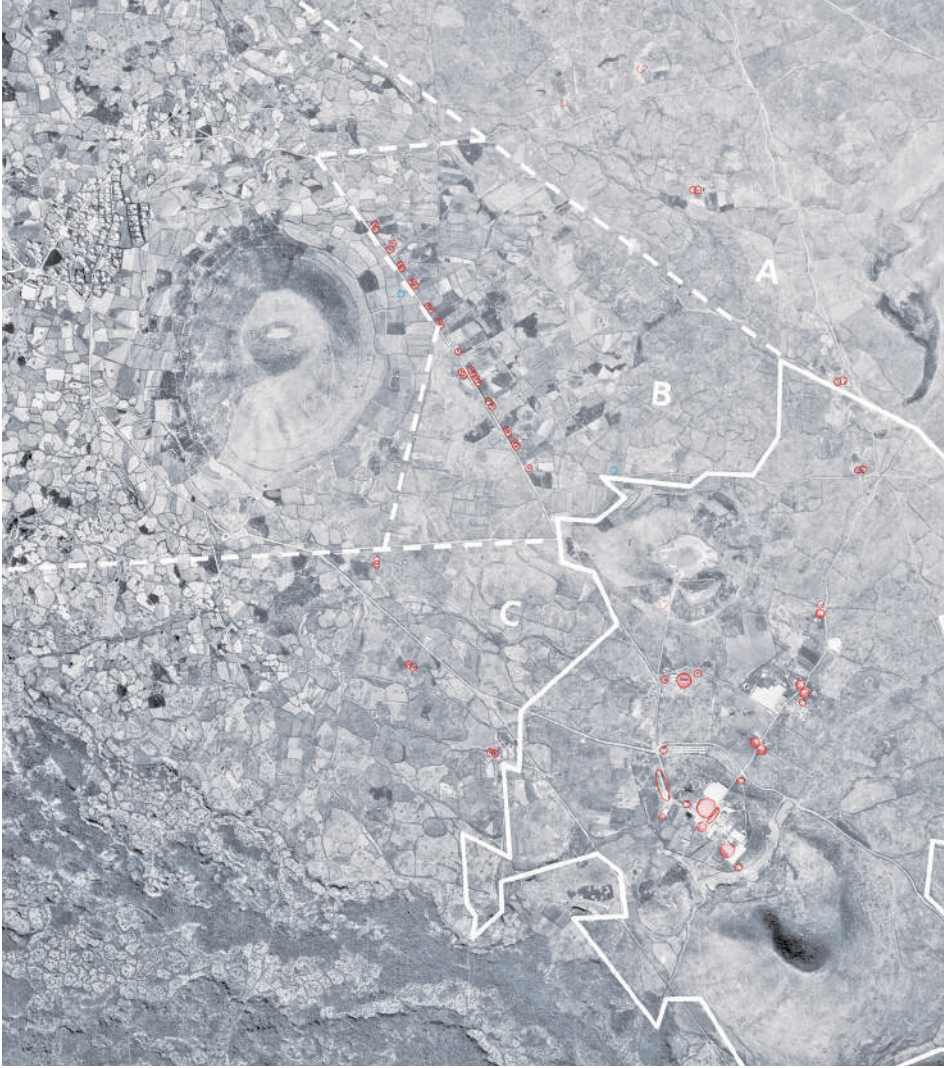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항공사진, 제주대학교 마농홍만표 사진집)

4) 처음에는 18가구로 시작하였다. (양영철 같은 책 131p)

5) 이용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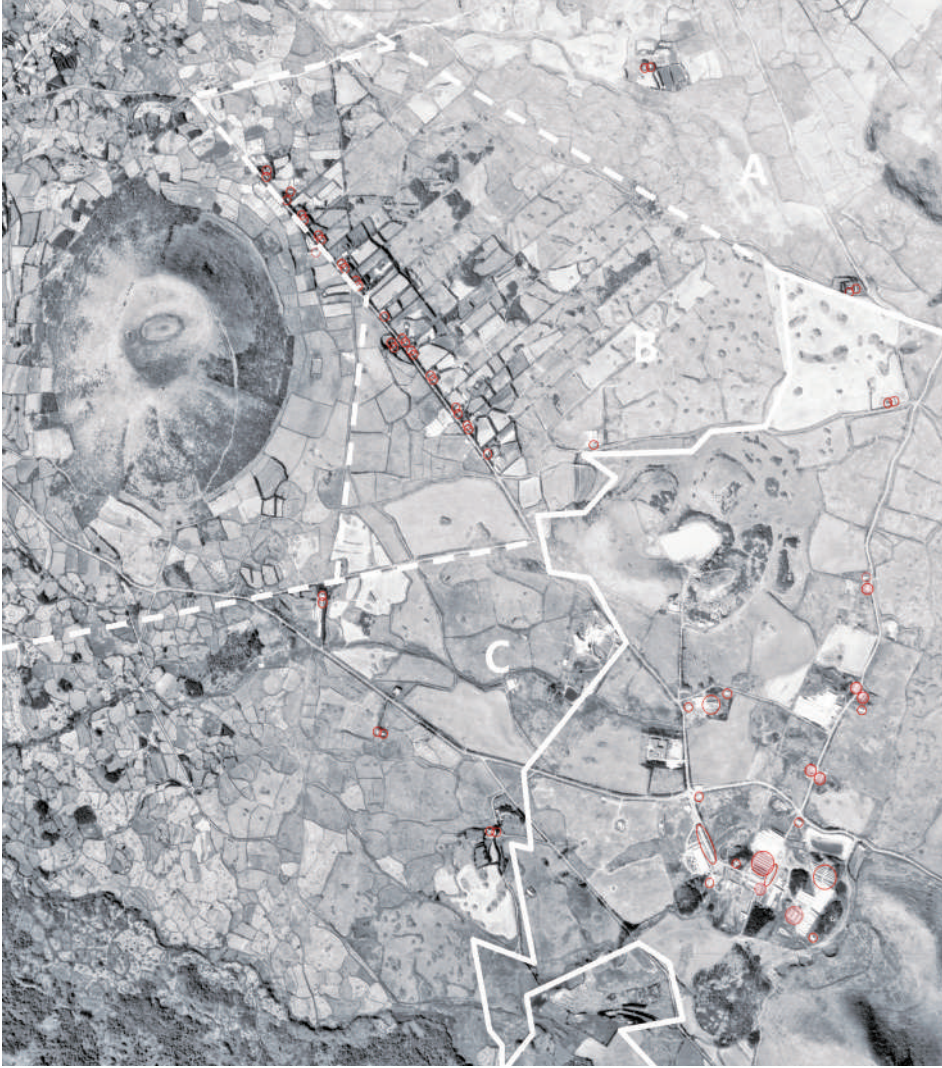
6) 24호(세레나 목장)는 맥그린치 신부의 주도하에 이시돌 목장의 자체 인력과 외부인력(미장공)을 통해 그동안 보급된 테쉬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단열과 방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내·외 2중의 외피를 지닌 테쉬폰으로 진화해 고안되었다. (이용규 2020)

〈그림 2-5〉 1967년 항공사진 속 테쉬폰 분포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6〉 1979년 항공사진 및 테쉬폰 분포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표 2-1〉 1967, 1979년 항공사진 내 테쉬폰 분포현황

(단위 동, 단 축사는 개소(個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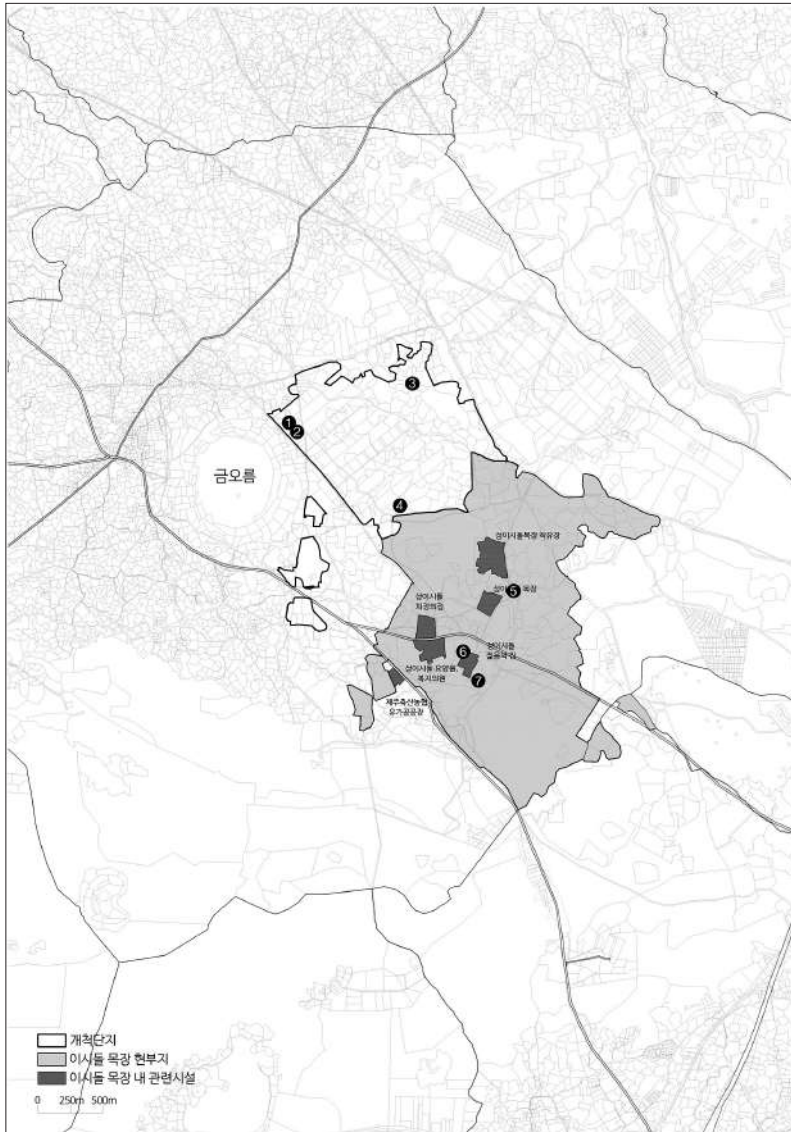
		주거용	창고	축사	미판정	합계	
1967년	이시돌 목장 외	A	3(1)*	3(1)		2(주거)***	6(2)
		B	15(1)	12			26(1)
		C	3	3			6
	이시돌 목장 내	개별	8(3)	0	7(돈사)**	2(주거)	19(3)
		군집	7		1(돈사)	2(돈사)	10
	합계		36(5)	19(1)	8	6	69(6)
1979년	이시돌 목장 외	A	3(1)	3(1)		1(주거)	5(2)
		B	16(2)	13		1(주거)	28(2)
		C	3	3			6
	이시돌 목장 내	개별	8(3)	0	8(돈사)	1(주거)	19(3)
		군집	7		1(돈사)	2(돈사)	10
	합계		36(6)	18(1)	9	5	70(7)

* 현존 테쉬폰 동수, ** 용도 및 특징, *** 추정 용도

2-3.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 건축물 분포(2020년)

- 앞선 1967년과 1979년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의 분석을 통해 테쉬폰 구법의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물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2020년 7월, 8월에 5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7개 동(개척 농가 4개 동, 이시돌 목장 내 3개 동)의 테쉬폰 주택과 창고 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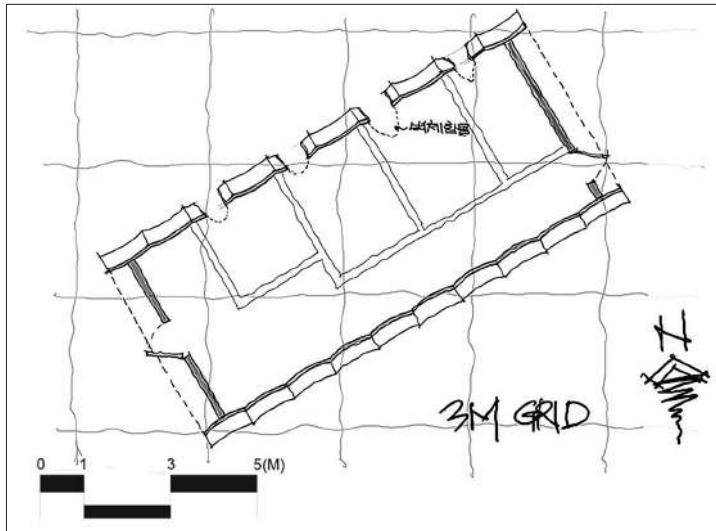
〈그림 2-7〉 2020년 현재 이시돌 목장 테쉬폰 분포현황



① 금악리 1168-1번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

- 애초에는 창고 용도였을 것이나 최근에 돈사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벽체 일부가 허물어진 것은 노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돈사로 활용하는 과정에 일부러 허물었을 수도 있다. 주거용을 사용했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과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볼 수 없다.

<그림 2-8> ① 금악리 1168-1번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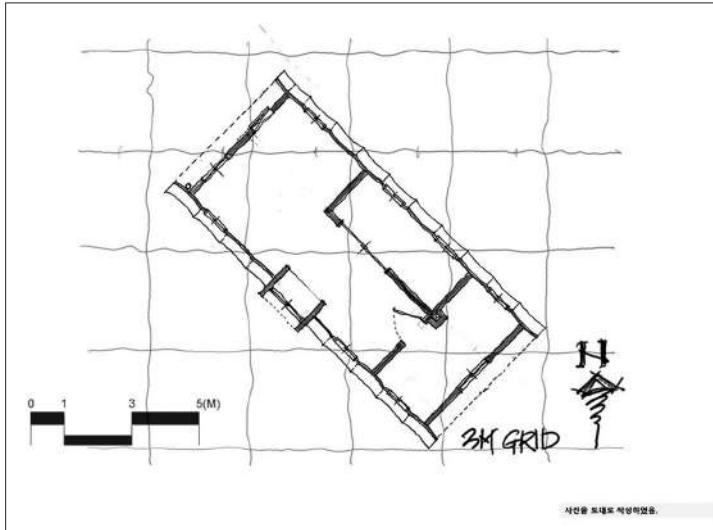
<그림 2-9> ① 금악리 1168-1번지, 창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② 금악리 1165-1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 금악 개척 농가에 남아 있는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길의 방향과 나란하게 현관이 남서향을 향하고 있다. 금악 개척 농가에 있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주거용은 길과 나란하게 남서향을 하고, 창고용은 주거용 테쉬폰과 직교 되어 배치되었다. 내부는 개조되어서 방과 부엌 사이의 벽이 제거된 상태이다.

〈그림 2-10〉 ② 금악리 1165-1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그림 2-11〉 ㉔ 금악리 1165-1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 사진



〈 좌측 방과 부엌이 있던 외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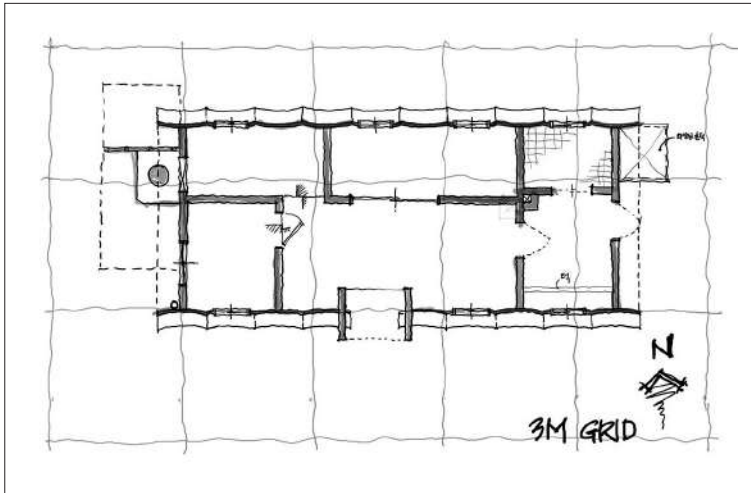
〈 우측창고 외벽 〉



③ 금악리 313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 금악 개척 농가에 남아 있는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동쪽으로는 비록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창고용 테쉬폰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어서 당시 보급되었던 농가 테쉬폰의 한 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바른 흔적이 있으며 부엌은 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을 높이고 밖으로 난방을 겸한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외부에 붙여서 화장실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림 2-12〉 ③ 금악리 313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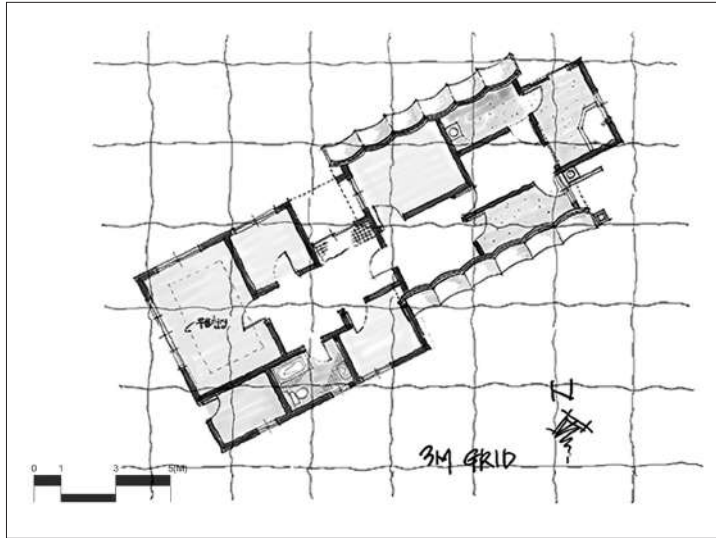
〈그림 2-13〉 ③ 금악리 313번지,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④ 금악리 361-3번지, 주거용 이중 외피 테쉬폰 구법 건축물

- 가장 나중에 지어진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기존 테쉬폰들과는 배치와 형태가 다르다. 방수와 단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테쉬폰이다. 이중 외피를 적용하기 위해서 골 방향으로는 개구부를 만들지 않았으며 골의 폭도 커지는 등 새로운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④ 금악리 361-3번지, 주거용 이중 외피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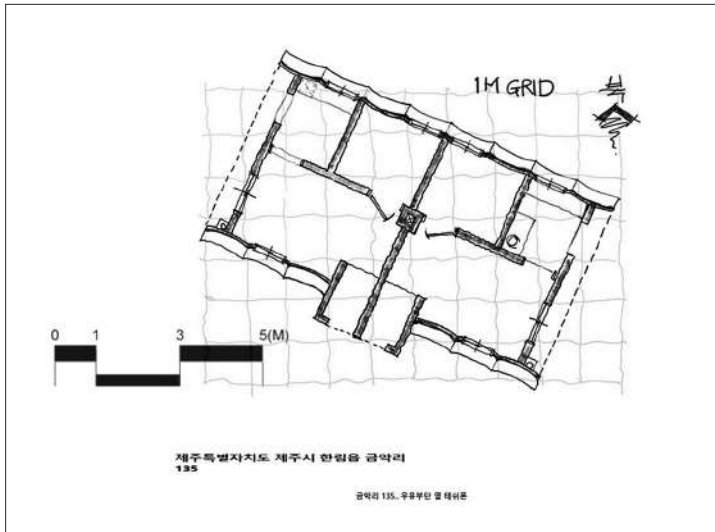
〈그림 2-15〉 ④ 금악리 361-3번지, 주거용 이중 외피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 사진



⑤ 금악리 135번지, 직원용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 목장의 관리를 위한 직원 숙소로 지어진 것으로 가운데 세대 간 벽이 있으면서 두 개의 현관으로 나뉘어 있다. 주방과 침실과 거실의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농가의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10개의 골을 갖지만, 8개의 골로 이루어져 간소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16〉 ⑤ 금악리 135번지, 직원용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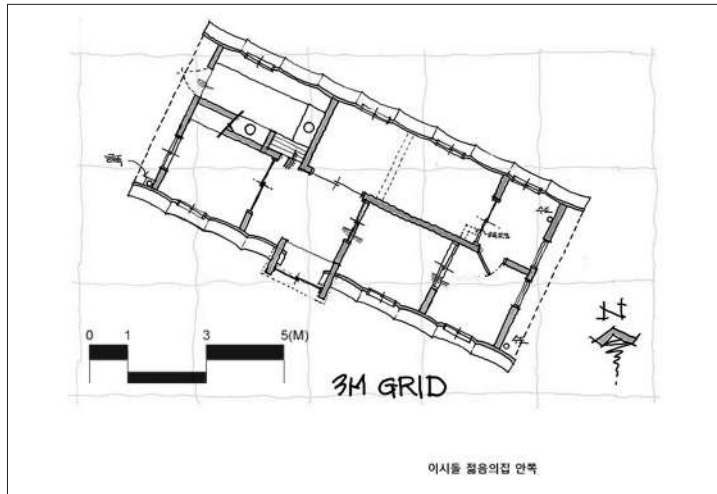
〈그림 2-17〉 ⑤ 금악리 135번지, 직원용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현장사진



⑥ 금악리 77-4번지, 목장장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 목장장과 가족이 살았던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기본구성은 개척 농가의 주거용 테쉬폰과 비슷해 보이나 좌측의 방에 제주의 근대식 주거에서 보이는 아궁이 위의 벽장을 만든 점이 독특하다. 우측의 창고 위치의 공간도 개척 농가의 공간구성과 다른 점으로 보아 적극적인 내부공간 구성을 계획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18〉 ⑥ 금악리 77-4번지, 목장장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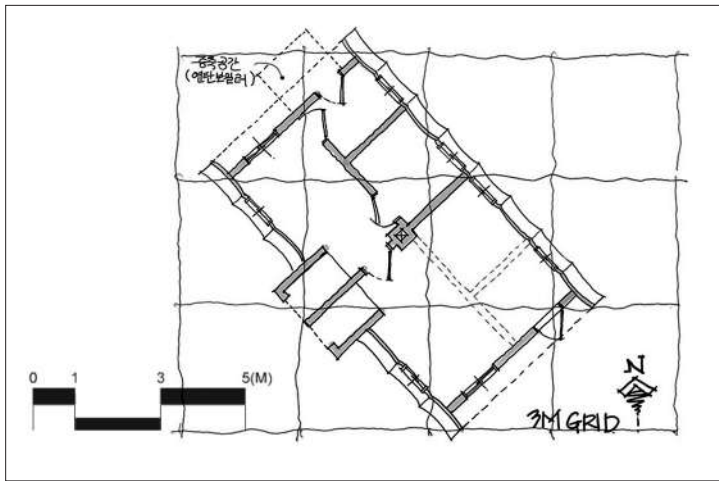
〈그림 2-19〉 ⑥ 금악리 77-4번지, 목장장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⑦ 금악리 79-1번지,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 금악리 135번지에 있는 직원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과 동일한 공간 구조로 되어있다. 우측은 내부의 벽을 전부 허물어서 홀처럼 넓게 되어있으나 좌측과 동일한 위치에 벽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과 우측의 세대 간 벽에 문이 만들어진 것 역시 개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2세대를 위한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지어진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1세대만 거주하고 나머지 1세대는 홀 형태도 사용되었다. 외부에는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고 부엌은 방으로 개조하였다.

〈그림 2-20〉 ⑦ 금악리 79-1번지,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도면



〈그림 2-21〉 ⑦ 금악리 79-1번지, 2호 연립 테쉬폰 구법 건축물 현장사진



■ 테쉬폰 구법 주택의 형태 개요

현재 남아있는 테쉬폰 구법 주택만으로 주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 금악에는 테쉬폰 구법 주택에서 생활을 했던 거주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당시의 주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테쉬폰 구법 주택은 단독형 농가 주택으로 분양된 것과 2호 연립으로 직원들이 사용했던 것이 있다. 단독형 테쉬폰 구법 주택의 경우는 10골로 지어졌고, 2호 연립테쉬폰 구법 주택의 경우는 8골로 지어졌다. 테쉬폰 구법 주택에서의 골조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다. 다만 기초 부분은 남아 있는 구조물을 확인해 보면 현수아치벽면을 따라서 줄기초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테쉬폰 구법 주택의 공간구성은 골방향의 전면부와 후면부의 2개 열로 공간을 나누어 겹집구조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골방향을 주출입구로 하고, 측면부를 부출입구로 하고 있다.

인터뷰에 의하면 단독형 테쉬폰 구법 주택의 가운데 공간은 초기에는 마루로 시공되었으나 공기층이 적은 상태로 시공되어서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모르타바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우측에는 창고 용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는 초기에 변소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내변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창고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에 가장 변형이 많은 공간으로 다양한 용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엌은 현관의 좌측 후면에 만들어져 있는데, 실내보다 50cm정도 낮게 만들어져 있다. 이는 난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난방방식은 부엌 아궁이를 통해서 취사와 난방을 겸하였고 중앙의 굴뚝과 좌측 전면의 안방의 굴뚝을 통해서 2방향으로 난방이 이루어졌다. 초기에 난방이 가능한 방은 좌측 전면의 안방과 가운데 후면의 큰방으로 두 개의 방이었다.

기술적으로 테쉬폰 구법 주택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특히 방수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방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폭시도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쉽게 해결은 되지 않은 듯 하다. 이중외피 테쉬폰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테쉬폰 구법이였다.

3. 성 이시돌 목장의 형성과정(1960~70)

-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 콜롬반선교회의 사제로 1954년 목포 교구에 머물다가 제주를 최종 임지로 부임했다. 한림에 부임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방법으로 1957년 가축은행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축은행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성당 마당에서 돼지를 키워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그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 한림읍 정물 부근의 3,000평 대지를 매입했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3). 당시 맥그린치 신부의 월급은 미화 70달러로 생활하기도 벅찬 금액이었으며, 그는 고향 친구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3). 당시 3,000평에서 시작한 목장은 4H 청년회원 20여 명과 더불어 개간을 하며 초지를 조성하고 일본군이 썼던 군인 막사를 우리로 만들어, 돼지, 면양, 소를 키우며 성장하였다. 이후로도 가족, 친구들을 비롯한 미국과 독일의 구호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고 축산 규모를 현재의 약 300만 평 면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3). 이시돌 목장은 1961년 11월 금약리 109번지 일대에 ‘한림목장’으로 처음 개설하였으며 ‘이시돌’이라는 이름은 ‘농민의 주보 성인’인 ‘성 이시돌’⁸⁾에서 유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처음 이시돌 목장의 정식 이름은 성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이었다고 전해진다. 맥그린치 신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생각보다는 축산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실습을 위한 장소를 만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목장 내에 ‘농업 훈련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농업훈련센터’는 1970년에 중앙연수원을 건립한 이후 ‘농업기술연수원’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해진다(오마이뉴스, 2007). 이시돌 목장이 규모를 갖추고 실습목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자, 이후 1962년 축산과 목초지 개량, 생산물 가공 등의 생산 활동과 더불어 교육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였다(김경주, 2015).

7) 제주 중산간 지역은 4·3의 소개령의 영향으로 폐허로 대부분 유휴지이었다. 당시 제주에는 방목하는 관습이 있었기에 역새와 잡초를 제거하면서 비료를 대신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고 전해진다. 3월경 불을 놓으면 이후에 풀이 자라기까지 마을에서 소를 한데 모아 고용된 목동에 의해 중산간 지역에 방목하였다고 한다. 이후 8월쯤 다시 마을로 소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추수 기간에는 노동력으로 사용할 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맥그린치 신부를 목초를 개발해 목장을 조성하면 아일랜드처럼 1년 내내 방목해도 소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6).

8) 성 이시돌은 에스파냐 마드리드 근교에서 태어나, 후 안 데 베르가스의 영지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도 가난하였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이시돌은 희랍어로 선물이란 뜻으로,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성인이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 국립 농촌 생활 위원회의 수호자이다(권은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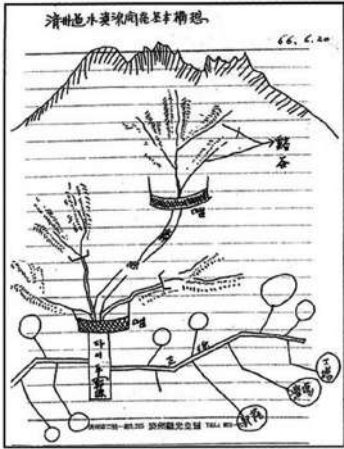
〈그림 2-22〉 1966년 성 이시돌 목장 전경



(출처 : 대한뉴스 제571호)

- 이시돌 목장의 확장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정물의 수원으로는 사용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유일한 저수지였던 어승생 저수지에서 물을 직접 끌어 오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이시돌 목장에서 어승생 저수지까지는 약 18km나 되는 거리였으나 결국 1967년 7월 연결관 공사를 성공시켜 물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전해진다(양영철, 2016). 실제 1969년에 지방행정에 실린 강한문 이시돌 농촌사업 개발협회 서무계장의 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강한문, 1969).
 - “중앙실습 농장에 있어서 간과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하나는 급수 문제이다.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전국을 휩쓴 한발은 중앙실습농장의 저수지를 모조리 바닥내고 말았으니 이로 인하여 약 7개월간에 걸쳐 종업원과 그 가족 100여 명과 가축 1만2천 두의 급수를 위하여 매일 농장에서 12km 떨어진 한림리로부터 100여 톤의 물을 수송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약 7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악경을 겪고서 급수문제 해결은 농장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결국 “옥스팜”(OXFAM)으로부터 자재의 원조를 얻어 중앙농장에서 18km 떨어진 어승생하 속징 “치도”로부터 수원을 포착하고 양수 시설에 의하여 P.V. C 파이프를 물을 압송함으로써 1일 약 500t의 농장 용수를 해결케 되었다.”

〈그림 2-23〉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어승행과 식수해결 구상도



(출처 : 대한뉴스 제786호)

〈그림 2-24〉 이시돌 목장 어승생 저수지
연결공사



(출처 : 이시돌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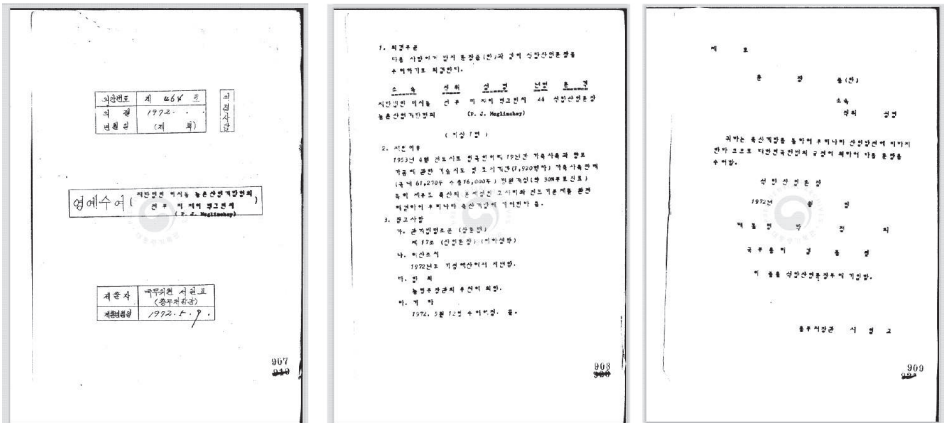
-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 목장 방문 후 목초 개발을 명령하지만, 목초 연구 기반이 없었던 국내 여건에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저개발 원조 계획이었던 ‘콜롬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에 방문한 세계적인 목초 전문가인 뉴질랜드인 조지 홀즈(Gorge Holms)는 우연한 기회로 1969년 제주로 파견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시돌 목초 개발이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 민간에 의해 목초 개발 성공한 일이 대통령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맥그린치 신부와 이시돌 목장이 주목되게 되었다. 이후 박 대통령을 면담하게 된 맥그린치 신부는 돼지를 이동하기 위해 이시돌 목장에 한림항까지의 14km의 농로 개량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양영철, 2016),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2월 17일 이시돌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이후 도로포장과 전기와 전화 설치를 요구한 맥그린치 신부의 요청을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원되게 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실을 문헌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영상과 관련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5〉 1973-02-24 박대통령제주도정기순시



(출처 : 대한뉴스 제920호)

〈그림 2-26〉 1972년 맥그린치 신부 석탑산업훈장 수여 문서



(출처 : 국가기록원)

(그림 2-27) 1976년 이시돌협회 도로와 전화 등 건의사항 검토 문건

이시돌 農村産業協會 建議事項檢討	
建 議 事 項	檢 討 意 見
<p>1. 法人稅, 法人營業稅, 關稅免除 (理由)</p> <p>가. 勸進獎勵, 放牧開墾 등 社會共 育英 事業을 위한 非營利 法人법</p> <p>나. 政府의 義務한 負擔을 받고 있음</p> <p>다. 利益은 再投資하여 事業終了時 이은 모든 財產은 政府에 歸屬하기로 되어있음</p> <p>라. 勸進業에 對하여는 法人稅가 74년까지 全額 免除, 77년까지 50% 免除도록 되어 있음. 一部 技術指導品目(인스안호)의 再販取費에 法人稅와 法人營業稅가 賦課되고 있음</p>	<p>(1) 法人稅 및 法人營業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法人稅法上 非營利法人이라고 하여 法人稅를 免除하여는 一般的인 規定은 없으며 尙한 稅率面에서 若干 優待되어 있는 程度이 크고 있음 (500萬원 超過利益 10% → 35%)</p> <p>(나) 이시돌 法人稅와 法人營業稅의 免除은 不可함</p> <p>(다) 非營利 法人에 對한 一部 減稅特典을 法理化하는 方策도 考慮할 餘지 無스나 似非非 非營利 團體의 惠用과 稅稅 惠惠가 있음</p> <p>(2) 關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關稅 減稅 規定이 依하건 耕作農業, 土地改良 事業과 畜産業에 對하여는 一部 減稅 (은모시, 스크리, 공과자, 雜草 牧草種子 雜草種, 분비기 등)에 對하여는 關稅를 免除하여주도록 함은 그 範圍이 制限됨</p> <p>(나) 기술을 協會가 對하여서만 工 購入 物品에 對하여 包稅 免除하는것은 困難함</p>
<p>2. 輸林 - 이시돌 牧場間 道路鋪設 (27m)</p>	<p>閣下指示에 依하여 今年까지 完工 豫定임</p> <p style="text-align: right;">704</p>

130 40488 40547

이시돌 農村産業協會 建議事項檢討	
建 議 事 項	檢 討 意 見
<p>3. 輸林 幹道旁 - 이시돌 牧場 間의 一般 電箱 架設</p>	<p>(1) 通信部로 하여금 73年度 互用單位 通信例 設置科規(豫算 47000원)을 一部 變更하여 輸道 - 一般의지(人口 2180名)間 電箱架設工事業을 完了하도록 하고, (8000)</p> <p>(2) 一般의지 - 牧場間 (40m) 電箱架設은 기술을 牧場 自體 負擔으로 實施하도록 함 (自體 負擔金 1,092,000원)</p> <p>(3) 通信部가 輸林 - 牧場間을 全部 架設工事業을 하는것은 尙한 尙한 難矣기 있음</p> <p>(가) 公衆이 아닌 牧場이라는 特定人을 爲하여는 電箱 非設置區域 이며 國庫 負擔으로 電箱架設을 할 수 없음</p> <p>(나) 一般의지 牧場이 一團內에서 所在되고, 尙한 尙한에 一團內에 一團의 電箱을 設置하기가 地塊 畵의 均衡上 困難함</p> <p>(다) 總工價費가 880萬원 所要됨</p>
<p>4. 이시돌協會 會式 表章 12團世帯에 對하여 養豚 資金 16百55圓 長期低利 融資</p>	<p>養豚 幹道 表章을 事業性을 檢討하기 爲政 資金 - 時日 收 資金에서 貸出 支拂 5百, 指示하시기를 建議 2百</p>

130 40489 40545

(출처: 국가기록원)

4. 금악 개척농가의 형성과정(1960~70)

-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이 안정화되자 이시돌 목장을 통해 고용 증대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장을 경영할 충분한 경험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목장을 그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개척농장의 출발이었다. 이시돌 목장은 1963년 미국이 잉여 농산물 옥수수 원조 PL480⁹⁾ 규정이 변경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기관 등 민간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해짐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1967년까지 무상 옥수수 원조 PL480을 받았다.¹⁰⁾ 이시돌 협회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약 4년 동안 받은 PL480 옥수수는 금액으로 보면 322만 달러로 대단히 큰 금액이었다. (양영철, 2016) 1963년 맥그린치 신부는 PL480의 옥수수 판매 자금과 일부 원조를 이용해 제주도 중산간(해발 350~600m) 토지를 800여 ha를 매입 개간하고, 100가구(실제는 98가구)를 모집하여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에서 초지 조성 및 축산에 대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이후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오라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척 농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개척 농가는 이시돌 목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면서 동시에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18가구로 시작하였는데 이시돌 목장이 혼자 그 넓은 땅을 개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축산업이 경제성에 있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개척 농가 모집 조건은 가구당 약 3만 평씩 땅을 30년 최장기 저금리(연 3.5%이자, 당시 보통 예금 대출이자 40% 내외) 상환이었다. 또한, 18평의 집과 20평의 창고, 그리고 6평의 비육 돈사와 20마리의 돼지가 함께 분양되었다. (양영철, 2016)
- 1969년에 지방행정에 실린 강한문 이시돌 농촌사업 개발협회 서무계장의 글에서 이시돌 협회의 5대 사업의 하나로 개척 농가를 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이 있다 (강한문, 1969).

 - “이 사업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보면 I.D.A(이시돌 농촌사업 개발협회) 중앙실습농장에서 일정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전형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계약하게 하여 소정의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데, 개척 농가 회원의 경우를 보면 주택 18평, 창고 20평, 돈사 4평, 분뇨탱크, 사이로, 울타리 시설 및 토지 10정보를 신용, 대부 하며 사료, 자돈, 비료, 농양, 농자, 면양 등을 현물용자 하여 주고 트랙터를 배치 개간을 하여 준다. 토지 10정보는 주식 공물 1정보,

9) PL480은 미국이 농업 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자 가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를 식량이 절대 부족한 후진국 원조에 활용한 프로젝트이자, 관계법이다. 우리나라에도 1956년부터 1978년까지 원조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 곡물을 국민에게 팔아서 식량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판매 수익금을 대충자금이라고 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로 이 자금을 사용하였다.

10) 1963년 미국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되는 사료(옥수수) 도입이 승인되자, 정부와 미 대외원조국(USOM)과 가톨릭 구제회 3자의 협정에 의하여 1963년부터 1967년까지 322만 불에 해당하는 사료 곡물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회원들에게는 돼지를 살찌게 하여 수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사이에 8천 보의 사료포를 개발하여 사료를 자급할 수 있도록 꾀하였다. 하지만 사료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고, 이에 1964년 ‘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염가로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11)

사료작물 3정보, 목야지 6정보로 구분 경영케 하며 목야지는 목야 개량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시설물 및 토지는 연 3부 5리 이자로 10년간 연부 상환하며 현물용자는 월 1 부리로 1년 상환으로 되어있다. 상환이 완료되면 I.D.A는 즉시 회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농가 10호 이상으로 1개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있는 것이 개척 농가이다.”

〈그림 2-28〉 1966년 금악 개척 농가 전경



(출처 : 대한뉴스 제571호)

- 1969년 시점의 상기 문건에서 강한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개척 농가’와 이후(1970년대) 진행될 ‘개척단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PL480 제2관 제주 사료 사업의 성격이 양돈에 국한되어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업 연장시 용도 제한을 철폐하여도 행정당국과의 연계한 ‘개척단지’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었다. 실제 1970년대 다수의 축산단지와 양잠단지 등이 ‘개척단지’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전역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연관성을 추정케 한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립이 실현된 것에 대해 ‘개척 농가’와 ‘개척단지’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PL 480 제2관 제주 사료 사업의 실적은 대략 이상과 같으나 1969년 6월 말로서 그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D.A는 미진된 사업을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 중에 있다. 이 연장승인이 될 경우 I.D.A는 제주도 행정당국과 제휴하여 도가 추진하는 개척단지 130세대의 정착사업에 건물, 돈사, 사이로, 목책 등의 시설대부를 비롯하여 면양, 돼지 등 가축대부 등 총 5천 8백만여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다. 이번 연장신청서에는 사료의 용도 제한을 철폐하여 양돈, 양계, 기타 필요한 축산업을 시장성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I.D.A는 앞으로 기 조성되어있는 230세대와 도행정당국과 제휴 추진하는 130세대의 개척단지사업을 충실히 뒷받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360세대로부터 상환되는 자금을 재차 새로운 개척농가조성에 계속 투자하여 이들 개척농가들이 다각적인 축산업과 영농의 기계화로 축산물의 수출촉진, 현금작물의 대량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 등으로 제주도에 있어서 농촌근대화의 시범을 구현하여 갈 것이다.

〈그림 2-29〉 1970년 금악 개척 농가 전경



(출처 : 제주도 제46호)

Ⅲ. 성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 규명

1. 커뮤니티 워크숍 (WS)의 개요

1-1. 사전 인터뷰 개요

■ 김승학 님 인터뷰 개요

본 연구팀은 2020년 6월 6일 1970년대부터 성 이시돌 목장 인근 축산단지에 거주했던 김승학 씨를 인터뷰했다. 1970년대의 이시돌 목장의 공동체 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과 축산단지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인한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김승학 씨와의 인터뷰는 현 거주지인 애월읍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최호석, 김승석, 부기홍이 참석했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약 2시간이었으며 인터뷰와 함께 공동체의 주요시설인 금약성당, 개척 농가터, 축산단지 터 등을 답사하였다.

〈그림 3-1〉 인터뷰사진



인터뷰 내용으로는 김승학 씨가 축산단지에 거주하며 경험했던 성 이시돌 목장, 축산 단지, 개척 농가 관련 내용과 직접 참여하셨던 4H 운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준비한 1970년대의 이시돌 목장의 항공지도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이후 녹취록 작성 및 내용 요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였다.

1-2. 성 이시돌 목장 및 개척농가 워크숍 개요

- 본 연구팀은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에서의 공동체 문화와 테쉬폰 구법 건축물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60년대 개척 농가 거주와 이시돌 목장에서 근무했던 박용근 씨와 박고봉 씨(이시석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2020년 8월 19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연구팀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이용규 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자 양성필, 오성훈, 최호석, 부기홍, 박지성, 김서연이 참석하였다.
-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주생활 조사 시트(단위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도, 관련 사진 등)'를 2개 조로 나누어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부에서는 우선 연구팀이 준비한 1960년대 항공사진과 이시돌 목장 입체 모형을 통해 전반부 인터뷰를 하였다. 후반부에는 연구진이 취합한 영상과 사진(출력) 자료들을 시청하며 인터뷰를 하였다. 이시돌 목장 입체 모형은 금악봉과 세미소 등 지형물과 앞서 실시된 김승학 씨와의 커뮤니티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주요 거점 시설들, 연구

〈그림 3-2〉 워크숍 사진



진에 의해 분석된 테쉬폰 구법 건축물들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사전에 모형에 부착하여, 인터뷰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영상은 노트북을 통해 시청하였으며, 사진 자료는 출력물과 노트북을 활용하였다. 2부는 커뮤니티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증언 속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

2-1.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 본 절에서는 커뮤니티 워크숍과 인터뷰의 내용을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에 따라 정리하였다. 취합한 워크숍과 인터뷰의 내용은 공간을 구성하는 점·선·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안에서 다시 생활적인 요소, 여가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로 나누어 분석했다.
- 본 절에서 '점'은 물통, 성당과 같이 지역에 특정 지을 수 있는 점적인 요소를 뜻한다. '선'은 도로, 전기와 같이 점들이 이어진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요소를 의미한다. '면'은 성 이시돌 목장, 개척농가 등과 같이 영역의 모습을 보이는 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점·선·면의 하위항목인 생활적인 요소는 당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요소이다. 여가적인 요소는 당시 거주민들이 여가에 활용했던 요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인 요소는 랜드마크처럼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 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2-2. 점적 요소

-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점적 요소 중 생활적인 요소로는 물통이 있었다. 밥솥물은 하광 목장(성호 목장) 부근에 있었던 물통으로 4.3사건 때 금악리 사람들의 피신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생사물은 축산단지 주변의 물통으로 축산단지의 물통 역할을 했다. 노나진 밭은 금악봉 아래에 위치했던 물통으로 개척 농가의 물통 역할을 했다. 주변을 다듬어서 연못을 만들었고 그 연못의 물을 물지게로 길어서 사용했다. 이외에도 흙통, 건평 등에도 물통이 존재하였다.
- 여가적인 구성요소는 수영장, 성당이 있었다.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사람들이 여름 피서용으로 사용했던 수영장은 축산단지, 금악 등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구역이기도 했다. 성당은 성 이시돌 목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제주 사람들과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모임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 인지적인 요소로는 정문과 후문이 있었다. 또, 원형교차로에 있었던 교환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리고 연수원은 인지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였다. 해외 원조를 통해 건립한 연수원은 사람들을 모아서 축산관리에 대해 교육을 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뒤에는 기숙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림 3-3〉 점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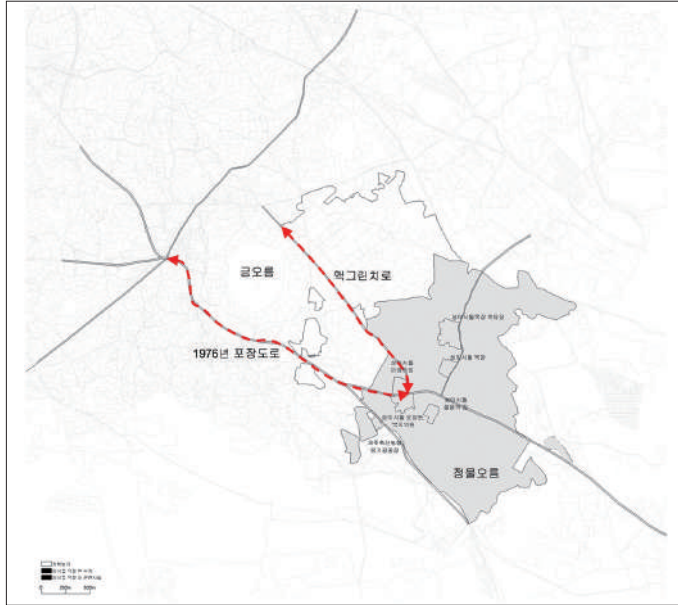


〈표 3-1〉 인터뷰 속 점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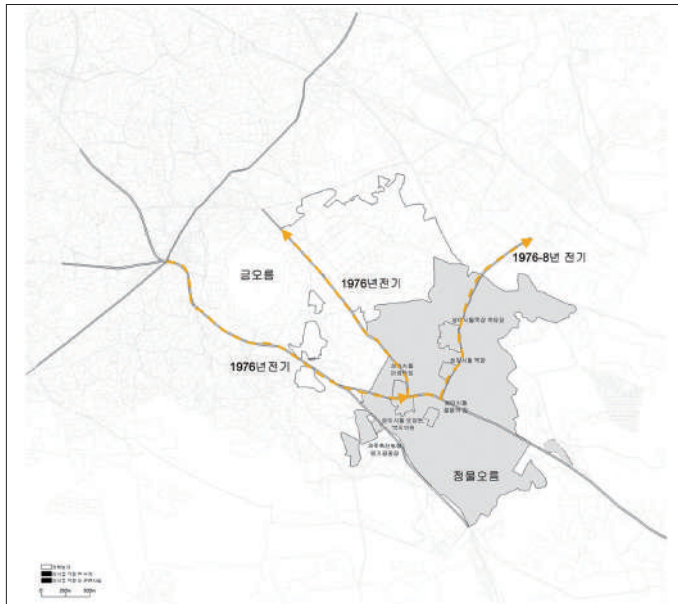
커뮤니티 구성요소		인터뷰 내용
점	생활	밥솥물 김승학 : 하광목장(성호 목장) 앞 큰 동굴 안에 있던 물통이었다.
		생사물 김승학 : 축산단지 주변 물통이다.
		새미소 박용근 : 세미 오름 위 저수지이었다. 세레나 : 어승생 물을 새미소를 거쳐 파이프를 끌어와서 사용했다.
		노나진 밭 박고봉 : 금악봉 아래에 있는 물통이다. 주변을 다듬어서 연못을 만들고 길어 사용했다. 박용근 : 개척 농가는 물을 노나진 밭에서 길어다 썼다.
		기타 물통 김승학 : 축산단지 주변에 물통이 몇 곳 있었다. 박용근 : 흙골 같은 물통이 존재했다. 이외에도 젊음의 집, 건평 등에도 저수지가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저기 저수지를 팠다.
	여가	수영장 김승학 : 수영장에서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사람들은 피서를 즐겼다. 축산단지, 금악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배척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성당 세레나 : 제주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썼으며 성당을 매개체로 하여 모임이 이루어졌다.
	인지	후문 박고봉 : 후문에 생활협동조합이 있다가 옮겨갔다.
		교환소 김승학 : 전화를 연결해주는 장소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
		연수원 마이클 : 연수원에서 축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러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교육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기숙사처럼 사용됐다. 박용근 : PL480, 뉴질랜드 등에서 해외 원조를 받아 건립했다. 이곳에서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기술을 가르쳐서 보내는 사업을 진행했다.

2-3. 선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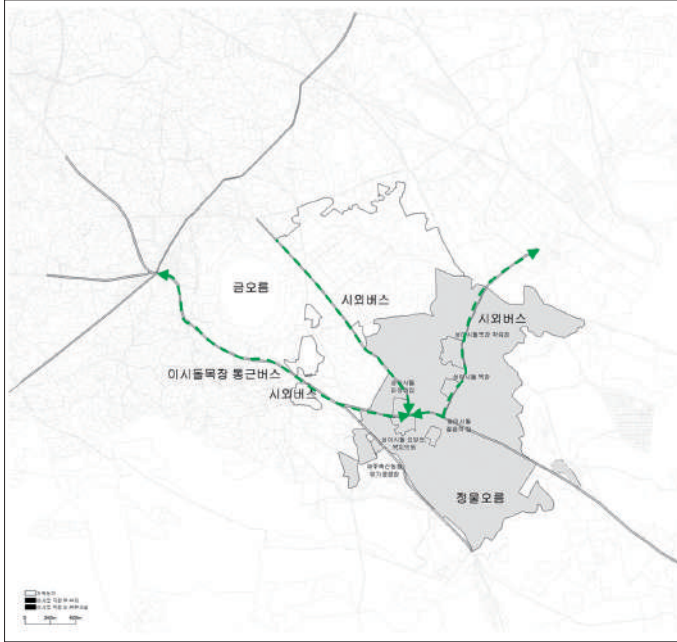
〈그림 3-4〉 선적 요소(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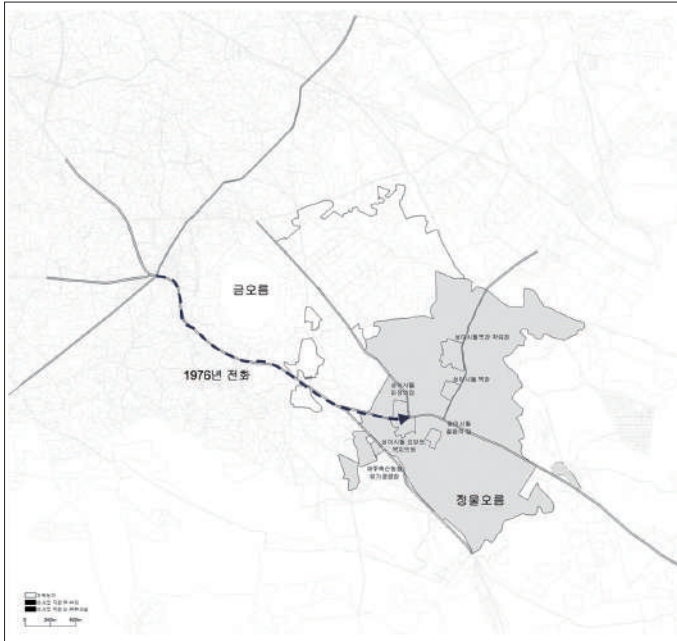
〈그림 3-5〉 선적 요소(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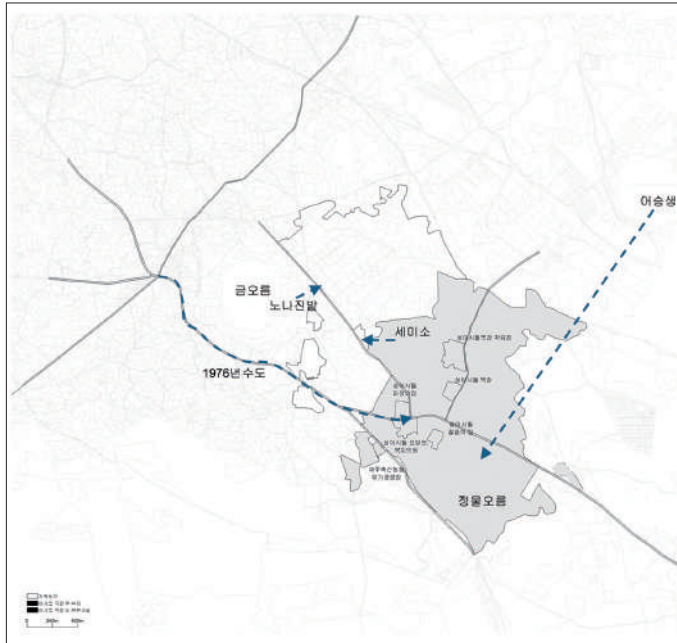
〈그림 3-6〉 선적 요소(버스)



〈그림 3-7〉 선적 요소(전화)



〈그림 3-8〉 선적 요소(수도)



- 선적 요소는 생활적인 요소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시 도로는 마이클 신부님이 박정희 대통령 내방 당시 건의하여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생겼다. 당시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금악-성 이시돌 목장 방면 도로였다. 이후 맥그린치 신부님이 개척 농가 앞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 1~14호 사람들과 함께 길을 포장했다(맥그린치로). 당시 포장하는데 사용된 돌은 개척 농가 내 돌담이었다. 이 길을 통해 버스가 다녔으며, 노선 경로는 한림읍~금악리~개척 농가~교환소~축산단지였다. 성 이시돌 목장 자체 출퇴근 버스도 있었다.
- 전기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내방 이후 연결됐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금악-성 이시돌 목장 방면 길을 통해 연결됐다. 축산단지에는 1975~78년 이후 성 이시돌 목장에서 후원을 해줘 전기가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 전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호롱불, 대한 등을 사용했다.
- 수도는 다양한 곳에서 관을 통해 끌고 왔다. 어승생의 물을 세미소를 넘어서 끌고 오기도 했고 정물오름에서 파이프 관을 통해 끌어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훔골이라는 곳에서 관을 통해 수도관을 연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수도의 보급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내방 후인 1976년이라는 증언도 있다.
- 전화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내방 후 1976년 들어왔다. 한림에서 금악리까지 8km 구간은 정부에서 공사를 해주고 금악리에서 성 이시돌 목장까지 4km 구간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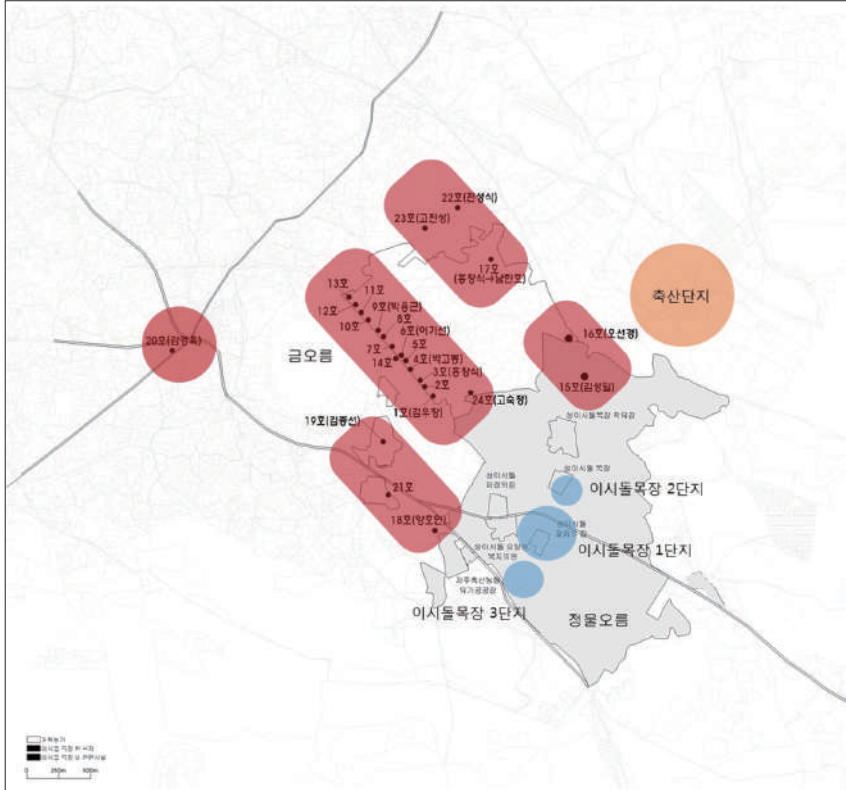
이시돌 목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한림우체국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표 3-2〉 인터뷰 속 선적 요소

커뮤니티 구성요소		인터뷰 내용
선	생활	<p>도로</p> <p>김승학 : 비가 많이 오면 버스가 축산단지까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다. 세레나 :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 당시 맥그린치 신부님이 도로의 포장을 건의했다. 그 결과 한림에서 금악까지 8km, 금악에서 이시돌까지 4km 구간에 포장도로가 생겼다. 박고봉 : 수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내방 후 1976년 포장도로가 생겼다. 이때 생긴 도로는 금악봉 서쪽 편 길이다. 이후 맥그린치 신부님이 개척 농가 앞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 1~14호 사람들과 함께 길을 포장했다. 이때 돌은 개척 농가의 돌담을 사용하고 그 돌담은 철책으로 대체했다. (현재 맥그린치로)</p>
		<p>전기</p> <p>김승학 : 전기는 75~8년 즈음에 들어왔으며 성 이시돌 목장에서 연결해줬다. (축산단지) 박고봉 : 수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내방 후 들어왔다. 박용근 : 75년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전에는 호롱불, 대한 등을 사용했다.</p>
		<p>버스</p> <p>김승학 : 시외버스는 한림읍~금악리~개척 농가~교환~축산단지로 다녔다. 세레나 : 한림에서 성 이시돌 목장까지 출퇴근 버스가 있었다.</p>
		<p>수도</p> <p>마이클 : 당시 정물오름에서 파이프로 약 14km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다. 박용근 : 흠골에서 PVC관을 이용해서 수도관을 연결했으며, 노나진 밭에서도 길어다 사용했다. 세레나 : 어승생 물을 가져오는 수도에 관을 연결해서 사용했으며, 수도관은 세미소를 타고 넘어왔다. 박고봉 :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내방 후 1976년 연결됐다.</p>
		<p>전화</p> <p>대통령 기록물 : 76년 전화통신선 설치에 대해 한림에서 금악리까지 8km 구간은 공사를 진행해주고 금악리에서 성 이시돌 목장까지 4km는 목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했다.</p>

2-4. 면적 요소

(그림 3-9) 면적 요소(커뮤니티 일상교류)



- 면적 요소 중 생활적인 요소는 교류가 있다. 당시 개척농가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던 것은 아니나 자주 어울렸었다. 그러나 TV가 보급된 후 모임이 줄어들었다. 축산단지는 성 이시돌 목장이나 개척 농가와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양돈업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인 사람이 모여 ‘산뉘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가 존재하였다.
- 면적 요소 중 인지적인 요소로는 주요 단지들이 있다. 성 이시돌 목장은 정물오름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해외 원조를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거나 주기 위해 힘썼던 단지이다. 당시 근무 인원은 120명을 넘었으며, 외부에서는 모두 천주교 신자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 인터뷰 속 면적 요소(영역)

커뮤니티 구성요소		인터뷰 내용
면	생활	교류
	인지	성 이시돌 목장
		세레나 목장
		개척 농가
	축산단지	
		<p>김승학: 축산단지와 성 이시돌 목장은 왕래가 드물었다. 마이클: 개척농가 사람들은 자주 모이나 정기적이 모임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사가 있을 때마다 만났다. 축산단지는 성 이시돌 목장과 별 관계가 없었다. 박용근: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울리는 모임이 있었으나 TV 보급 후 모임이 줄어들었다. 현재 양돈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인 사람 8명이 모여서 산외기회를 만들었다. 세레나: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알고 있다. 성 이시돌 목장과는 관련 없다. 부녀회 계 등 계가 몇 개 있었다.</p>
		<p>김승학: 성 이시돌 목장 내 사람들은 모두 신자였다. 마이클: 양돈했을 당시 성 이시돌 목장 근무 인원은 120명을 넘었다. 박용근: PL480, 뉴질랜드 등에서 지원을 받아 성 이시돌 목장 및 개척 농가를 시작했다. 대통령 기록물: 73년 5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서 국제창업자에게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족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왔다. 76년 법인세와 법인영업세 감세는 불가하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제 제도 법제화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악용 우려가 있다. 법상으로 경작농업, 토지개발사업, 축산업에 소용 되는 일부 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하여줬으나 품목이 제한적이었다. 그렇다고 성 이시돌 목장에 대해서만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곤란하다.</p>
		<p>박용근: 목장 내 테쉬폰 구법 건축물 평면 설계는 본인이 하셨으며 이중 테쉬폰구법 건축물이었다. 비가 새고 습기가 많이 차서 맥그린치 신부님이 이중으로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세레나: 다른 개척농가 필지들을 고르게 자르다 보니 남은 땅이 있어서 그 곳에 입주하게 됐다. 돌도 많은 등 단점이 많아서 아무도 안 들어갈것다고 한 땅이었다. 마지막 입주자라 24호로 등록되었다. 확장하다 보니, 6만 평까지 커졌다. 목장관리자가 존재했으며 몇 번 바뀌었다. 관리자가 사는 관리동도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었다.</p>
		<p>박용근: 성 이시돌 목장에서 금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위치하고 있었다. 구성원 대부분이 육지 이주민이었으며 광고나 소개를 통해 입주했다. 입주 때 저리의 대출을 이용해 분양받을 수 있었다.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 원하는 호수에 들어갔다. 세레나: 맥그린치 신부님이 호수 당 2만2천~3천평씩 불하했다. 박고봉: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입주할 수 있었다.</p>
		<p>김승학: 축산단지는 70년 개발됐으며 성 이시돌 목장과는 별개의 단지였다. 마이클: 개척 농가 지역은 금약리에 비해 안개가 심해서 살기 안 좋았다.</p>

- 개척 농가는 맥그린치로 (성 이시돌 목장~금악리)를 따라 조성된 단지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육지 이주민이었으며 종교로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광고나 소개를 통해서 모인 집합체였다. 입주 당시 저리의 대출을 통해 땅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며, 호수마다 2만 평이 넘는 땅을 분양받았다. 단지 설립 이후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 세레나 농장은 개척 농가 내 24호인 단지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꺼리던 땅이라 아무도 안 들어왔고, 입주 뒤에는 확장하다 보니 6만 평의 농장이 되었다. 목장 내 이중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있었으며 이중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설계는 박용근 사무국장님이 했었다. 부지가 커서 관리자와 관리자가 사는 관리동이 있었다. 관리동도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었다.
- 축산단지는 성 이시돌 목장 북동쪽에 있는 단지이다. 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성 이시돌 목장, 개척 농가와와는 별개의 단지였다. 금악리보다 안개가 심해서 살기 안 좋았다고 하며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금악을 거쳐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들어왔었다. 현재도 당시 일부 입주민의 후손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

IV. 테쉬폰의 주거생활 문화 규명

- 본 장에서는 1960년과 1970년대의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을 기억하고 거주했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생활사 구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이 섭외는 성 이시돌 목장의 알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전달 후 이에 동의하는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이시돌 목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로 사용된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개척 농가에 입주해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등 직접적인 거주경험을 지닌 이들과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거주자들과 당시의 커뮤니티를 기억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인터뷰 조사는 사전 협조 요청에 응한 경우에 한 해 개별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조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조사 시에는 사진 촬영과 녹취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향후 활용 방향을 설명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사전에 인터뷰 경험이 풍부한 공동 연구원의 교육과 사전 회의를 통해 질문항목과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1. 박영수 님

〈표 4-1〉 박영수 님 - 개척농가 거주자 일반 사항

성 이시돌 목장 개척농가 거주자 일반사항						
성명	출생지	출생 연도	위치	기호	면적	사유
박영수	전라남도 순천	1955	개척 농가 4호, 직원 테쉬폰 구법 건축물	㉠	703,450㎡ (21,279py)	1963년 선친 개인농장 시작

〈표 4-2〉 박영수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연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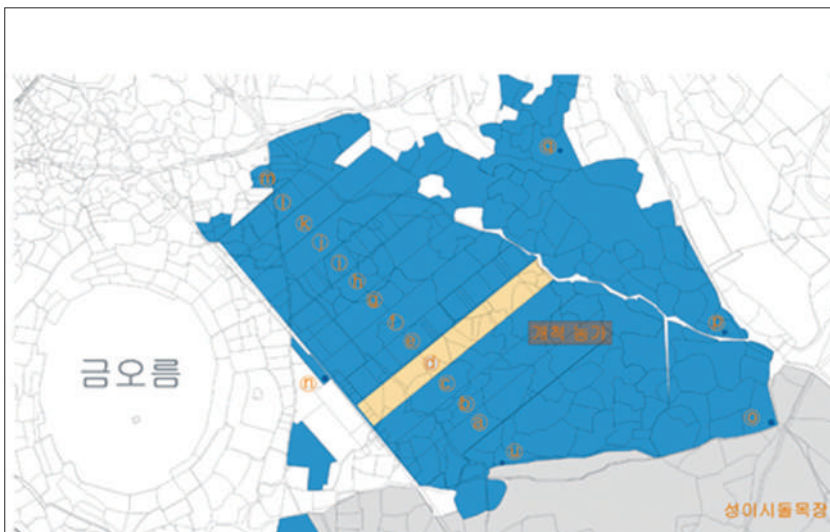
1955년(1세)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75년(21세)	개척 농가 입주, 4호
1977년(23세)	군 입대
1980년(26세)	성 이시돌 목장 근무 (직원 테쉬폰 구법 건축물 숙소 입주)
1995년(41세)	요양원 사택에 입주
1997년(42세)	한림으로 이사 (자녀 한림 취학이 원인)

〈그림 4-1〉 박영수님



- 박영수 님은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다. 제주도에 있는 형님(박고봉)이 개척단지 초기 분양 시 먼저 입주해 있었고, 본인은 1975년도에 금악 개척 농가로 이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척 농가 4호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3년 뒤인 1977년경에 입대하였다가 197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1980년에 성 이시돌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해당 시점에는 개척 농가가 아닌 테쉬폰 구법 건축물로 지어진 이시돌 목장의 직원 숙소(일명 '칠 테쉬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직원 숙소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는 결혼 후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네 식구가 1995년경까지 생활하였다. 1995년경 요양원 사택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고, 이후 1997년도에 딸이 한림의 학교에 다니면서 한림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시돌에서의 생활이 마무리되었다.

〈그림 4-2〉 개척농가 영역 (기호 @ 박영수)



- “저가 군대 가기 전에 이시돌에서 한 삼년 근무했구요. 갔다 와서 밖에서 한 삼년 정도 밖에 생활하다가, 이제 8년도에 저가 이시돌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저가 이제 했던 거는 주로 트랙터 장비였었는데. 그때 진로 주정이 지금 동부두. 동부두에서 이시돌에서 그 캐사바 전분밥을 사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반을 그 해서 그 피엠. 그러니까, 탱크로를 저가 조금 운전 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때 당시에 텍스폰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도 하나. 아들은 올해 서른 여섯 살인데, 텍스폰에서 태어났어요. 텍스폰에 살 때,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촌에 초가집 같은 거 그런거 뭐 허고 했을때, 이게 잘하는데 조금 타원형이 되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바람불고 해도 바람 부는 줄 몰라요. 창문 같은 거 확실히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애로점 아마 먼저 사시던 분들도 아마 그런 애로점 다 있을거예요. 머리 몇 번씩 다 해먹고.”
- 직원용 숙소로 지어진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총 7동이었는데, 한 동의 크기가 약 24평 정도 되었다. 박영수 씨가 입주할 당시 직원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한 개의 동에 세 살림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양쪽 마구리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었으며, 좌측은 1개의 세대가 우측은 2개의 세대로 구분돼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증언에서는 좌우로만 2개의 세대로, 다시 내부가 구분되어 4개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시기별로 내부공간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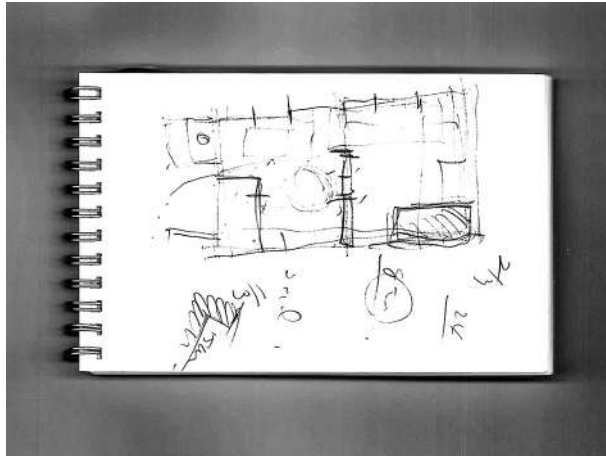
〈그림 4-3〉 개척 농가 테쉬폰 배치 형태 (기호 @ 박영수)



- 직원 숙소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 거주 시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공간에서 같이 지냈으며, 한 세대의 구조는 지금의 원룸과 비슷하였다고 증언한다. 침실은 하나 구분되어 있었으며, 입구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마구리 방향 양쪽에 있었고, 한쪽이 한 세대의 출입문이 있다면 다른 쪽은 반으로 나누어져서 두 세대의 출입문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 “이쪽에 이게 갈림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조금 멀리 끊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입구가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하나. 이렇게 이걸 딱 그러니까, 삼등분 했어요, 삼등분. 이렇게 해

서, 여기 이쪽에 사는 분은 출입구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길게 이 평수하고 비슷한 데는 입구가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가 방 하나였어요, 이렇게 갈라진 거는, 여기에 막힌 거는 들어가면, 부엌처럼 지금 원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거의 부엌, 싱크대하고, 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그런 살림으로 다 했어요.

〈그림 4-4〉 박영수님 스케치한 노트



- 입구 현관은 겨우 신발을 벗을 정도의 공간만 있었고, 기울어진 벽이 있는 쪽으로는 시멘트로 작게 세면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부엌 공간인데 테쉬폰 구법 건축물을 좌우로 나누어서 한쪽은 타원형의 외벽으로 되어있고 다른 한쪽은 세대 간 벽인 블록 벽이 있었다. 싱크대는 타원형의 기울어진 벽 쪽으로 설치하였는데 당연히 싱크대 위에는 선반을 놓을 수 없었다. 당시 조리 시에는 석유 곤로를 사용하였다. 식사는 주로 부엌에서 하였다. 식사는 교자상과 같은 것을 접어서 보관하였다가 좌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낮에는 일하다가 중간에 식사할 때는 집에 들어올 것도 없이 신을 신은 채로 현관에 걸터앉아 식사하기도 하였다.
 - “여기 안에 들어가면, 타원형이 됐는데, 이불장 같은 낮은 가구 하나 놓아 가지고, 크랙이 나서 비 올 때 물이 새면 옷장 위에 대야를 받쳐놓고 했는데, 그 때는 자기 스스로 보수를 해야 했어요. 실리콘이 발라진 테이푸를 떼서 금 간 데에 붙여놓으면, 굳어서 또 페인트칠 해서 수리하면서 잠깐, 잠깐 살았었어요.”
- 방에는 타원형의 기울어진 벽 쪽으로 이불장 같은 낮은 가구를 하나 놓고 비가 올 때 물이 새는 것이 보이면 이불장 위로 대야를 올려놓아 떨어지는 물을 받고는 하였다. 텔레비전도 지붕이 낮은 쪽에 설치하였다.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는 크랙이 종종 있어서 보수는 테이프와 같은 것으로 붙이고 페인트칠을 하고는 하였다. 그런 보수작업은 사는 사람들이 제각기 하는 것이었다. 벽은 방음이 안 되어서 종종 벽을 두드리면서 이웃집에 말을 걸기도 하였다.

- “텍쉬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집은 이쪽 아루진 쪽에 붙여서, 그래서, 가운데에는 문이 있고, 타원이 돼서 낮은 쪽은 물부엌이 됐어요. 높은 쪽으로는 출입문이 있고, 반 평정도 연탄 창고가 있었어요.”
- 화장실은 밖에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화장실은 네 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샤워와 빨래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 사이에 나무로 반 평 정도 이어붙여서 만든 보일러실 옆에 만들어서 이용하였다.
 - “샤워실을 보일러실 옆에 만들고, 텍쉬폰 둘 사이에 수도를 하나씩 해서, 거기서 다 샤워를 했었어요.”
- 박영수 씨는 1975년에 개척 농가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난방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연탄보일러를 이용한 중간과정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여서 1970년대 후반기 난방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79년도 박영수 씨가 직원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거주할 때 난방은 연탄보일러로 하였다. 방식은 연탄으로 뜨거워진 물을 엑셀 파이프 같은 비닐 파이프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보일러는 사는 사람들이 제각기 시설한 것이다. 연탄보일러 난방을 하자 굴뚝은 필요가 없어졌다.
 - “여기. 들어가기 전에 현관 입구에. 문 옆에 여기 조그만하게 해서 가지 잇연에 해가지고 연탄보일러. 그때 당시에는.”
 - “밑에는 바닥은 엑셀이죠. 그때는 전부 엑셀이고, 보일러는 그냥 수도 파이프 백관.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그 끓으면... 지금은 자동으로 다 급수가 되지만은 그때는 온수 탱크가 보조 탱크가 따로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 물을 채워줘야 해.”
 - “그거는 직원 여럿이 한 텍스폰에 수용하려고 옛날에는 그냥 쪽 방식으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아까 텍스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열 몇 사람까지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그건 역사 속 얘기고, 저가 살 때는 이제 세 집을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고. 근데 그 원래 보일러 놓은 게 아니고,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난방을 다 놓았어요. 원래는 없는 거를 자기가 해서 살았던 거죠.”
- 난방을 부엌 아궁이에서 땀감으로 하다가 연탄보일러가 생기게 되자 부엌 자체를 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대개 식구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들이면서 부엌을 방으로 개조하였다.
 - “개인농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 부엌 했던 거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면서, 부엌이었던 곳을 다른 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식구들이 많은데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부엌 겸 연탄보일러를 한 집도 있었어요.”
- 개척단지에서 공식적인 공동모임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을 내 단합은 무척 잘 되었다.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제사 때 다들 모이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 결혼식은 성당에서 하기도 했고,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있는 집에서 하기도 하였다.
 - “그 당시에는 단합이 잘 돼 있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내 일같이, 모이면 그래도 큰일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다 같이 잘 모이고 그랬습니다.”
 - “그때는 다 퇴근하면 술도 엄청 먹고 땀병 하나 해 가지고,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 통근버스 하나였어요. 내려가서 사오고,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최고급 자가용이었어요. 다들 모여서

집에서 먹었어요. 그때는 집에서 여럿이 모이면 부엌에서 먹다가 방에서도 먹고요. 네 집, 내 집이 없어요.”

- “저는 성당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 형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텍스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 이시돌 직원들이나 개척단지 내 이웃들은 서로 친해서 일이 끝나고 나면 같이 술도 먹고 어울렸다. 그때는 대개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있는 개인 집에서 모였는데 일곱, 여덟 사람 정도 모이면 개인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를 한 마리 사서 회식을 하고는 하였다.

- “애들 나오면 따로 놀이터가 없으니깐 풀밭에서 메뚜기도 잡고 우리 애들 클 때는 이시돌 피정 센터에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 운영할 때는 종일 거기서 놀았어요. 겨울에는 아이들 목초밭이 놀이터였어요. 자치기하고, 시골에서 애들 노는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지네 잡아 오고 손도 물려오고 그러다가 우에 아이들 따라 하고, 연날리기 놀이하기도 하고, 팽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만들어서 하고 애들 팽이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당시 탁구대 만들어서 배려해서 놀게 해주게 했어요. 촌에서 애들 하는 풍습은 다 하고요. 여기 애들이 신부님이 어린이집 하면서 이시돌 애들은 버스 타고 다니고 해서 도시 애들 못지않게 앞서간 거 같아요.”

-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어느 시골이나 똑같았다.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하며 놀았고, 어른들이 구슬을 만들어주면 구슬치기를 하고 놀기도 하였다. 자연환경이 중산간 지대여서 애들은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지네를 잡다가 손에 물려서 오기도 하였다. 이시돌에서의 환경이 특별한 것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한림과 개척단지에 있는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것이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피정 센터에는 풀장이 있었다. 여름에 풀장이 운영될 때면 아이들은 종일 거기서 놀고는 하였다. 다른 중산간 아이들은 즐길 수 없는 놀이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박고봉 님

〈표 4-3〉 박고봉 님 - 개척 농가 거주자 일반 사항

금악 개척농가 일반사항						
성명	출생지	출생연도	위치	기호	면적	사유
박고봉	전라남도 순천	1942.	개척 농가 4호	㉠	703,450㎡ (21,279py)	'농원' 잡지에 모집 광고를 보고 결심

〈표 4-4〉 박고봉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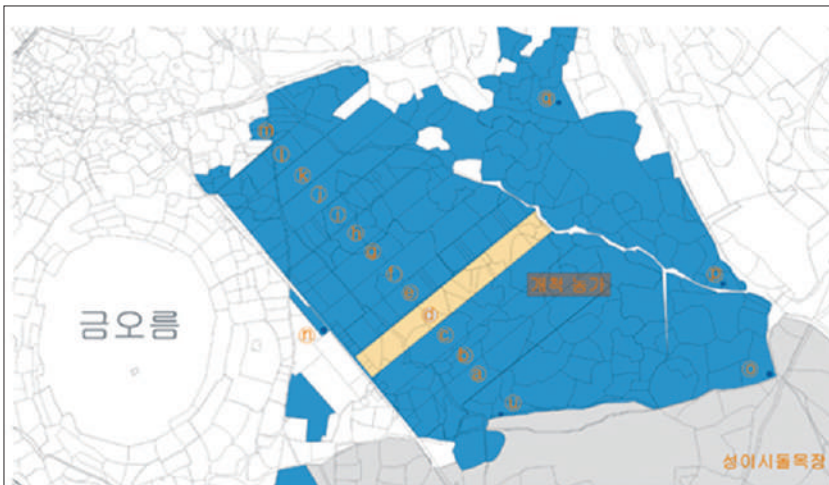
1942년(1세)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66년(21세)	군 제대
1967년(22세)	개척 농가 입주, 4호, 동생 넷과 부모님 같이 입주
1970년(25세)	결혼
1978년(33세)	맨 우측 창고를 방을 개조함

〈그림 4-5〉 박고봉 님



- 박고봉은 전남 순천 출신이다. 제주도에는 1967년(26세)에 들어와서 1979년까지 금악 개척단지 4호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 살았다. 그는 1966년 군에서 제대하고 취업을 고민하던 중 목축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때 『농원』이라는 잡지에 맥그린치 신부가 금악 개척 농가에서 목축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홍보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주에 내려오게 되었다. 그때 4호에 살던 사람에게 따로 권리금을 주었고 그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비용을 대신 갚기로 하여 3만 평의 토지를 불하받게 된다.
 - “내려온 동기는요, 제가 19살 때 군대를 가가지고 23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45,000평(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간하면 그때 박정희 시절에 개간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가지고 소도 기르고 이제 꿈이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 생활에 (옛날에 농원이라는 잡지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시돌 임신부님이 이시돌 농장을 산림에서 옮겨오면서 한우, 면양, 트랙터, 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원에서 우선 주소를 오라고 해서 그것이 주소가 되어서 단신으로 제주도로 그냥 왔어요.”

〈그림 4-6〉 개척 농가 영역(기호 @ 박고봉)



- 처음 제주에 왔던 1967년에는 결혼 전이었으며, 그때 동생 네 명과 부모님이 같이 내려와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고행(순천) 여성과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박고봉 씨 부부, 동생 넷이서 8명이 한집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형수님과 조카도 내려와 같이 살게 되었고, 어린아이도 생겨서 식구들이 자꾸 늘어갔다.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 최소 10~12명 정도가 같이 살았다고 할 것이다.
- 방은 안방(입구 왼쪽 방)을 박고봉 씨 부부가 갓난아기와 같이 사용하였고, 동생 넷과 부모는 가운데 큰방에서 살았다. 1967년 처음 입주할 때에는 어린 동생이 10살, 13살, 17살, 20대 초반이었는데, 점차 성장하게 되자 1978년에 맨 우측에 있던 창고를 방으로 개조하여 동생들이 살게 되었다.
 - “네. 테쉬폰 외부에다가.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허술하게 집을 지어버리니까(공사를 마무리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비가 좀 오면 마냥 세숫대야, 헨 옷까지 전부 가져다가 대놓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건 신부님이 잘 압니다.”

<그림 4-7> 개척 농가 테쉬폰 배치 형태 (기호 @ 박고봉)



- 텔레비전은 가운데 큰방에다 설치하였다. 박고봉 씨는 개척단지 내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먼저 구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982년경으로 기억한다. 큰방 미닫이문을 열어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마루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곤 하였다고 했다.
- 맨 오른쪽의 방은 원래는 제주도의 고팡과 비슷한 곡물류를 보관하는 창고였다. 창고는 난방이 되지 않는 몰탈 바닥이었고, 지실, 고구마, 깨, 깻대, 조와 같은 곡물과 비닐과 비료 포대와 같은 것도 보관하곤 하였다. 그 방(창고)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은 없었는데 박고봉 씨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집은 개조된 집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하였다. 다른 인터뷰의 내용에 의하면 그 창고 공간은 처음에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다. 처음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공간이라 변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대충 다 현관에 들어오면 맞은편 이것은 큰방이고, 이걸 하나는 창고고, 이거 없이 다 창고 다 나중에는 식구들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방 빌려서 다 살고.”
-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5-6 명 되고, 나는 이 방에서 살았고, 동생들이 크면서 다 한꺼번에 못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창고를 방으로 개조를 한 거야.”

■ 난방은 부엌 아궁이로 부엌에 인접한 안방과 큰방을 난방하였는데, 연료는 주로 억새, 옥수수대, 마른 소똥 등을 사용하였다. 박고봉 씨의 기억으로는 벽난로를 사용하는 집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 “제주도는 억새가 많으니까 억새 베어다가 해놓고, 옥수수 대, 소똥도 주워다가 군불 피우고 ... 군불용으로는 최고로 좋아요.”
- “그때 당시 신부님이 부엌에 우리 농촌에 가면 아궁이 만들어서 불을 때게 그렇게 해서 설비를 해서 집을 지어 놓았지만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때면 처음부터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부엌으로, 좀 앞으로 다 나와, 놓을 줄도 모르고 이제 엉망으로 나가기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밥 지어 먹었어요, 그거 뜯어 고치려면 방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돈도 없고.”

■ 가운데 공간은 마루가 깔려있었는데, 마루 밑 공간이 깊지 않아서 습기가 올라와 마룻널이 많이 썩어서 내려 앉아버렸다. 결국에는 1978년에 마루를 걷어내고 자갈을 바닥에 깔아서 메우고 몰탈을 비벼 깔아서 몰탈 바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창고를 방으로 개조한 공간 역시 바닥을 파내어서 고래를 만들고 가운데 굴뚝으로 연도를 연결하고 바깥으로 아궁이시설을 하여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개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여기는 이제 기초를 전부 다 대청 마루로 깔았는데 마루예요, 깔았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흙을 평면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같으면 방부목 4x4짜리 되려나, 그런 것을 대놓고는 거기다가 판자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니까 우리 살면서도 다 썩어서 다 썰러 버렸어요, 75-6년도 되어서 한 10년 되어서 뜯어내지요, 결과적으로, <중략> 썩어서 발이 빠지니까 애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자갈 주워다가 채워서 콘크리트 했어요.”

■ 식사는 주로 마루에서 하였는데, 식구가 많아서 부모는 큰방에서 따로 상을 받아서 식사하였고 박고봉 씨 가족은 제주 사람들이 그랬듯 큰 양푼에 같이 밥을 먹고는 하였다. 상은 접이식 상을 사용하면서, 천장 낮은 곳에 두었다가 밥상과 책상을 겹쳐서 사용하였다. 마루와 부엌 사이에는 여닫이문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닫는 일 없이 열려두었다.

- “옛날에 육지에서 밥상들을 어른들은 별도로 차려드리고 나머지 동생이랑 형제간들은 다른 상에서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먹잖아요, 여기도 오니까 자연스럽게 제주도 풍습대로 양푼이에 밥 퍼가지고 그냥 반찬 몇 군데 해가지고 두런두런 먹는 버릇이 금방 들더라고요.”

■ 처음 4호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왔을 때 주거동 옆의 창고동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이전 거주자가 소막으로 쓰고 있었는데, 본인은 뒷문을 폐쇄한 다음 돈사로 1983년까지 사용하였다. 창고에서는 돼지는 한때 한꺼번에 50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었으며, 사료는 사료공장에서 구매해서 먹이고, 부엌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잔반 또한 돼지 사료로

같이 사용하였다.

- 개척단지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금악 오름 밑에 오목한 지형의 이름이 ‘논 앉은 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장비로 다듬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였다. 1975년경에는 못 주위로 담을 둘러 정비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그곳의 물을 물지게로 길어서 사용하였다. 제주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물허벅을 지고 다녔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물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왔으며 여자들은 물을 걷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마도 개척단지에 육지에서 온 이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물지게를 지고 다닌 것이 아닐까 싶다.

- “노나진 밭.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물이 없으니까. 개척 농가는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니까 그걸 신부님이 무슨 군인들 불도져 그걸 이용해가지고 땅을 밀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크게. 그 자리에, 노나진 밭에. 그래서 이제 물을 좀 고이게끔. <중략> 이제 거기서 물지게로 물 길어서 일상생활 한 거예요. 밥 지어 먹고, 걸레 빨고, 세수하고.”

- 수도가 들어온 것은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방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76년 경에 금악에서 이시돌 농장까지 오름 서쪽으로 길이 포장되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수도와 전기가 같이 시설된 것으로 안다. 한림에서 이시돌에 이르는 길이 포장된 것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내방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금악 오름 동쪽으로 비포장의 길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방문 이후, 그 길이 포장되어 뚝리자 금악 오름 동쪽에 조성되어있던 개척 농가에서는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당시 개척 농가 쪽으로는 산업활동을 위해서라도 포장된 길이 필요했으나 변변한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금악봉 서쪽 편이 길이 포장되자 맥그린치 신부는 개척단지 앞으로의 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길을 뚫기로 독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시돌협회에서는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고 개척 농가 사람들은 농장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모여서 길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된다.

- “수도? 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제주도에 와서, 여기에 길이 없었어요. 우리 앞길 이 길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던 찰나에 임신부님은 우리 마을로 아스팔트를 깔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중략> 그래서 ‘여기로 와서 빨리 아스팔트 해줘라’ 했는데 아스팔트가 저 길로 성립돼버리고 우리 임신부님이랑 우리랑은 우리 길이 완전 따돌림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임신부님이 화가 나니까 자갈 깨는 기계를 구매하고, 우리는 3년 동안 인력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마을의 경계 담을 전부 다 들어내서 여기 정문부터 금악 입구에 ‘맥그린치로’라고 비석이 있어요. 이 길을 다 우리 손수 했어요.”

- 그 길은 1~14호 농장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어서 이때 모인 사람들은 1~14호 농장 사람들이 주가 되었다. 그때 도로 바닥을 포장하기 위해서 개척 농가의 돌담을 헐어서 그 돌을 날라 바닥에 기저층을 만들게 되었다. 이때 개인 사정으로 저녁에 노력 봉사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 본인 일당으로 5만 원을 모임에 내는 벌금제도 스스로 만들어 운용하였다.

- “우리 임신부님하고 우리 너무 고생 많이 했어. 하루에 일당을 예를 들어 바빠가지고 못 나오면 그때 당시에 5만 원씩을 내놓게 되니까. 못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이 몇십만 원씩 되니까. 그때 당시에 몇십 만 원을 내놓을 재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3. 박용근 님

〈표 4-5〉 박용근 님 - 개척농가 일반 사항

금악 개척농가 일반사항						
성명	출생지	출생년도	위치	기호	면적	사유
박용근	강원도	1940. 07.07	개척 농가 9호	①	58,860㎡ (17,805py)	1963년 선친 개인농장 시작

〈표 4-6〉 박용근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1940년(1세)	강원도 출생
1950년(11세)	6.25사변으로 부산으로 피난
1953년(14세)	서울 상경
1961년(22세)	선친 성 이시돌 목장의 금악 개척농가 불하
1963년(24세)	군 제대 후 개척농가 이주
1967년(28세)	서울 상경 건축설계 사무소 근무 결혼과 두자녀 출산
1973년(34세)	금악 개척농가 재이주 및 성 이시돌 목장 근무 성 이시돌 목장 건축담당 사무장으로 근무
2020년(81세)	성 이시돌 목장 사무장 퇴사 예정

〈그림 4-8〉 박용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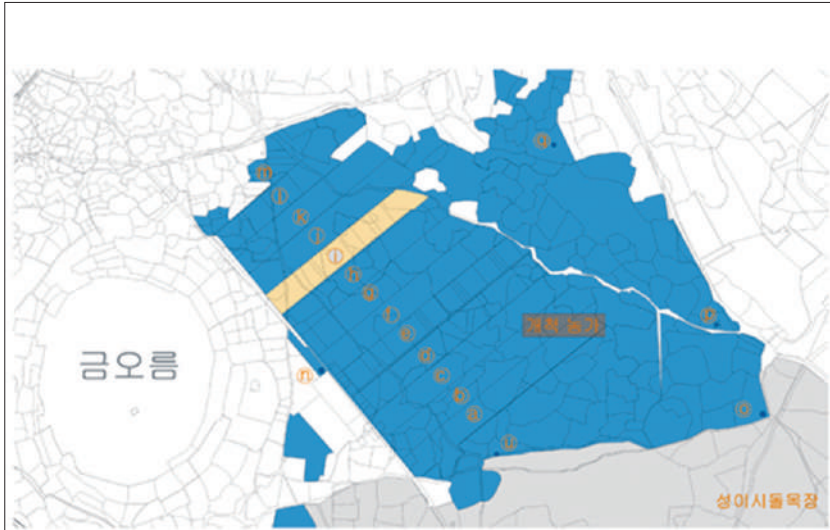


- 강원도 출생으로 선친이 금악 개척 농가 9호를 배정받은 이후 개척 농가로 이주해 부모와 동거 하였으나 군대 입대와 서울에서의 취업으로 금악 개척 농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시돌 목장에 건축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시돌 목장과 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 “예 출생은 강원도서 하고 크기는 서울서 크고 예.. 6.25때 나와 가지고선 강원도서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사변 나가지고선 부산 왔다가 부산서 중학교 일학년 때 서울 올라가서 해서 계속 있었죠.”
- “음.. 67년도인가, 아니 음.. 3년 7개월 있다가 서울 올라갔어요. 몇 년도 될라나 모르겠네.. 서울 올라가서 거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둘 낳고 내려왔죠. 허허 그제 73년도 내려왔어요 예 다시 내려온 것이..”
- “제가 73년도에 와서 다시 내려와서 신부님한테 얘기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맡으라고 아, 내가 서울 가서는 설계사무실에 있었어요. 건축 설계사무실에. 예.. 원래 건축은 아니고 전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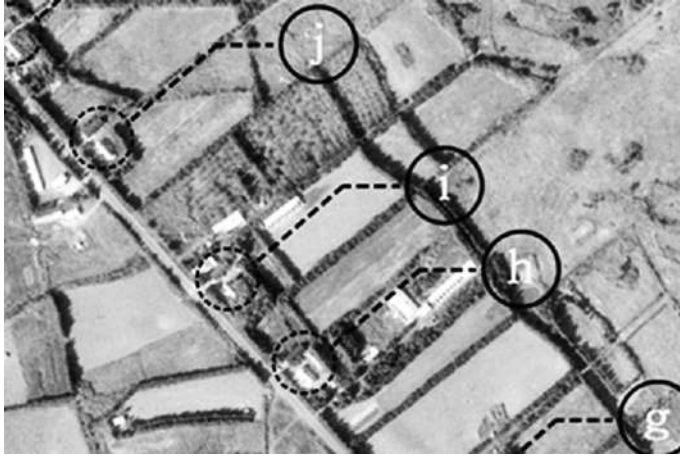
고 다르게 내려와서 3년 7개월 살다가 올라가서 예 건축 설계사무실에 들어갔죠. 들어가선 처음에 뿔대 잡으면서 배웠죠.”

〈그림 4-9〉 개척 농가 영역(기호 ① 박용근)



- 당시 금악 개척 농가 불하와 관련하여 제주 출신보다는 타지의 출신 입주자가 많았으며 이시돌 목장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므로 천주교 성당을 매개로 입주자들이 모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 “에 그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동네 보면 은 지금까지도 보면 제주도 사람 두 명인가. 원 제주도 사람 전부 다 거의가 육지”
 - “전국 아니 전국적은 아니고 신부님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사는 것이 뭐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 뭐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육지에서 온 거는 인제 이 임신부님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관련이 있거나 또 그럼 신부님 이런 누구 있는데 하면 오거나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금악 사람 하나 있었고, 조수 사람이 하나, 둘, 셋. 금악 사람이 두 명이구나. 예 뭐 반 넘게 한 반 정도 제주도 사람 그다음에 반. 한 반은 육지사람.. 처음에는 그니까 예 뭔가 하면은 들어왔다 보니까 여 그냥 황량하잖아요. 그냥 정말로 그땐 이런 나무도 없고 완전히 정말 벌판이죠. 그냥 이 큰 데가 전부다 벌판이니까. 거기 와서 농사 지을려고 하니까 트랙차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삽으로 해야 하고, 소로 해야 하고 하니까 완전히 새 밭. 이 새 땅 밭이니까 그걸 개간해야 하니까 왔다가 바뀐 사람도 많죠. 그니까 자기 고향에 가든 편하게 자기 밭이 있는데 여기 와서 개척 농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있었고 또 뭐 자기 뭐 있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림 4-10>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형태 (기호 ① 박용근)



■ 그는 당시 경험했던 낯선 제주의 난방방식에 대해 증언하였으며,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난방방식으로 그가 육지에서 인지하고 있던 고래를 통한 온돌 방식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그니까 음.. 처음에 지을 때 이 제주도에는 난방이 처음에 우리 왔을 때만 해도 요리만 요리 해서 말뚝 때우고 여기만 아랫목만 뭐 했었잖아요, 그리고 굴뚝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인제, 이 거를 고래를 놓고 만들었죠. 그니까 우리만 육지에서 온 사람들. 몇몇 집만. 그러니까 다 따라서 했죠. 그러니까 다 테쉬폰 살 때니까 그 아래 금악마을 가면은 그때는 말뚝 때우느라고 막 말뚝 향기도 괜찮아요. 허허허 그랬었는데..”

- “집안서 방안서. 밥은 마루에서. 그거는 뭐. 아, 이거 좁아요. 그때는 뭐 연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 풀 이런 거 떨 때니까 여럿 쌓아놓고 기냥 뭐 하고, 그담엔 수도, 수도가 언제 들어왔나. 전기도 없고 호롱. 이 대안 등. 대안 등으로 썼죠.”

- “처음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굴뚝이 여기 있으니까. 전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좀 우린 강원도식으로 했고 아버님이 그때 계실 때니까.”

■ 그는 당시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현수 곡면에 의한 형태적 특징이 주거 공간으로서 미친 생활상과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건축 기술적 한계에 대해 증언하였다.

- “쌌어요. 새 새니까 그리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이게 물방울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놔두질 못해. 다 젖어. 그냥.”

- “그땐 가구 같은 걸 생각 못 했죠. 그냥 뭐 요즘도 시골 가면 이렇게 뭐야. 게 놓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니, 어렵게. 아주 그땐 어렵게 살 때니까. 그때 누구나 나나 다 어렵게 살 때니까. 그러니까 젖 뭐한 게 이 물방울 생기는 거. 그리고 비 오면 새고. 또 뭐 우린 이제 오래 사니까 뭐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헤딩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쪽 사람들은 허리를 펴도 여기 사람은 구부려야 하니까 허허허.

■ 60년대 당시 수도와 전기가 없는 시대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당시 저수지를 일명 ‘논아진 밭’ 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증언과 79년 항공사진의 금악 오름 아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우린 그 앞에 가면 ‘논아진 밭’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사진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죠. ‘논아진 밭’ 그니까 제주도 말로 논이 있는 밭 ‘논아진 밭’ 얹은 밭. 그니까 논 얹은 밭 이런 식으로 ‘논아진 밭’ 그랬죠.”
- “(지도 보면서) 죽 내려가서 9호까지 가보세요, 여기, 여기. 이거. 금악 오름? 여기 요즘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나 몰라 지금은 돌담은 있을 텐데 없었는가.. 그래서 에 우리 동네서 그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그거 꽤 큰 밭인데 그 가운데 고걸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기만 따로 마련했죠, 마련했는데, 그래서 여기 돌담도 쌓고 그래 여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죠.”

〈그림 4-11〉 ‘논아진 밭’(79년 항공사진)



- 당시 성 이시돌 목장 개척 농가에 대해 인근에서 바라본 시각과 제주도라는 타지에 정착하기 위한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증언하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온전히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은 자 몰라도 하여튼 우리 입장으로 제 입장으로 아버님이 이제 하셨지만, 으 그때 뭐 땅 살 여유가 없었으니까 분양 받아가지고선 이거 뭐 그게 값게 큼 돼 있지만, 못 값고 그냥 살았었죠. 그냥 그냥 살다가 나중에 그니까 나중에 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이 땅을 은행에다가 저당을 하고 그 밀린 땅값 이자 이거 다 가져가고 우리보고 값 아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하고 이제 거래하게 됐었죠, 그니까 신부님은 제주도 사람 그걸 보고 이제 했는데 우리같이 육지에서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것 땀에 서러운 것이 무슨 농협에서 무슨 대출 주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보증 세우라고 하니 까네, 그전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한데 나중에 동네 사람 안 된다! 한림 사람을 세워라 우리가 한림 사람 누가 알아요, 그냥 뻘히 보고도 대출도 못 받고 제주도 사람들은 뭐 고향에 가서 꾸어 오든 뭐하든 해가스 받고 에 고런 또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때 대출 받으시면.. 처음에는 설움도 받았죠, 그니까 우리 때는.. 그래서 처음에 육지놈 육지놈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림 들어가면 금악 뚝색에 금악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악 뚝색이라고 허허허 그래 우린 일하다 보니깐 장화 신고도 가고 그니까 예 표가 나죠, 그니까 그리고 웃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웃도 달라요 이 그니까 우리 무슨 모임에 가면은 교회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예 옷 차이가 나죠, 그니까 시에서 온 사람하고 여기서 이시돌 그 이시돌이 또 이

무슨 큰 뭐 중에는 젤 높은 데 있었어요. 그니까 예 그니까 여기에서 살면은 옷이 다르고 신발이 다르고 심지어는 차도 다르고 씻지도 않으니깐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던데, 교통순경이 차 씻고 다니라고 허허허 뭐 뭐 그런 건 뭐.”

4. 고숙정 님

〈표 4-7〉 고숙정 님 - 개척 농가 일반사항

금악 개척농가일반사항						
성명	출생지	출생년도	위치	기호	면적	사유
고숙정	제주시	1947년	개척 농가 24호	㉠	231,195㎡ (69,936py)	1973년 결혼과 동시에 시작

〈표 4-8〉 고숙정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년 연표

1947년(1세)	제주도 출생
1972년(26세)	성 이시돌 목장 정문 옆 직원숙소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 거주
1973년(27세)	금악 개척농가 24호 불하 및 이주
1980년(39세)	개척농가 서측부 증축
1985년(44세)	한림 거주 후 축사관리사로 사용
1988년(42세)	1988년 개척농가 매도 후 제주시로 이주
2020년(74세)	성당 활동 중

〈그림 4-12〉 고숙정 님



- 고숙정 님은 제주도 출신으로 천주교 세례명은 '세레나'이다. 24호 테쉬폰 구법 건축물을 불하받고 73년에 입주하여 88년까지 거주하였다. 고숙정 님은 73년 세레나 목장 입주 전 성 이시돌 목장 정문 옆 단독의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여기서부터 반듯 반듯. 다 시루떡 같이 됐잖아요. 근데 뒤에는 개척농가라서 조금 긴 데 있고, 짧은 데 있고 그래요. 평수가 2,300, 22,000 좀한데 일루 짜르다 보니까 이쪽은 돌이 많고 쇠미소 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뒤로 좀 확보하고, 땅도 붙이고 해서 한 6만평 정도 됐었죠.”

- “우리가 처음엔 정문 옆에 살았거든요. 이시돌 정문 옆에 아 그래서 나는 아 거기가 개척 농가 24호예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 “우리가 입주하기는 24호..네 왜냐면 이쪽은 돌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되요. 남은 땅이라 여기가 이렇게 몇 미터씩 짧르다 보니까 밑에까지 오고 여기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24호가 마지막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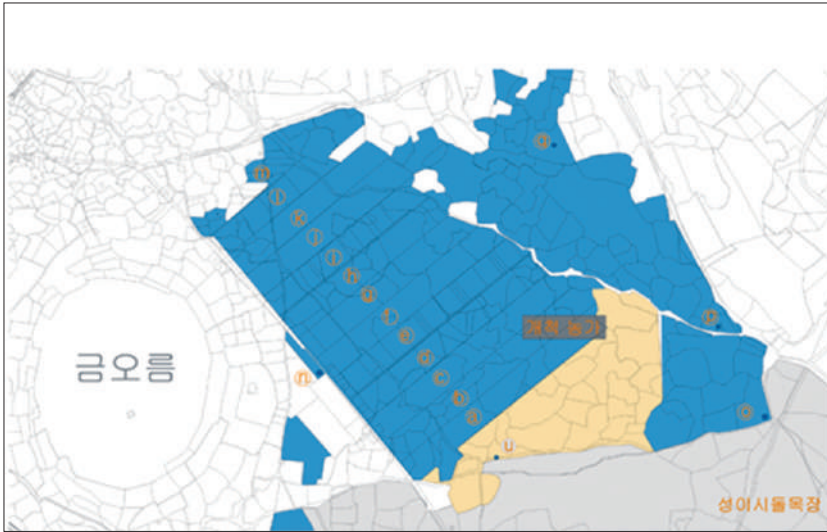
〈그림 4-13〉 2중외피로 시공된 테쉬폰 구법 건축물



(출처 : 고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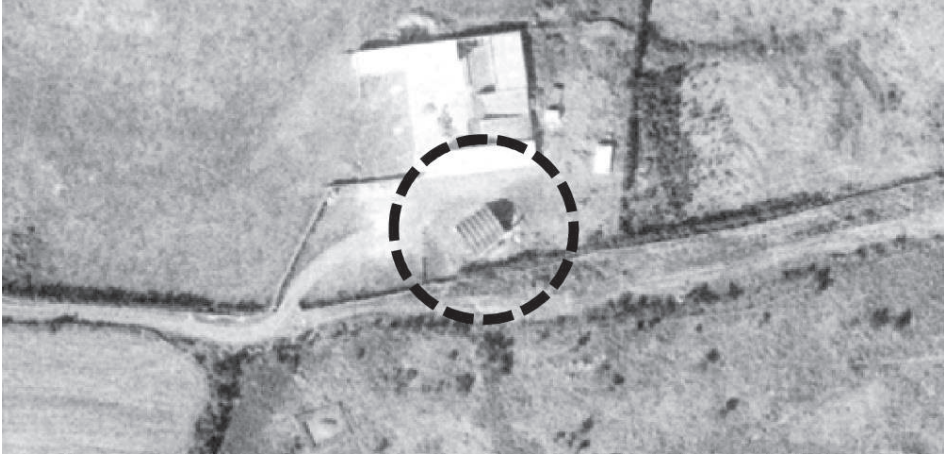
- 고숙정 님 역시 다른 거주자들과 유사한 증언으로 테쉬폰 구법 건축물 내부의 곡면을 만들어 내는 현수선의 물리적 불편함에 대해 증언하였다. 가구 등 배치의 어려움과 머리를 부딪쳤던 생활상의 불편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지대는 높게 하고 2중으로 외피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습과 단열, 방충의 어려움에 대해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마이클 신부님과 수녀님들과의 지네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등 친밀했던 이시돌 목장과의 관계를 증언하였다.
 - “한림 출신 사촌오빠가 전화 국장이어서 전화를 놓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 막 열악하고 일어나면 툭툭 부딪히잖아요. 축산 단지는 그런 집이 없지만.. 테쉬폰이 가구도 제대로 못 놓고 습기가 많이 차요. 습기가 그래서 그냥 엄청 차죠. 산이니까 현관문을 열면 모기장 문 하고 이제 그 슬라이딩 문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알미늄 샷시 문 열면 방바닥이 땀난 것처럼 습기가 올라 와가지고, 우리 거기는(세레나 목장) 땀 집보단 좀 높아요. 그래도 이렇게 높게 해서 지었는데도 엄청 습기 차고. 잠자다 보면 지네가 신히 때 반짝반짝한 양탄이 불. 거기다가 지네가 나와서 또 있지 않을까 하곤 정말 지네가 많았어요.”
 - “지네가 나오면 신부님한테 전화가 와요. 수녀님들이 무섭죠. 그러면 강동 빈강동 신부님이 그걸 갖고 가서 뭐 급하다고 따라가 보니까 지네 있는데 덮어 놓고 신부님 발로 이걸 누르고 있어 어떡하냐고 놀랬죠.”

<그림 4-14> 개척농가 영역 (기호 ㉔, 고속정)



- 당시 가족 주거 공간으로써 활용되었던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의 거주 생활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이주와 함께 이후 축산을 위한 거점과 인부들의 거주공간으로 변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 “74년, 77년. 그래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살아봤지만 그 당시엔 수입도 없고 아이들에게는 이거 해주지 말아야겠다.. 아이들에게는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 시내 나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림 초등학교 큰 아이가 3년을 다녔는데 아침에는 이시돌 통근 버스 있어요. 직원 태우러 한림 상두거리고, 거기까지 상두거리까지 나오는 그 차 타고 오고, 그 차를 놓치면 그래가지고 퇴근 할 때도 퇴근하고 아이들 끝나면 퇴근 버스 타고 올래면 초등학교 곧 들어가면 12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두거리 삼점 앞에서 계속 놀다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오토바이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아예 신제주로 신제주 와서도 계속 목장 하다가 88년도 전에 88년도 끝날 때 나왔죠.”
-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시점은 1980년으로 항공사진의 변화와 이시돌 목장의 화재사건을 근거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큰 화재가 있었고 인명 피해도 있어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다른 이들의 인터뷰에서도 등장하고 있기에 커뮤니티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 “79년이요? 우리 거기(증축 건물)가 없었어요? 그때 80년도 80년도 내가 그 집은 지었다 맞아! 아 정확하게 취재하셨구나. 80년 2월 5일날 그 아니 2월 5일날 이시돌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화재 났다 그래서 우리 트럭 가지고 그쪽 가보니까 그 이시돌 목장 정문에서 한 100미터 아래로 소방차가 걸렸어요 눈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올라와서 걸려 있더라구요. 그 때 그 여기에서 그 글라라 수녀님네 살던 집 그 임신부님 집 돌아가는 마당 안에 이거 커브에 그 이시돌 직원이 4 가족이 다 그 때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그냥 막 가면서 보니까 스라브 지붕 밖으로 불길기 막 났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쌓여서 소방차가 빨간 차처럼 걸려 있었어요.”

〈그림 4-15〉 개척 농가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형태 (기호 ㉔, 고숙정)



- 고숙정 님과 부군은 개척 농가의 입주자인 동시에 이시돌 목장의 직원으로서 사무비서와 회계 직무를 담당했다. 부군은 월남 참전 경험 등으로 영어 회화가 가능했고 덕분에 이시돌 목장의 지원으로 호주의 목장으로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을 아쉬워하였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 숙소 동 테쉬폰 구법 건축물 거주로 개척 농가의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동서 축 일부를 주로 개척 농가 상주 관리자 가족의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었음을 증언하였고 이러한 배경이 이후 증축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아 우리가 그 때 이시돌에 집 있었으니까 여기는 많이 안 살았어요. 이시돌 테쉬폰 살았어요. 정문 옆에. 예 얘기 아빠가 거기 사무실 직원이었으니까. 그러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봄 2월인가 가면은 이제 그 호주에 연수 보낼려고 얘기 아빠랑 나랑 이제 그러다가 숙수 하다가 그것이 좀 잘 안됐어요. 제대 병원가서 다 엑스레이 찍고 검사 다 하고 영어 기초 다 배우고 그거 연습도 하고 우리 얘기 아빠는 월남 전 갈 때 이제 미군들 통역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양돈 그거 때문에 거 호주에 신부님이 그 이렇게 그거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됐어요. 2년 동안 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테쉬폰(기존 테쉬폰)에 목장에서 사니까 여기는(2중 테쉬폰) 그렇게 많이 안 살았어요. 요거하면서(증축 건물) 우리가 요 방은(북서쪽 방) 우리가 썼어요. 현관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하고 요거는 주방 우리가 여기는 화장실이라 빨래방하고 여기 큰방하고 그니까 일루(동남측 입구) 관리자는 들어 다녀서 요쪽 쓰고 저쪽으로 이렇게 막혀가지고(평면 가운데가 북남 축으로 막힘) 요쪽은(동측) 관리자가 썼어요. 관리자부부. 응 관리자 썼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낮엔 이쪽 관리자 부인이 외출하고 하면 우리집에 와서 밥은 같이 먹었지만 예 여긴 막혀서.”
- 본 개척 농가는 넓고 잘 관리된 조경과 이시돌 목장과 인접한 이유에서 이시돌 목장의 주요 행사에 활용되었으며, 응접실 같이 이시돌 목장의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의 커뮤니티 연대를 알 수 있었다.

- “예, 큰방은 우리가 같이 이제 티비도 보고 쓰는데 제주 도청에 사람 오면 그 큰 버스가 우리 마당 밖에 들어올 때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다 길에 세우지요. 그러면은 축산과에서도 농림부에서나 뭐 중앙에서 오면 내가 여기는 언제나 깔끔하게 커튼 쳐놓고 손님 오면 차도 마시고 응접실 같이 해 내니까 오면 손님들이 그냥 어떨때는 몸빼 입고 막 그냥 속얇이 하다가 앉아서 그냥 차 대접하고 그래서 나는 또 우리 관리자 한테도 우리가 시내 약품 사오거나 뭐 할 땐 도청에서나 어디서 오면 꼭 차 대접 하라고 내가 이제 바쁘니까 사정이 뭐 해서 그 저는 그랬죠. 우리 마당은 또 막 소는 이쪽으로만 다니고 이 마당은 일절 안오잖아요. 축사가 이쪽 있고 요쪽 있으니까. 일루만 다니고 소는 일루 들어와 목장에서 일루 들어와 나가니까 이 마당은 깨끗하죠. 송이 딸고 철쭉이랑 얼마나 서귀포가 나무 토핑 가서 나무 사다가 정원하고 다 했는데요.”

5. 마이클 신부 님

〈표 4-9〉 마이클 신부 님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생연 연표

1954년(1세)	아일랜드 출생
1978년(24세)	수 의사 자격으로 성 이시돌 목장 파견
1980년(26세)	신부 서품을 위해 아일랜드로 귀환
1968년(31세)	신부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근무
2004년(49세)	맥그린치 신부님의 뒤를 이어 금악성당 주임신부로 부임
2011년(56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 취임

〈그림 4-16〉 마이클 신부 님



- 마이클 신부는 1978년 성 이시돌 목장에 처음 관계를 맺었다. 신부가 되기 이전부터 수 의사였던 마이클 신부는 1980년까지 수 의사로 성 이시돌 목장에 머물렀다. 성 이시돌 목장에서의 경험으로 신부가 되기로 한 그는 1980년 모국 아일랜드로 돌아가 사제 서품을 받고 1986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마이클 신부는 금악 본당으로 다시 돌아 오고 싶었으나 발령받은 부임지는 서울이었다. 마이클 신부는 서울 부임 후 신정동 본당 보좌신부, 성소 국장, 신화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로마 그레고리오 신학교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오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에 마침내 원하던 금악성당에 맥그린치 신부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2011년에는 이시돌 농촌산업 개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8년 맥그린치 신부의 선종 때까지 곁을 지켰으며, 현재도 금악 본당 주임신부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맥그린치 신부를 통해 전해 들은 증언에 의하면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 거주민 모집은 여

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초기엔 금악리 마을 사람들을 모아 보려 했으나 기후가 금악에 비해 좋지 못했던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은 입주를 꺼렸다고 한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육지 인맥을 통해 거주민을 모집했다고 한다.

- “시작했을 때는 임신부님은 금악마을 친구나 다른 제주도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살아보래 먼저 던졌어요. 여기 안개 많아요, 여기 날씨 달라. 여기가(금악마을) 살기 좋아. 이기가. 여기 안개 많고 습기도 많고, 아마 그거 알기 때문인지 그 아니면, 주로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거 원했는데, 제주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보라고 지어놔어도 아무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른 데 실패했다가, 와서 살았어요. 이거. 나머지는 거의 안 오니까. 거의 준비됐으니까 육지에 있는 신부님 연락해가지고 혹시 여기는 올 사람 있느냐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땅, 뭐 싸게 주니까, 집주고 뭐 하는데.”

■ 개척 농가에는 결국 전라남도, 춘천 등 각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들과 함께 개척 농가와 이시돌 목장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참여한 이들과 직원들이 양돈업을 할 당시에는 120명까지 늘어났다고 증언하였다. 마이클 신부는 거주자로서 직접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 거주한 적은 없었으나 성 이시돌 목장 내 직원 숙소와 개척 농가의 주거 공간들이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었기에 당시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서의 생활에 대해 증언하였다.

- “혼자 있을 때는 집 많이 방 문 많아가지고 계속 초대받았어, 침침하고, 술 마시면 집에 가는 것보단 자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잔치할 때에는 결혼시키거나 그런 거 할 때에 주로 여기서 많이 안 했죠, 몇 분만 작게 해서, 피로연 따로 무슨 집안끼리 한다든가 하는, 아마 육지에서 결혼했다 하면은 여기는 잠자면서 크게 하지 못하는데, 테쉬폰 집안에 했어, 재밌었어요.”

■ 마이클 신부는 이주 당시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는 온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겨울만 되면 너무 추워 집안에서도 옷을 꺼입고 있어야 했고 당시 외국의 지인이 와서 “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았냐. 잘못 생각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던 일과를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보일러가 보급되었고 연탄이 취사와 난방으로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연수원에서는 축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연수원은 목장의 기숙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주로 독신자들이 생활하였으며 가족을 이루었을 때는 주거용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목적은 예, 사람 취직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새로운 양돈 작업하고 수업까지 하고 한국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축산 별로 없었고, 한국 농민들, 쌀, 야채, 이렇게 잘했는데, 축산관리는 잘못 했어요. 소 있어도 비육이나 젖소로 하지 않고 그냥 노동으로 썼다가 죽기 전에 빨리 죽으면 먹게 됐는데, 목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6. 김승학 님

〈표 4-10〉 김승학 님 이시돌 목장 관련 생연연표

1961년(1세)	제주시 제주시 동광양 출생
1971년(11세)	축산단지로 이사
1979년(19세)	한림공고 졸업
1980년(20세)	영농일을 처음 접함
1981년(21세)	맥그린치 신부님의 돼지 지원으로 양돈업 시작
1982년(22세)	수산리 4H 10대 회장 취임
1986년(26세)	결혼
1993년(33세)	농업경영인 8대 회장 취임
2014년(44세)	4H 본부 3대 회장 취임
2018년(48세)	한국로터리 한림지구 회장 취임

〈그림 4-17〉 김승학 님



- 김승학님은 1961년 제주시 동광양에서 태어났다. 이후 11살이 되던 1971년 축산단지에서 이사하며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 축산단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사 후 한림에 있는 한림공고로 진학하여 1979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이후 김승학 씨는 1980년 영농업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리고 1년 후 1981년 맥그린치 신부님의 돼지 지원과 교육지원으로 양돈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돼지뿐만 아니라 소, 토끼 등 다양한 품종의 가축을 사육했다.
- 김승학 씨는 4H 운동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수산리 4H 운동 출범 당시 사무총장으로 참여하면서 기초를 닦는 것에 크게 일조했으며 1982년에는 수산리 4H 운동 10대 회장에 취임하여 중추로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농업경영인 회장, 4H 본부 회장, 한국 로터리 한림지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였다.
- 김승학 씨는 성 이시돌 목장 외에도 여러 단지가 있는 것으로 기억했다. 개척 농가는 이시돌 재단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한 곳으로 1인당 1만7천 평씩 분양했으며 테쉬폰 구법 건축물도 이시돌 재단에서 만들어줬으며 분양도 저리 대출을 통해 시행했다고 기억한다. 선흥 양잠단지도 이시돌 재단에서 후원해서 만든 곳이며 분양에도 이시돌 재단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가 거주했던 축산단지는 이시돌 목장과는 별개로 70년대 초중반에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 이시돌 목장과 아예 연관이 없던 것은 아니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축산단지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아닌 돌집을 만들어 거주하였다. 이외에도 동광양잠 단지, 해안축산 단지 등 총 11개의 단지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 “그것도 이시돌 목장에서 다 후원했어. 그니까 우리 단지가, 이 단지, 동광양잠 단지, 광령양잠 단지, 해안축산 단지, 또 어디고, 선흥... 선흥은 이시돌이고, 한 11개 단지가 조성돼 11개, 여기는 도에서 정책 자금으로 해서 땅을 싸게 분양해서 120원에 분양받았어. 120원에 분양받았는데, 요거는 단지고.”

- 김승학 씨는 축산단지에 살아서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직접 살았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통해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건설과정과 생활 환경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승학님은 테쉬폰 구법 건축물 건설과정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 기둥, 철근 등이 없는 건물이고 바닷가 모래를 가져와서 시공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다가 가마니를 이용하는 등 공법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테쉬폰 구법 건축물이 아늑했지만 박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다고 기억했다.

- “테쉬폰을 처음 할 때 공사가 몇 번 무너졌어. 왜냐하면, 왜 무너지냐면 옛날엔 바닷모래 썼었잖아. 모래 퍼도 삽으로 다 했거든? 그래서 그걸 공사하면 다 무너지지. 테쉬폰 가봤어? 가마니 자국이 있는 게 그 후에 공법이 이게 신부님도 이제 아이가 안되겠다. 제주도 풍습대로 해보자 해서 그 사람이 두분이 금약에 살아계셔, 그 공법을 가마니를 받아놓고 그 밑에 라운드지게 나무로 해가지고이. 그래서 이 가마니를 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굳은 다음에 덧씌우고 덧씌우고, 아무것도 안들어가잖아. 테쉬폰이 기둥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거 칸 가는데만 브로끄만 들어가지. 지붕이고 벽체는 그냥이잖아. 그니까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시행착오 하다가 가마니 공법을 이용해서 했어. 가마니로 받은거지. 왜냐면 지금처럼 틀이 있나 뭐가 있나? 레미콘 쓰야불론 다 내려 앉아불지. 몇 번 하다가 세멘만 발라서 틀어져 불고 하다가 가마니 공법을 누가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가마니로 해서 이렇게 라운드 지면서 옆에 벽체도 하면서 계속 가마니로 받치면서 밑에 영 받아주고 시멘트를 얇게 해야 해. 다 버무렁 사람이 다 했잖아. 올라가지도 못해 살살살살 하명. 집이 15평도 안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한 너댓 번 하면서 굳으면 붙이고 붙이고 한거야. 그게 테쉬폰이 나온거지.

- 4H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농촌운동으로 1947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김승학 씨는 한림읍 수원리 4H의 시작부터 사무국장 맡고 이후에는 8회 한림읍 4H 회장을 맡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마을마다 4H가 있었으며 수원리의 4H는 성 이시돌 목장과도 서로 연관이 있었다. 성 이시돌 목장이 속해 있던 천주교 재단에서도 4H에 대해 돼지, 양을 분양해주는 등 많은 후원을 해줬다고 하며, 수원리의 4H도 풀을 메는 등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건립에는 연관이 없었다고 한다.

- “원래 있었고 우리 단체가. 내가 회장도 하고, 맥그린치 신부는 4H를 후원했지.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후원 해주거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양돈... 돼지 10마리, 양 10마리 다 이시돌에서 해줘서 했지. 이 건물 자체도 4H에서...저거 보여 안보여. (8대 회장 했고.) 8대 회장이 아니고 초대 이 기초를 사무국장 하면서 내가 만든거지. 농촌운동을 시작한거야. 맥그린치 신부님이 젊을 때 총각으로 와서 농촌운동을 시작하고 우리 지역에 4H 운동도 미국에서 시작한거니까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원 4H에 후원해줬어. 후원해주면서 돼지 분양해주고, 양 분양해주고.”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본 연구는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 배치 특성 및 형성과정 규명, 성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 농가의 공동체 문화의 규명, 금악 개척 농가 테쉬폰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문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공동체 문화와 주거생활 모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고 성이시돌 목장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민과 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문헌, 사진 및 영상자료, 항공사진 등 문헌 자료들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거주자들의 면담 조사 및 현장 실측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특히 과거 항공사진과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의 변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 형성과정을 기억하는 거주자들을 통해 심층 면담 조사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60년대 성이시돌 목장 형성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의 이사장인 마이클 신부, 인근 축산단지의 거주자 김승학님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1970년대 성장기의 성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와 주거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우선 테쉬폰 구법은 맥그린치 신부가 안식년 때 고국인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건축 시스템으로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를 구현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은 1960년대(형성기)와 70년대(성장기)에 70여 동의 테쉬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 성이시돌목장 내에는 소규모 군집된 돈사, 대규모의 단일 돈사, 직원 숙소 등의 용도에 따라 테쉬폰 구법의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1960년대 초 건설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금악 개척 농가 14개소 농가는 선형의 길을 중심으로 구획된 필지에 면해 테쉬폰 구법으로 지어진 주거동과 창고동이 정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10여 개의 개척 농가들은 비정형적인 형상의 필지로 인근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양적 공급이 개척 농가 형성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과 금융상품 등의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도모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후 '개척 농가'의 성과가 '개척단지'로 확장되었음을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2중 외피로의 기술적 발전이 모색 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이 존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음으로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는 아일랜드 콜롬반 선교회의 사제로 1954년 한림에 부임한 맥그린치 신부와 함께 성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방법으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는 일단의 공동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직원 중에 개척 농가 회원이 되는 등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공생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기, 전화, 수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인근 축산단지와 금약리를 포함해 이시돌 목장의 주요시설들이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주거 생활사적 측면에서 서양식 주거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제주에 도입된 테쉬폰 구법이 그의 주도하에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과 순응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공간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제주 이외 지역의 이주민들을 다수 수용하면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제주의 전통적인 주거문화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이질적 주거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들의 온돌문화와 일체화된 가족공동체적 주거생활 문화는 중산간이라고 하는 제주의 기후적 환경과 상충하고 있었으나 점차 절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혼란 뒤 근대로의 이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제주의 1960, 70년대에 서양과 육지 그리고 제주 전통의 주거문화들이 절충되며 변용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제주의 주거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언

- 제주 성 이시돌 목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테쉬폰 구법은 주거 사적, 기술 사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과 계승에 관한 구체적 성과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본 연구를 통해 다수의 미발굴되었던 정부 자료와 비공개 개인 자료들을 취합함으로써,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구법의 도입과 형성과정의 명시적 자료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학술적 관점에서도 테쉬폰 구법을 다양하게 재조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제 테쉬폰 주택에 거주하였던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모습과 공동체 문화를 처음으로 채록해 기록화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성과를 활용한 추가연구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 본 연구의 성과는 제주의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건축자산으로서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가치를 재고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테쉬폰 구법이 적용된 제주시 월평과 선흥의 개척 농가 단지와 민간에 의해 지어졌을 미확인 테쉬폰 구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학술적 연구 또한 제주 주거사를 이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주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향후 보전과 계승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역시 시급하다.
-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1) 제주 테쉬폰 구법의 시공 방식 등 구법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특허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2) 현존하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정밀 실측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유 관계와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3) '제주 테쉬폰 구법'의 활용과 현존 '테쉬폰 구법 적용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신문

- 김태일, 『건축자산 기초자산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
- 박재형,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가톨릭출판사, 2004
- 박철수, 『주거박물관』, 집, 2018
- 양상호, 『1960년대 초 개척농가 건물』, 제주도시건축문화 전문지 '지간', 2014
- 양영철,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하나출판, 2013
- 양영철, 『제주한림이시돌 맥그린치 신부』, 박영사, 2016
- 양영철, 〈양영철 교수가 전하는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 1~26회 연재물〉, 〈제이누리 인터넷신문〉, 2013~2015

논문

- 강한문, 「이시돌축산개발사업」, 지방행정 16(192), 1969
- 김호선, 김태일,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2000
- 김호선, 김태일,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2001
- 김경주, 「P. J.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 권기혁, 박철수, 「테쉬폰 구조의 유입과 변형」,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 권기혁, 박철수,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구조물 추적·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5
- 권상철,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4), 2015
- 권은진,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철수,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주택의 상관성 유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 이용규, 최호석, 오성훈, 「제주 주거용 테쉬폰의 기술적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8)』, 2020
- 이용규, 양성필,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0(2)』, 2020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 <https://commons.wikimedia.org/>
- <http://www.jejuhistory.co.kr/>
- <http://www.e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the Living Culture of the Ctesiphon Housing in St. Isidore ranch

Yi, Yong-Kyu/ Yang, Sung-Pil / Choi, Ho-Suk / Boo, Ki Hong

Keywords : Jeju, Ctesiphon Housing, St. St. Isidore ranch, pioneer farmhouse

I . introduction

The construction of a wave-shaped shell structure with continuous suspension arches(Catenary) is called the Ctesiphon system. The system, which was designed by James Wheeler (1884-1968), an Irish structural engineer, by installing fiber molds on the scaffold and then applying cement mortar several times again to create natural sagging. It was by father Patrick Jameson McGlinchey (P.J. McLinchey) who introduced the Ctesiphon system to Jeju. Existing Ctesiphon system buildings in Jeju began to be distributed in the early 1960s, and most of them are aging more than 50 to 60 years later. Only 23 units are reported to exist in Jeju, and no concrete measures are in place to preserve and succeed the island despite persistent efforts from various sectors. It is very important as a study of Jeju studies to identify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Ctesiphon system house and the life and community culture of the residents who lived in the Ctesiphon system, centering on St. Isidore ranch, which was supplied to Jeju for formation process. This study 1)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Ctesiphon system building on the ST. Isidole ranch, 2) Identifying the community culture of St. Isidore ranch and Geumak pioneer farmhouse, 3)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idential life culture of St. Isidore ranch and Geumak pioneer farmhouse Ctesiphon houses.

II . Identifying the formation process of St. Isidore ranch and Ctesiphon

The Ctesiphon system could be seen as an absolute means of implementing St. Isidore ranch and pioneer farmhouse as an architectural system introduced by Father McLinchey in his native Ireland during his sabbatical years. The Ctesiphon of the St. Isidore ranch was the first to be identified in this study that there were more than 70 Ctesiphons in the 1960s (former) and 1970s (growth). Within the St. Isidore ranch, the construction of the Ctesiphon system could be revealed to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early 1960s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use of small clustered pigsty, large single pigsty, and staff quarters. It was also confirmed that 14 farms in Geumak pioneer farmhouse meet parcels centered around a linear path had residential and warehouse buildings built with Ctesiphon systems, and that about 10 other pioneer farmhouses were distributed and arranged nearby in an unformal form of land. This revealed that the quantitative supply of the Ctesiphon system building was made by the formation of the pioneer farmhouse, and that software such as hardware and financial instruments were provided together to promote sustainable self-relianc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 level of technology existed in the 1970s,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double cladding.

III . Identifying the community culture of St. Isidore ranch

St. Isidore ranch and pioneer farmhouse were priests of the Colombar Missionaries of Ireland and grew up with Father McLinchey, who was appointed to Halim in 1954, and were practiced as a way for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local residents. The St. Isidore ranch and the pioneer farmhouse were a group of communal tendencies. We could see that symbiotic relationships were forme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independence of local residents, such as becoming a member of the pioneer farmhouse among actual employees. In addition, the company sought sustainable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lephones and waterways, including nearby animal husbandry complexes and Geumak. It was understood that the main facilities of the Isidore ranch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community.

IV. Ctesiphon Exploration of Housing Life Culture

In terms of residential life, cultural conflicts would have been inevitable as the Ctesiphon system, introduced in Jeju by father McGlinche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western-style residential spaces, was reborn as a residential space under his leadership. But, through the process of adjustment and compliance, we were able to see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as a space of lif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t. Isidore ranch and pioneer farmhouse developed with the acceptance of many migrants outside Jeju in terms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has led to the acceptance of another heterogeneous residential culture that is different from Jeju traditional residential culture. The ondol culture of the migrants and the culture of family community housing were at odds with Jeju's climate environment called mountain's bread, but we were able to see how it was gradually compromised. This is a after the chaos worthwhile achievement to understand Jeju's residential culture from a new perspective, given that it is the only example of Jeju's gradual transition to modern times in the 1960s and 1970s, when western, land and Jeju traditional residential cultures were compromised and transformed.

V.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is study is St. Isidore ranch Ctesiphon system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building layout, identifying the community culture of the St. Isidore ranch and Geumak pioneer farmhouse, and identifying the residential life culture of the residents of the Geumak pioneer farmhouse. Through this, we tried to approach the reality of community culture and state life, which have been centered around St. Isidore ranch Ctesiphon houses. I could understand a little of the St. Isidore ranch people's life culture. The Ctesiph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round the Jeju St. Isidore ranch, is a reality that despite prior

research on residential historical and technological historical and continued efforts by the local community, concrete results on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have yet to be fully achieved. As a suggestion, 1)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ld law, including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Jeju Ctesiphon system, and to manage patents. Next on 2) Based on the detailed survey and status of existing Ctesiphon systems, it is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for their ownership relationship and future maintenance. Lastly, 3)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Jeju Ctesiphon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existing 'Ctesiphon system application building'.

〈부록 1〉 인터뷰 자료

박고봉 님 인터뷰

날짜 : 2020년 08월 19일 워크샵

.....
질문자 : 양성필, 최호석, 김승석

답변자 : 박고봉
.....

Q (최호석) :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A (박고봉) : 78. 42년생

Q (최호석) : 사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A (박고봉) : 여기 오기 전에?

Q (최호석) : 네

A (박고봉) : 전남 순천

Q (최호석) : 몇 년도에 내려오셨어요?

A (박고봉) : 67년도, 추석에. 추석을 지내고 다음 날 바로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Q (최호석) : 어떤 동기로 내려오셨나요?

A (박고봉) : 내려온 동기는요. 제가 19살 때 군대에 가서 23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45,000평(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간하면 그때 박정희 시절에 개간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가지고 소도 기르고 이제 꿈이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농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시돌 임신부님이 이시돌 농장을 산림에서 옮겨오면서 한우, 면영, 트랙터, 뭐 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원에서 우선 주소를 오랜 해가지고 그것이 주소가 되어서 단신으로 제주도로 그냥 왔어요.

Q (최호석) : 소식을 듣고 인제...?

A (박고봉) : 누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소도 기르고 개간도 하고 트랙터도 좀 배울 겸 그래서 온 거지. 임신부님 밑에서 79년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땅도 30,000평 받고 텍스폰 두 동에 (창고 하나, 주택 하나) 그 밑에서 살았는데 그 텍스폰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신부님이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속에 철근도 안 들어가고 철사도 안 들어가고, 그

러니까 시멘트가 오래되니까 이제 제멋대로 짹짹 벌어졌는데 비가 오면 그대로
고 또 올리면 조각조각 벌어지니까 맞으면 죽어요. 무서워서 살기도 힘들고. 그
때 당시 신부님께 건의해 가지고 요즘 같으면 강한 페인트, 접착 잘 되는 페인
트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칠했는데도 지반도 약하고 엉터리 공사를
해놓으니까 발라봤자 이듬해 되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84년도에 국민주택을 지으면서 헐었어요.

Q (최호석): 그러니까 외부에 그런 도료를 발랐다는 말씀이죠? 테쉬폰 외부에다가.

A (박고봉): 네.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허술하게 집을 지어버리니까(공사를 마
무리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비가 좀 오면 마냥 세숫대야,
헌 옷까지 전부 가져다가 내놓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건 신부님이 잘 압니다.

Q (최호석): 근데 바람 소리는 좀 어때요?

A (박고봉): 바람 소리는 잘 안나요. 바람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간이 제
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동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곧장 벽이 서 있었으면 가구
라도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 가구 같은 걸 놓으면 집이...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습기가 좀 잘 차고.

Q (최호석):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A (박고봉): 그때 당시 신부님이 부엌에 (우리 농촌에 가면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불을 때게)
그렇게 해서 설비를 해서 집을 지어놨더만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
라. 불을 때면 처음부터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좀 앞으로
가서. 놓을 줄도 모르고 이제 엉망으로 놓아서.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렇게 눈물 흘리면서 밥 지어 먹었어요. 그거 뜯어고치려면 방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돈도 없고.

Q (최호석): 그러니까 구들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A (박고봉): 네. 구들을.

Q (김승석): 아 굴목이 처음부터 원래 있었습니까?

A (박고봉): 응. 있었어. 뜯고 보니까 구들돌을 놓고 위에다가. 돌은. 돌은 보니까. 어디서 구
들돌을 사다가 걸었더라고.

Q (김승석): 우리 집도 그렇지만 다 구들돌이라서.

A (박고봉): 다 그렇더라고.

Q (최호석): 사시던 개척 농가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A (박고봉): 예.

Q (양성필): 선생님이 개척 농가에 오신 건 67년도지예?

A (박고봉): 네. 67년도.

Q (양성필): 67년도에 왔을 때는 테쉬폰이 다 지어져 있던 상태...?

A (박고봉) : 네.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임신부님이 이시돌 아래 돈사도 또 그런 모양으로 짓고 있었고.

Q (양성필) : 그녀가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주거용 테쉬폰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거고, 짓는 것을 보신 거는 아니고요?

A (박고봉) : 네. 우린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임신부님이 주변에 짓는 돈사나 그런거할 때는 구경을 했지만.

Q (양성필) : 그러면 돈사 말고 사람이 사는 (주거용 테쉬폰) 집을 짓는 것은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적은 없어야마씀? 67년도 이후에 지은거는.

A (박고봉) : 봤어요.

Q (양성필) : 어디에 있는 것을 보셨수과?

A (박고봉) : 고숙정이라고 알려나 모르겠는데, 응. 세레나. 그 집을. 동산 뒤에 농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임신부님이 젓소를 하기때문에. 젓소는 관리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을 그때 당시에 짓고 있었어요.

Q (양성필) : 세레나 선생님 집은 난방이 아궁이가 아니고 혹시 보일러를 놓거나 그러진 않았수과?

A (박고봉) : 보일러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전기가 없었어요. 보일러를 놓을 수는 없고. 차이도 발전기 이용해서 그냥 썼고.

Q (최호석) : 세레나 목장 난방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A (박고봉) : 그러니까 내가 거기 집 빼대 세운 것은 보고. 집 공사한 것은 봤지만 부엌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Q (양성필) : 혹시 선생님 사신거는, 테쉬폰 몇 호에 사셨마씀?

A (박고봉) : 우리 마을에 1호부터 14호까지 있고 또 주변에 15호, 16, 건너편에는 14호고. 근데 주위에 나무 있는 곳에 흥창식이 살던데지.

Q (양성필) : 선생님 사신 거는 몇 호마씀?

A (박고봉) : 4호.

Q (최호석) : 4호라는 것은 네 번째 집이라는 건가요?

A (박고봉) : 응. 네 번째. 내려가면서부터 1, 2, 3, 4...

Q (양성필) : 선생님이 4호에 67년도에 들어올 때는 그 전에 4호에 다른 분이 살고 계셨던거 마씀?

A (박고봉) : 네. 있었어요. 그분은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신부님한테 불하를 받았는데 살 길, 희망이 없으니까 권리금만 받고 팔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좋다. 나는 젊고 그러니까 한 번 도전 해보련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Q (최호석) : 그러면 4호에 다른 분이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불하를 받은 상

태에서?

A (박고봉): 네. 임신부님께 받은 거죠. 근데 2~3년 동안 살면서 침도 지피고 또 주위에 뭐를 또 했다고 해서 권리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Q (양성필): 아. 그럼 불하는 임신부님께 받았는데 권리금은 또 예전에 살던 분께 지불하고?

A (박고봉):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을 그때 당시에 몇 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도. 상황은 내가 전부다 인수를 받고 상환금을 낸 거죠.

Q (양성필): 그러면 혹시 선생님 사셨던 집이 이 집(도면)과 비슷한지 한 번 봐주시쿠과? 이 도면은 지금 남아있는 파란 지붕 테쉬폰인데 여기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 앞인데...

A (박고봉): 거실입니다.

Q (양성필): 오른쪽에 보면 부엌이 똑 떨어져서 있고.

A (박고봉): 대충 다 현관에 들어오면 맞은편. 왼쪽에 이것은 큰방이고, 이걸 하나는 창고고. 이거 없이. 이거 다 창고. 다 나중에는 식구들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방 빌려서 다 살고.

Q (양성필): 선생님 들어오실 때는 창고연마씩? 67년도에?

A (박고봉): 응. 이거 다 창고.

Q (양성필): 그럼 선생님께서 나중에 방으로 개조해서 사용했수과?

A (박고봉): 응. 나는 이거 개조해서 살았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Q (양성필): 오자마자? 방으로 개조하셨고. 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수과?

A (박고봉): 여기 있어요, 문이 있고.

Q (양성필): 방으로 개조하면 보통 문은 막아볼겠다, 예?

A (박고봉): 네. 막았어요. 문 막고. 지붕을 만들어서 부엌도 떼서 이제 여기서 굴뚝 나가게. 가운데 이것이 굴뚝이거든요? 이걸 뚫어서 여기다 연결해서 불도 피우고 그랬어요.

Q (양성필): 그러면 이 방(창고 개조) 난방하는 아궁이는 이쪽에 만들었마씩?

A (박고봉): 네. 이쪽에 아궁이를 만들어서.

Q (양성필): 덮어서 만들고. 그러면 이 바닥이 높아지겠다, 예? 처음에는 낮았었는데. 난방 아궁이 만들고 하면.

A (박고봉): 아니 근데 이 집 기초를 해놓고 잡석을 갖다가 깔아서 파냈어요. 파내버리고 방의 레벨을 다시 맞췄어요.

Q (양성필): 이것을 파내니까 바닥이 흠이었지예?

A (박고봉): 네. 공사하면서 아마 거의 다. 아마 집마다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다 보면 바윗돌 하는 집도 있었을 거고 이 기초 하다 보면. 그런 집도 있었을 거고 근데 나는 방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잡석을 깔았더라고요.

- Q (양성필) : 테쉬폰서 살던 사람들 중에 혹시 벽난로가 있던 집도 있었수과?
- A (박고봉) : 그때 당시 그런 집은 없었어요. 구경도 못 했고, 한 사람도 없고.
- Q (양성필) : 67년도에 계실 때는 본 적이 없고예. 그러면 이 큰 방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아궁이로 불 때면 이렇게 난방이 되고.
- A (박고봉) : 여기가 부엌이니까 천상 큰방은 곧바로 들어가고 이 방도 부엌방이었어요. 여기로 아궁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굴뚝은 이쪽으로 내놓고.
- Q (양성필) : 그럼 아궁이가 L자 모양으로 영 되어있겠다예?
- A (박고봉) : 네 그렇죠.
- Q (양성필) : 이쪽에 밥하는 것이 있고, 이쪽에 밥하는 게 있고. 하나씩 하나씩 있어신가마 씬?
- A (박고봉) : 방은 크고 작고해도 부엌은 서씩 걸리도록 돼있었어요.
- Q (양성필) : 그러면 여기에 67년도에 처음 오셨을 때 난방을 할 때는 밥하고 불 땄 때 연탄으로 했수과? 아니면 장작으로 했수과?
- A (박고봉) : 제주도는 역새가 많으니까 역새 베어다가 해놓고. 옥수수 대. 소똥도 주워다가 군불 피우고. 겨울에.
- Q (양성필) : 소똥으로 밥은 못 하잖아예?
- A (박고봉) : 군불용으로는 최고로 좋아요.
- Q (양성필) : 소똥 같은 것은 주우면 보관은 어떻게 했수과? 말리거나 하잖아예?
- A (박고봉) : 소똥은 알아서 병목지에서 말라요. 그러면 망태랑 호미만 해서 잡아당기면...
- Q (양성필) : 그렇게 해서 난방하고. 그러면 다른 집들도 다 영 돼 있는거과?
- A (박고봉) : 구조가 똑같아요.
- Q (양성필) : 개척 농가에 있는 개인 집은 다 이 모양으로 되어있수과?
- A (박고봉) :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계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지었어요.
- Q (양성필) : 그러면 이 큰방은, 이 집(평면도)은 미서기문으로 되어있던데 미서기문도 똑같이 영 돼 있수과?
- A (박고봉) : 이거 다 미달이 문이었어요. 여기는 여달이 문이고.
- Q (양성필) : 부엌으로 들어가는 데에 문이 있었수과, 없었수과?
- A (박고봉) :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틈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은 달려있어.
- Q (양성필) : 문은 달려있는데 그럼 문은 안 썼구나예?
- A (박고봉) : 밥을 먹다 연기가 온 집에 차니까 문은 꼭꼭 닫고.
- Q (최호석) : 난방은 여기만 되어있었나요?
- A (박고봉) : 여기는 이제 기초를 전부 다 대청마루로 깔았는데 마루예요. 깔았는데 공간이 없어서 흙을 평면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같으면 합부목4x4짜리 되

려나, 그런 것을 대놓고는 거기다가 판자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니까 우리 살면서도 다 썩어서 다 설러 버렸어요. 75-6년도 되어서 한 10년 되어서 뜯어내지요. 결과적으로.

Q (양성필) : 그러면 67년도에 선생님이 여기 왔을 때는 마루연마씩?

A (박고봉) : 마루. 그다음에 썩어서 발이 푹푹 빠지니까 애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자갈 주워다가 채워서 콘크리트 했어요. 집 집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발도 무섭고 그래서 다 뜯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 방 들이면서 같이 그냥 싹 해버렸지.

Q (양성필) : 그러면 선생님이 67년도에 오시고 이걸 뜯어내 콘크리트 한 것은 몇 년쯤 살고 그런거라마씩?

A (박고봉) : 고작 해봐야 10년도 못 돼서 다 썩어버렸어요.

Q (양성필) : 그러면 10년이면 77년이니까.

A (박고봉) : 한 77-8년도에 다 갈았어요.

Q (양성필) : 그러면 다른 집들도 그때쯤에 갈았을건가마씩? 처음에는 마루로 하다가?

A (박고봉) : 처음에는 다 마루가 깔려있었는데 어떻게 운 좋은 집은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쓰고, 나는 콘크리트 했는데, 또 어떤 집은 바꾼 집도 있고.

Q (양성필) : 그러면 삼촌이 좀 빠른편인가마씩?

A (박고봉) : 네. 내가 조금 빨리했어요. 남들보다. 애들이 위험해가지고 나는.

Q (양성필) : 지금은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마루로 되어있는 집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이게 다 콘크리트를 해서.

A (박고봉) : 왜냐면 판자도 엄청 얇은 것으로 해서 그냥 한 번 썩어서 그러면 푹 하고 빠져. 위험해서 어른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한국 업자들이 너무 속여 버려서 임신부님이 거기에 질러가지고.

Q (양성필) : 실제로 천정 영 떨어지는 것도 보셨마씩?

A (박고봉) : 천정? 조각이 떨어지는 것은 창고 같은 데서 봤지.

Q (양성필) : 집에서 떨어지진 않고마씩?

A (박고봉) : 왜냐면 집은 중천장이 돼가지고 천장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래도 중천장이라는 게 허술한 목재를 대서 가려냈기 때문에 그게 조각 푹 떨어지는 날에는 누워 있다가 그대로 맞으면 죽지.

Q (양성필) : 천정이 창고에는 천장이 없었잖아예?

A (박고봉) : 창고에는 없었지.

Q (양성필) : 부엌도 천장은 없지예? 부엌은 있어신가마씩?

A (박고봉) : 부엌은 없어. 벽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부엌하고 창고는 천장이 없고 나머지 마루하고 큰방하고 이 방만 중천장이 되어있고.

- Q (양성필) : 그러면 삼촌네 살았던 집이. 삼촌은 어느 쪽 쓰신 마썸?
- A (박고봉) :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5~6명 되고. 나는 이 방에서 살았고. 동생들이 크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못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창고를 방으로 개조를 한 거야.
- Q (양성필) : 여기 살았던 사람들 한 명씩 영 맞춰보게 마썸. 여기 삼촌하고 여자 삼촌도 여기 산 거 아니? 삼촌하고 예. 부모님도.
- A (박고봉) : 부모님 큰방에서 살았고.
- Q (양성필) : 그럼 부모님이면 어머니, 아버지?
- A (박고봉) : 네. 어머니. 아버지 계셨고, 또 동생들. 군대 갈 애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생활하고.
- Q (양성필) : 그럼 동생이 20대 후반?
- A (박고봉) : 예, 20대 초반도 있고, 군대 갈 놈들도 있고 그랬죠.
- Q (양성필) : 아. 두 명 마썸? 동생이?
- A (박고봉) : 넷.
- Q (양성필) : 동생 네 명이 여기 같이 살안마썸? 동생 넷. 다 총각? 동생들 열거 좀 해 줘봅서. 여기 왔을 때. 동생들 한 몇 살 정도 됐 마썸?
- A (박고봉) : 72년도에 와서 72~3년도에 다 군대 가고.
- Q (양성필) : 그러면 동생 네 명이 한 번에 다 같이 산 건 아니고?
- A (박고봉) : 한꺼번에 있었어요. 나는 이시돌에 신부님 밑에 일을 다니고.
- Q (양성필) : 제일 어렸던 동생은 그 때 몇 살 마썸? 72년도에 왔을 때.
- A (박고봉) : 72년도에 아마 초등학교 2-3학년 때 와 가지고.
- Q (양성필) : 그 위에 또 한 명은 중학생쯤 되신가마썸?
- A (박고봉) : 그 애들이 10살, 13살. 아마 그 또래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17살, 20살. 그런 동생들 있었지.
- Q (양성필) : 그게 72년 정도라는 말씀이지예? 67년도에.
- A (박고봉) : 네. 67년도에 혼자 제주도 와서 3년 만에 가족들이 오게 됐어요.
- Q (양성필) : 선생님이 제주도에 오실 때는 결혼하신거 마썸?
- A (박고봉) : 아니요. 총각 때 왔어요. 총각 때 와서 내려와서 3년 만에 육지 나가서 71년도에 결혼했어요. 고향 처녀랑.
- Q (양성필) : 아. 결혼해서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데리고 내려오신 건가마썸?
- A (박고봉) :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밥도 해주고 동생들 데리고 같이 와버렸기 때문에.

Q (양성필) : 그러면 이 방(도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고예. 이 방에는 누가 살안 마씩?

A (박고봉) : 여기는 동생들이 크다 보니까.

Q (양성필) : 계민 오자마자 바로 방을 만든거는 아니네?

A (박고봉) : 좀 살다가. 한 78년도(집을 고칠 때) 그때 당시 창고 비가 오면 뭉클 들일 곳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여기에 문이 있어서 창고로 막 썼어. 마루 씌어서 개조하면 서 이것도 같이 개조를 했어.

Q (양성필) : 마루를 개조한 것이 78년도니까 그때 했구나예? 78년 정도에 방으로 하고.

A (박고봉) : 네.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창고 개조한 곳에 동생들이 거주하고)

Q (양성필) : 혹시 여기 마루에서 잠잘 일도 있어나수과?

A (박고봉) : 여기서도 여름이면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억새꽃이 피면 여기 유리창으로 억 새꽃이 너울너울해서 들어왔어. 개간도 못 하고 장비도 없고, 지금 같은 포크레 인도 없고. 사람 힘으로 도저히 못 하니까 그냥 억새꽃이 피면 핀대로 살고 그 랐어.

Q (양성필) : 그럼 여름 되거나 그런 때는 마루에서도 좀 자고.

A (박고봉) : 네. 여기 마루 선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네가 하도 많으니까. 겁은 나기는 낫 지만.

Q (양성필) : 그러면 식사는 보통 어떻 햄시? 식구가 많으니까 마루에서 했겠네요?

A (박고봉) : 네 마루에서 거의 다 먹죠.

Q (양성필) : 그러면 밥상은 어디 보관합디까? 식사하려면 마룻바닥에서 먹어신가?

A (박고봉) : 옛날에 육지에서 밥상들을 어른들은 별도로 차려드리고 나머지 동생이랑 형제 간들은 다른 상에서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먹잖아요. 여기도 오니까 자연스럽게 제주도 풍습대로 양푼에 밥을 퍼서 그냥 반찬 몇 군데 해서 두런두런 먹는 버릇 이 금방 들더라고요.

Q (양성필) : 그럼 어른들도 같이 양푼이로 행?

A (박고봉) : 어른들은 따로 밥 차려드리고.

Q (양성필) : 부모님은 큰방에서 식사하셨나요?

A (박고봉) : 네. 큰방에서 식사하고.

Q (양성필) : 아이들은 마루에서?

A (박고봉) : 네.

Q (양성필) : 부모님은 큰방이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한거과?

A (박고봉) : 나는 이제 7년도에 결혼 후에 이 방(좌측 방)을 차지하면서 자식 낳고 자연스럽 게 아이들은 할머니네 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손주들은. 그리고 아이들(동생들) 은 커서 한 둘씩 군대 가고.

Q (양성필) : 그러면 식사를 할 때는 삼촌은 안방에서 식사했마씀?

A (박고봉) : 아, 같이 앉아서 먹어요. 마루에서.

Q (양성필) : 어머니 아버님만 따로 방에서?

A (박고봉) : 네. 따로 차려드리고 형제간들은 그냥 집사람이랑 마루에 둘러앉아서.

Q (양성필) : 선생님 집에는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 같은거 있지 않았수과?

A (박고봉) : 아니요. 방만 있고 문이 이렇게 달려서 이 현관을 나중에 끌어다 마루를 크게 썼지요. 큰방보다도 더 커.

Q (양성필) : 그러면 밥상은 접어서 구석에 찰러놓고 경해신가마씀?

A (박고봉) : 그때 당시에 우리는 육지에서 가지고 온 접이식 상으로 썼으니까.

Q (양성필) : 그러면 이렇게 창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영 밀어놓고?

A (박고봉) : 네. 애들 또 공부할 때는 그 상 펴놓고 공부하고, 책상이고, 밥상이고. 그렇게 살았죠.

Q (양성필) : 그러면 혹시 나중에 TV 같은 것은 어디에 설치하셨마씀?

A (박고봉) : TV를 처음 샀는데 아마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샀을 텐데 TV를 큰 방에 뒀어요. 밀문이어서 할 수 없이 TV를 방 안에 놓고 밀문 열어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랑 마루하고 방에 앉아서 봤으니까.

Q (양성필) : 그 테레비 처음 설치한 것이 언제쯤인지 기억남수과?

A (박고봉) : 82-3년도 되려나? 88올림픽 몇 년 전에 샀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고 82-3년쯤 샀을 거야.

Q (양성필) : 삼촌 처음 왔을 때 수도 있었수과? 수도 걸어정 있었수과?

A (박고봉) : 수도? 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제주도에 와서. 여기에 길이 없었어요. 우리 앞길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던 찰나에 임신부님은 우리 마을로 아스팔트를 깔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올라올 때는 금악에서 오는 뒷길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빨리 아스팔트 해주라고 했는데 아스팔트가 저 길로 성립이 돼버리고, 우리 임신부님이랑 우리랑은 우리 동네 길이 완전 따돌림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임신부님이 화가 나니까 자갈 꺾는 기계를 구입하고, 우리들은 3년 동안 인력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마을의 경계 담을 전부 다 들어내서 여기 정문부터 금악 입구에 맥그린치라고 비석이 있어요. 이 길을 다 우리 손수 했어요. 지금 제일 억울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레놓고 삼 년 동안 힘들어놓고 경계선 담으로 기초를 깔아버렸으니까, 경계가 없어져서 철조망을 치는데 철조망을 우리 상환액하고 똑같아 버렸어요. 몇 백만 원 씩.

Q (양성필) : 길이 선생님께서 깎 길이구나예?

A (박고봉) : 응. 이거 하면서 하루 안 나오면 그때 돈으로... 그때가 70년도. 길 끝나자마자 석유파동이 왔거든? 그 해를 모르겠네. 78년도 77년도

Q (양성필): 그러면 삼촌네 마루 칸 거랑 길 놓은 거랑 비슷한 시기다예?

A (박고봉): 응. 같은 시기야.

Q (양성필): 그럼 금악오름 건너편에 있는 길이 박정희 대통령이 깔라 해그네 칸 길이고?

A (박고봉): 저 길. 지금 저쪽으로 오는 길. 동광 가는 길, 금악 오름 서쪽에 있는 길.

Q (양성필): 그럼 개척 농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길은 스스로?

A (박고봉): 우리 임신부님하고 우리 너무 고생 많이 했어. 하루에 일당을 예를 들어 바빠서 못 나오면 그때 당시에 5만 원씩을 내놓게 되니까. 못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이 몇 십만 원씩 되니까. 그때 당시에 몇 십만 원을 내놓을 재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Q (양성필): 그러면 여기 길을 내는 것은 서로 도와서 한 게 아니고?

A (박고봉): 자발적으로 했어요.

Q (양성필): 자발적으로 했는데 돈을 모아서 했다는 얘기…?

A (박고봉): 아니요. 모을 돈이 없어요.

Q (양성필): 아까 돈을 모아서 했다고 하신 거는…? 신부님이 내시고?

A (박고봉): 신부님은 트랙터하고 기계만 지원해주고 우리 힘으로 집마다 자기 경계선 담 스스로 내놓고 그거 실어다가 우리가 직원으로 일할 때,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 가서 퇴근하면 저녁만 먹고 또 나가서 밤 11시~12시까지 등에 돌 짐을 짰어요. 와서 트랙터에 실어주면 가서 또 자갈 껴는 기계로 부려주면은 또 우리가 짊어지고 또 자갈 껴서 만들고.

Q (최호석): 그러면은 그때 길 닦을 때 사에이치에서는 뭐 도와주지 않았나요?

A (박고봉):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Q (김승석): 돈을 줬던 곳은 어디우과? 5만 원 일당 준 데가.

A (박고봉): 스스로가 만들어 내야돼. 그 일을 감당을 못하면은, 안 나오면은.

Q (김승석): 아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

A (박고봉): 아휴 못 나가면 5만 원.

Q (양성필): 그러면 5만 원은 누가 받아 갔수과?

A (박고봉): 마을에서 조직이 그걸 가지고 일하다 보면 새참도 먹어야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송이 기초를 깔면서 차도 빌려야 되고 그런 것에서 충당되지.

Q (양성필): 그럼 재료비도 대려고 하면 회비든 뭐든 돈을 지금 해야 되겠네?

A (박고봉): 관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Q (양성필):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하지 않우과?

Q (김승석) : 아. 재료는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밭에 송이가 있으니까. 여기가 송이 밭이거든요

A (박고봉) : 네.

Q (양성필) : 공금은 없었나 마썸?

A (박고봉) : 공금을 준 곳도 없고.

Q (양성필) : 아니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A (박고봉) : 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챙겨 내놓지요.

Q (양성필) : 아 그때 그때 부족하면 모아서? 벌금은 우선 모으고 부족하면 더 모으고.

A (박고봉) :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빠서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면 다음에는 이제 총무가 그때 당시에 대표 총무가 있어서 기록 다 해놨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하면서 몇 십만 원 되는 사람들은 나 더러워서 못 내놓겠다. 일 많이 해놓고도 그냥 갔어요.

Q (양성필) : 그러면 여기 있는 개척 농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닐 거고. 왜 나면 저기 저 떨어져 있는 개척 농가도 있으니까.

A (박고봉) : 아, 거긴 안 했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열네 집. 14호까지.

Q (양성필) : 그러면 1호에서 14호는 특별히 친하셨겠는데?

A (박고봉) : 네. 집마다 다 젊었고 그때만 해도요. 또 이제는 길이 완성되면 이보다는 낫겠지 하고 희망을 조금 가졌지요.

Q (양성필) : 그러면 그때가 78년도이고, 그때쯤에는 수도가 들어왔마썸?

A (박고봉) : 80년대 전기 수도가 들어왔는데….

Q (김승석) : 저희도 아마 78년도 쯤엔 수도가 있었을거라. 80년도 쯤엔 수도가 있던마썸.

Q (양성필) : 이 길 닦을 때 수도는 같이 공사 안 하고?

A (박고봉) : 안 했어요.

Q (양성필) : 포장만 하고?

A (박고봉) : 네. 포장만.

Q (양성필) : 이 길 닦은 이후에 수도가 들어왔구나예?

A (박고봉) : 길 닦기 직전에 박정희가 여기를 우리가 알기로는 73년도인가 와서 단지 만들고, 그러니까 73년도에 와서 길을 빼주라고 하면서 길을 빼고 우리는 3년 동안 부역하고 전기도 넣어줘라 하니까 옛날에 우리 신부님이 자가발전을 해서 돼지도 기르고 그랬는데 이제 한전에서 길 함과 동시에 이듬해에 아마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 수도, 길이 3~4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Q (양성필) :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73년도에 박정희가 와서 한 3년 안에 됐으니까 한 76년 정도에는 전기, 수도길이. 저쪽에 있는 길도 나고 그렇게 했고, 78년도에

는 이 앞길이 그렇게 자립적으로 만들고 한 거구나예?

Q (김승석) : 80년도에는 저 위에까지 전기가 갔으니까. 우리집은 저 위쪽이니까. 그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전기, 수도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Q (최호석) : 73년도에 수도는 놔주고 길은 안 닦고 그 금악리 서쪽에 있는 그 길을 닦아서 신부님이 좀 화를 내셨군요. 수도는 놔주고 길은 안 닦아 주냐고.

A (박고봉) : 그러니까 길은 저쪽으로 완전히 먼저 돼버렸어요. 박정희가 올 때 걸었던 길은. 근데 이 이쪽에는 이제 임신부님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돌 집어넣어야지, 자갈 만들어야지, 또 깔아. 까는 것은 임신부님이 옛날 그 굵은 노다 가져와서 밀어서 하여튼 불쌍하게 일을 했어요. 우리 심지어 통행료 받자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Q (최호석) : 금악리 서쪽 도로는 누가 닦았나요?

A (박고봉) : 어디, 저쪽에는요? 관에서 해줘 버렸지요. 손 까딱 안 하고.

Q (양성필) : 근데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있나마씀?

A (박고봉) : 그쪽으로 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박정희가 오다가 박정희가 탔던 차 앞바퀴가 빠져 버렸어요. 길이 하도 험해서. 금악에 그때 아이인데, 개가... 이름을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다. 박정희 차를 몰았는데 막 투덜거리고 욕을 하더라요. 박정희가. 이따위 길을 지금까지 놔뒀냐 이거지. 그랬는데 앞바퀴가 하필이면 저 처녀물 동산. (김승석 : 아마 그 처녀물 동산이 옛날에 비포장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 로 간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자살해서 처녀물 동산...) 물이 막 흐르면 길이 그냥... 근데 거기에 딱 빠져버린 거야.

Q (양성필) : 근데 왜 박정희가 이쪽 길로 오지 않아그네 저쪽 길로 왔는지...

A (박고봉) : 여기는 길이 없었어. 여기는 길이 없었고 저쪽에는 사료 차가 사료를 싣고 날라야 하는 찾길이기 때문에 근데 딱 오다가 이제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

Q (김승석) : 거기가 기존 길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거기로 차 가지고 갔구나. 여기는 마을 자체 길이고요?

A (박고봉) : 마을 자체에서 셋길이에요.

Q (양성필) : 그러면 저 사진이(흑백 사진) 79년도 길 만들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이네.

A (박고봉) : 초창기에 신부님일 때 입주했던 사람들은 권리금 그때 당시에 몇 백만 원 싣 받고 다 떠났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 나는 두 번째지만 두 번 세 번 주인이 바뀐 집도 많았어요. 힘들어서.

Q (최호석) : 못 버텨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땅도 그냥 반환하고 권리금만 받고 가신 거네요?

A (박고봉) : 네. 권리금만 받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Q (최호석) : 대단하시네요. 마지막까지 버텨내시고.

Q (양성필) : 그러면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처음 들어오실 때는 수도가 없었겠네요?
그때는 물은 어떻게 사용했마씀?

A (박고봉) : 물이요?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저 금악오름 밑에 ‘노나진 밭’이라는 저 지형이
오목하게 생겨서 이 주위에서 비가 오면 전부 다 거기로 모여들어.

Q (양성필) : 아 저수지처럼. 이름이 ‘노나진 밭’?

A (박고봉) : 네. 노나진 밭.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 농가
는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니까. 그걸 신부님이 무슨 군인들 불도져 그걸 이용해
서 땅을 밀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크게. 그 자리에, 노나진 밭에. 그래서 이제
물을 좀 고이게끔. 나중에 하여튼 75년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부로부
터 그 울타리 담을 연못 판 데에 둘러었어요. 그때 이제 담을 둘러었는데, 이제 거기
서 물지게로 물 길어다가 일상생활 한 거예요. 밥 지어 먹고, 걸레 빨고, 세수하
고.

Q (최호석) : 노나진 밭이 혹시 여기 1, 2, 3, 4. 선생님 여기 사셨잖아요? (지도자료)

A (박고봉) : 금악봉이 어떤 거예요? 금악봉이 이쪽이면 이렇게 봐야겠는데, 지금 산 밑에 이
게 우리 다니는 길 모양인데 여기 지금 필지 수가. 바로 농장 밑에 이 부분 어디
밑에 될 것 같은데….

Q (김승석) : 옛날에 산물 나는 데 마씀? 금악산물? 여기가 금악산물이고. 여기로 영 올라와
서 이쪽이 단지 그쪽에서 나는 셋물이고.

Q (양성필) : 금악산물이 노나진 밭이라고 하는거구나?

A (박고봉) : 네. 맞아요.

Q (양성필) : 그러면 개척 농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했나요?)

A (박고봉) : 네. 물지게에다 우리 잘 길어다가.

Q (양성필) : 그러면 물지게는 양쪽에 강통 있는 그거 마씀?

A (박고봉) : 네. 강통을 임신부님이 쓰던 약통 같은 거, 우유 통도 많이 있고.

Q (김승석) : 우유통 많이 썼죠? 파트라슈 우유통 같은.

Q (최호석) : 근데 선생님 밭이 거리가 꽤 머네요? 다른 분들 밭보다.

A (박고봉) : 그 거리가요. 금악봉 밑에서 이게 또 남의 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밭 임자하
고 흥정해야 가서 길을 통과를 하게 되어있었어요.

Q (최호석) : 아 지나가야 하니깐. 남의 땅이니깐.

A (박고봉) : 그래서 참 애로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 길을 조금, 길만
좀 팔아줘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금 고영부가 다 삼켜버렸어.

Q (양성필) : 고영부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Q (최호석) : 그러면 이쪽은 이시돌 목장 소유가 아니었나 봐요?

A (박고봉) : 네. 이 길. 여기 밑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 이 부근 어디나 될 것 같은데. (최호석

: 여기 선생님 밭이구요. 1, 2, 3, 4. 여기. 금악오름.) 근데 우리 농장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짚어서 여기까지 오면 한 5-600m 돼요. 여기서 돌아서 남의 밭으로 해서 되돌아서 오는데.

Q (양성필): 그래서 이렇게 건너오시려고 하니까 밭 주인하고 흥정을 하신 거구나?

A (박고봉): 근데 그걸 우리보고 임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이전을 해가라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누구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선 사람들도 없고 해서 우물쭈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길도 우리가 돈 주고 사냈던 것도 증거가 있었는데 옛날 강봉옥이 어른이 미장할 때 매매 계약서 그걸 안 내놓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리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다가 다 통째로 고영부라는 사람이 이제는...(김승석: 제일 많은 것 닮읍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 땅이 금악봉 밑으로 다.

Q (양성필): 그러면 물지게는 남자들은 양철로 해서 물지게하고 여자들은...

A (박고봉): 네. 육지에서 지게 있잖아요. 그 지게처럼 가지만 없지 등허리에 딱 멜빵해서 양쪽에 놓으면 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못해도 세 번, 다섯 번 길러야 가족들이 쓰고, 가축도.

Q (최호석): 하루예요?

A (박고봉): 네. 그니까 집에 어디 지형이 알아서 비만 와도 좀 고이면 그런 자리 찾아서 파고들어서 물 고이게끔 만들어 놓고.

Q (최호석): 양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돼지들은 물을 어떻게 하셨나요?

A (박고봉): 그것도 길러다 먹었어요. 빗물 통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길렀어요.

Q (양성필): 물 길어 오는 것은 대부분 삼촌이 하셨나마썬? 여자 삼촌들이 안하고?

A (박고봉): 아니, 동생들도 하고, 주로 내가 많이 했지요. 이제.

Q (양성필): 제주도에서 대체적으로 물 기르는 것을 남자들이 잘 안하거든 마썬. 여기서는 남자 삼촌들이 많이 한거과?

A (박고봉): 여기 물 기는 것은 남자들이 대부분 다 담당하고 여자들은 부엌일이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어머니하고 집사람밖에 여자가 없고 남자들 많고 그러니까 물지게는 (남자들이 했는데) 우리 부친도 우리하고 79년도 이전에 같이했는데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아휴. 참.

Q (최호석): 테쉬폰에서 사실 때 가족 구성원이 총 몇 명이나 있었나요?

A (박고봉): 동생들, 나는 세 가족이었는데. 동생들 넷하고, 저하고, 우리 형님 한 분이 또 결혼 해서 조카들도 둘, 셋 됐는데 형님 식구들까지 같이 살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Q (최호석): 집이 작은데?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된 건가요?

A (박고봉):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있죠. 동생들 넷 있죠. 우리 집사람,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 형님 식구들, 형수, 조카들 셋. 그리고 또 달려들었어요. 혼났어요.

Q (최호석) : 자녀분들도 계셨잖아요.

A (박고봉) : 나는 그때 당시에 애들이 꼬마들.

Q (최호석) : 그러면 총 열 명이 넘네요. 어른하고 중, 고등학생만 합쳐도 열 명. 조카들 빼고 여덟 명이니까 그러면 열한 명쯤 되었겠네요.

A (박고봉) : 그래서 나 월급 5500원 탔어요. 여기 와서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제주도 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고. 대문이 없고 정낭 걸어놓고 집에 사람 없으면 가서 남의 집 뒤져서 그런 것을 많이 손찌검을 했는가봐.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예. 가라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김흥철이라고. 할아버지 나보다 두 살 위인데 그 양반이 여기를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남의 집도 상비로 살았어요. 겨울에 육지에서 오면 낫질을 잘하니까 겨울에 이제 소 먹을 것 이제 건초, 그걸 하는데 할 수 없이 조건부로 이시돌에 넣어주면, 임신부님 밑에 넣어줄 테니까 건초를 겨울에 눈 올 때까지 베어 주라. 그러니까 그렇시다. 하여튼 나 힘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여기 농장장 했던 김봉원 씨 고산 김봉원 씨 삼촌 되는 분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 내가 이제. 초를 베어줬어요. 여자들도 200원 받는데 나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100원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그냥 처량했죠.

Q (양성필) : 선생님께서 물을 길어오면 그 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A (박고봉) : 그거야 향아리 구매를 해야지. 한림에 고속정이라고 임신부님이 텍스폰 지어줬던 사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향아리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육지에서 물 향아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 구해다가 저장해놓고 우리 먹는 물도 따로.

Q (양성필) : 그러면 물 향아리는 부엌 안에다 두시고 쓰셨나 마썸?

A (박고봉) : 밖에다가도 두고 부엌에서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여름 돌아오면 물벼룩이 생겨서. 그래도 우리 설사 한 번 안 했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냥 바가지로 휘휘 저어서 떠가지고 그것도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프리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Q (양성필) : 그러면 그 물 가지고 세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거예요?

A (박고봉) : 세수하고 빨래도 하고 발 씻고.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면 다 씻고 걸레 빨고.

Q (양성필) : 세수하고 발 씻고 하는 건 부엌 앞쪽에서 많이 하셨겠네요?

A (박고봉) : 여기 흔해 빠진 돌 가져다가.

Q (양성필) : 아니면 마당 가운데. 마당 한 가운데서 물 좀 떠다가.

A (박고봉) : 그러니까 그때는 제주도 개간 안 한 땅을 보면 알겠지만은. 돌맹이. 30cm만 모으면 속이 다 돌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간을 제대로 못 해요.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더라도 있으면. 그니까 돌맹이 없는 부분에 가서 곡괭이나 소시랭이로 파서 조금 몇 평이라도 돌 없는 데. 그런 데서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지실도 심고 그래서 부식을 얻어먹었어요.

Q (양성필): 그럼 집에 약간 텃밭 비슷하게 만들고?

A (박고봉): 네. 텃밭 비슷하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굵은 장비가 있고 뭐 했으면 평평하게 몇 백 평이라도 만드는데 그런 장비들이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그냥 곡괭이나 소시랭이 가지고 돌 없는 부분만 가서 그냥.

Q (양성필): 그러면 지금 맥그린치 길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살고 계신 집이. 지금 이렇게 놓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있고.

A (박고봉): 이 길하고 제 테쉬폰하고 거리가 한 15m밖에 안됐어요. 10m도 될 등 말 등.

Q (양성필): 왼쪽 옆으로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A (박고봉): 네. 그렇게 있었어요.

Q (양성필): 이쪽이 부엌. 부엌으로 해서 이 창고에는 무엇을 보관하는 거 마썸?

A (박고봉): 창고에는 내가 오니까 나 앞에 사람은 여기다가 소를 네 마리 메어 놔더라고요.

Q (양성필): 삼촌은?

A (박고봉): 나는 이제 와서 혼자 몸뚱이 아무것도 없고.

Q (양성필): 그냥 비워놨나마썸? 삼촌은? 비워볼고.

A (박고봉): 나중에 내가 이시돌에 들어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창고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장사꾼 통해서 나도 뭐하면 돼지를 몇 마리 길러야한다 싶어서 그때 당시 여기를 칸막이를 해가지고 돼지를 길렀어요.

Q (양성필): 칸막이해서 돈사.

A (박고봉): 네.

Q (최호석): 한 몇 마리 정도였나요?

A (박고봉): 여기서 기르면 한 오십 마리 길러져요. (김승석: 그냥 담아 놓는 거니까) 받아 놓고 앞뒤만 이 뒷문만 막아두고 이 앞에서 밥이나 퍼주고 똥 싸면 그거나 길러서 텃밭에 가져다 뿌리고.

Q (양성필): 그러면 이 앞문은 사용하고 뒷문은 폐쇄하고. 앞뒤로 통과하면 편하지 않아마썸? 앞으로도 다니고 뒤로도 다니고.

A (박고봉): 아니 근데 이제 여기 둥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뒤에 문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벽을 두드려 깨도 지금처럼 뭐, 어디 문 만들고 쉬운 것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돌맹이 제주도에서 돌맹이 튼튼하게 쌓아서 돼지가 못 넘어오게, 그런 식으로 막아놨어요.

Q (최호석): 돼지가 못 넘어가죠?

Q (양성필): 다리가 짧아서. 그러면 이 안에 다 몰아서 넣어서... 여기에 칸막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A (박고봉): 네. 아니고.

Q (최호석):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여기에 소를 키울 때는 넓은 농장이 30,000평이 건초

기르는 거로 한다고 치는데 양돈하실 때는 이 넓은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A (박고봉) :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사를 지을 만한 위치만 뭐해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한 마리로 시작했어요. 비육돈 한 마리 사다가. 비육돈 한 마리 사다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시돌 앞에 부쳐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 불러 가지고. 이거 지으면서 내가 83년도까지 짐승을 길렀어요.

Q (최호석) : 돼지는 뭐 먹이셨어요?

A (박고봉) : 뭐 먹였냐. 아 이시돌 사료 공장에서 팔아줘요.

Q (최호석) : 그러면 그때는 뒤쪽에 있는 이 넓은 대지는…

A (박고봉) : 땅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79년도에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우리가 젖소를. 그 이전 해 신청을 해서 지금이 바로 박정희 시해사건 때 지금이 조달됐어요. 그래서 육지 가서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다가 그때부터 젖소를 했어요.

Q (최호석) : 그때가 몇 년도 인가요?

A (박고봉) : 79년도. 박정희 시해 사건 때. 11월.

Q (양성필) : 그럼 79년 이전에는 그냥 버려진 땅이었구나?

A (박고봉) : 그러니까 고사리.뭉, 뭉. 제주도 땅 생긴 그대로 있었어요. 당시에.

Q (양성필) : 그러면 선생님네 텃밭은 어느 쪽에 만들었마썬? 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면 자료)

A (박고봉) :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부근에 이제 텃밭이고 이 뒤로도 텃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시돌에 트랙터들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한 땅을 장비로 와서 갈아주기도 하고 점점 목초도 갈고 텃밭도 만들고 곡식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형편이 피면서 불도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땅을 밀기 시작했고. 채석 작업하면서 이제 기계가 풀을 벨 수 있도록 만들고.

Q (김승석) : 그게 90년쯤 되겠네예?

A (박고봉) : 돌맹이 치운 것만 해도 아마 내가 지금 한 것만 해도 금약봉보다 많을 거예요.

Q (최호석) : 수도가 그러면 들어왔을 당시 73년도에 어디로 빼지던가요? 진입을.

A (박고봉) : 아 수도는 여기 바로 텍스폰 바로 이 길. 이 길로 쪽 담 밑으로.

Q (양성필) : 아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고(도면 자료)

A (박고봉) :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Q (양성필) : 그러면 선생님 댁은 수도가 어디에 있던마썬?

A (박고봉) : 나는 여기(창고) 짐승이 있어서 여기도 하나 걸고 여기서 들어가고 이디 파서 부엌에도 걸고.

Q (최호석) : 한 저기 67년도 내려오셔서 수도 설치하기 73년도까지 한 6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 A (박고봉) : 10년. 10년 동안은 앞을 못 보고, 하여튼 죽으라고 일했으니까.
- Q (양성필) : 혹시 돼지를 기르실 때 사료를 아끼기 위해서 부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돼지를 주거나 그런 건 없었수과?
- A (박고봉) : 그때는 그것도 아까워서 모았다가 돼지 다 먹였지요.
- Q (최호석) : 제주도 똥돼지 있는데 혹시 똥돼지 그런 건 안 하셨어요?
- A (박고봉) : 똥돼지는 안하고, 우리 신부님이 기르던 돼지들. (김승석 : 똥돼지는 우리 동네 나 똥돼지. 우리 집에나.)
- Q (최호석) : 하여간 그 부엌에서 나오는 먹다 남은 것들은….
- A (박고봉) : 아 그것도 그냥 돼지 사료하고 말아주면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때 이시돌에서 만든 사료는 분쇄를 해서 지금 사료랑 거의 질이 가깝게 만들어서 뭐 사람 먹을 것이 없는데 짬뽕하면 나올 것이나 있어요? 그저.
- Q (양성필) : 이거는 삼촌한테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삼촌 생각에. 지금 보면 모든 집이 지금 삼촌네 집처럼예, 정지가 있는 쪽에 이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놓인 위치 이유가…?
- A (박고봉) : 그건 모르겠어요. 집 지은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창고, 오른쪽에는 주택, 다 그렇게 했어요. 집마다 다.
- Q (양성필) : 이 오른쪽 끝에가 창고고예. (도면 자료) 창고가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있어가지고
- Q (김승석) : 이건 창고라기보다 곡식 같은 거 저장하고, 말리고, 우리말로 괴팡이나 꿇방이라고 하는데. 쌀이나, 고추 말리고.
- A (박고봉) : 거실이고, 부엌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곡식 창고.
- Q (김승석) : 저희도 그랬어요. 부엌 옆이나 그런 쪽에 쌀 같은 거 습하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 Q (양성필) : 그러면은 여기 방으로 만들기 전에 이 창고의 바닥은 어떤 바닥이었수과?
- A (박고봉) : 그냥 콘크리트 해졌더라고.
- Q (최호석) : 여기 흙바닥은 부엌이 흙바닥이었죠?
- A (박고봉) : 부엌은 4~50cm 깊어. 아궁이가 있으니까.
- Q (최호석) : 깊어서 흙바닥이었나요?
- A (박고봉) : 거기다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솔을 걸게끔.
- Q (양성필) : 하여간 집안에는 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하고…. 그러면 여기 마루를 깔았었잖아예? 마루 깔 때도 마루 밑에도 콘크리트라 낫수과?
- A (박고봉) : 아니.
- Q (양성필) : 거기는 흙이고?
- A (박고봉) : 집을 지어도 콘크리트로 집 지었으면 마루가 오래갔을 텐데 습기가 안 올라와서. 그냥 대충 삽으로 메워놓고 위에다가 방부목 걸어놓고 판자를 걸어버렸더라고.

- Q (김승석) : 그래서 우리 집도 옛날에 여기가 뱀이 많이 나와.
- A (박고봉) : 뱀도 나오고 지네도 많이 나오고.
- Q (김승석) : 그래서 옛날에 부셨어요. 이거. 저희는 테쉬폰이 아니지만 집을 지을 때가 할아버지 때고 그러니까...
- A (박고봉) : 장비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앞에 돌 같은 거 있으면 그대로 그냥 요상하게 해도 집을 짓는 거예요.
- Q (김승석) : 많이 썩었죠. 옛날에. 우리는 안에 마루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뒷마루가 있었는데...
- Q (양성필) : 근데 그 제가 조금 이야기 듣다가 마루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렇게 흙이 있으면 4x4각부목을 이렇게 대그네 위에 판자를 이렇게 깔았다고 했잖아예? 이 판자라고 하는 게 어떤 판자 말씀하시는 거마씀? 폭이 넓은 판자 말씀하시는 거마씀?
- A (박고봉) : 꼭 저 넓이. (뒤쪽 마루)
- Q (양성필) : 아. 그러면 1x4나 1x6 같은데.
- Q (김승석) :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널빤지.
- A (박고봉) : 널빤지.
- Q (양성필) : 장마루 바닥이구나.
- Q (김승석) : 여기는 기초가 있었어요. 조그마하게 기초가. 조그마하게 돌 놓고 각재 받치고. 초가집 마루 깔듯이.
- A (박고봉) : 근데 이게 이것도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것도 콘크리트 해놓은 것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하려고 하니까 놔둘 필요도 없이 백퍼센트 다 걷어내야 해.
- Q (양성필) : 여기 콘크리트 할 때 여기는 난방 끝까지 안 했지예?
- A (박고봉) : 응. 여기는 난방은 안 했어. 여기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등 스키도 차고 그러니까 부엌을 만들었고.
- Q (양성필) :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벽을 없었다고 했고예. 여기에 저장했던 게 삼촌네가 저장했던 게 어떤 게 있었나마씀?
- A (박고봉) : 아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도 보관했다가, 고구마도 보관했다가. 또 깨, 깻대 이런 것도 가져다가 주워 넣고.
- Q (김승석) : 옛날에는 조도 많이 했고.
- A (박고봉) : 옛날에는 비닐도 귀하니까 비 오면 할 수 없고.
- Q (양성필) : 비닐. 비닐도 보관하고?
- A (박고봉) : 다른데 이제 집에 놓을 곳이 없으니까.
- Q (양성필) : 장작도 여기 놓았수과? 장작도 보관했마씀?

A (박고봉) : 아니.

Q (양성필) : 그러면 여기 굴목 떼기 위한 억새나 옥수수대 이것은 부엌에 보관했마씀?

A (박고봉) : 그렇지, 뭐. 주위에 농사짓다가 보면 고춧대도 나오고 깻대도 나오고 그러면 차곡차곡 해놨다가 억새로 지붕 만들어서 안 젖게 만들어서 떼다가 여기서 밥해 먹고, 또 억새가 문만 열면 억새니까. 억새 배어서 산더미처럼 지어놓고.

Q (양성필) : 억새도 배어서 말려야 잘 떼어지지 않아마씀?

A (박고봉) : 그럼. 사람 손으로.

Q (양성필) : 그럼 제주도에서 놀 었은다고,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만들었마씀?

A (박고봉) : 아휴. 그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 콘크리트 집이니까 뭐 어디 지붕이라고 무엇을 빈다고 하는 건(없어). 이제 딸감으로.

Q (양성필) : 그러면 이 창고가 이쪽(바깥쪽)에 문이 있고 이쪽(안쪽)으로도 문이 있었마씀?
(평면 자료)

A (박고봉) : 처음에는 이쪽(마루)으로 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바깥쪽)는 없어.

Q (양성필) : 아. 여기는 처음에 문이 없었마씀?

A (박고봉) : 응. 여기는 없어. 모든 것을 하려면 무엇을 들이려고 하면 마루로, 거실로 해서 여기(창고) 들어가서 보고 그랬어. 근데 유리창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깻대니, 뭐니 이거를 여기로 해서 집어들이고.

Q (양성필) : 아. 창으로 해서 집어들이고 간단한 것들은?

A (박고봉) : 응. 창문으로 하고 그랬어요.

Q (양성필) : 아. 이 문(창고 바깥쪽 문) 있는 집들은 나중에 만든 거구나예?

A (박고봉) : 없어. 나중에 일부러 주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Q (양성필) : 삼촌 생각에 이 문은 다들 없어난거 같수과? 이 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 마씀? 다니다 보민.

A (박고봉) : 문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Q (양성필) : 지금 여기도 보면 (사진 자료_파란 지붕 테쉬폰) 이 문이.

A (박고봉) : 이건 부엌문인 것 같은데?

Q (양성필) : 부엌문은 한쪽으로 하거든마씀. 앞에 방이 있어 버리니까. 이 가운데 난 것은 그 문이라마씀.

A (박고봉) : 지금 여기 이쪽이 현관이죠.

Q (양성필) : 그쪽인가. 어쨌거나 문이 이 가운데로 나 있으면 이 창고로 가는 문이라마씀. 부엌에 가는 문은 옆으로 뚫어져요. 가운데가 아니고.

A (박고봉) : 한가운데요. 이것(그림에서 문 우측)이 방이 되고, 이거는 나는 문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방을 들이면서 돌도 해야 되고 운반하고 해야 해서 여기 일부로 이제

나는 문을 냈어요. 아마 유리창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딱 천장까지 가로막았더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 벽들(마루 우측)도 지붕, 여기 마루에 올리려다 보니까 전부 다 틈새가 벌렁벌렁하니 위험해요.

Q (양성필) : 그러면 선생님 집 말고 다른 집 한 번 봐보게마썸. 이건 우유부단 앞에 있는 집 이거든예. 우유부단 앞에. 직원 숙소로 썼다고 하더라고예? 양돈하는 직원인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예. 같이 이렇게 입구 두 개가 있고. 여기는 거실일거라예?. 거실이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션마썸?

A (박고봉) : 여기 보면 배 선실에 선원들 해군들 보면 2층으로 되어있는 침실 있죠? 다 그런 형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놔더라고요.

Q (양성필) : 아, 방이 2층 침대 같은 식으로.

A (박고봉) : 2층 침대로.

Q (양성필) : 한쪽에 2명이나 4명 사는거마썸?

A (박고봉) : 4명이 살게 되고.

Q (양성필) : 네명이서? 이 한쪽에서? 그러면 총 여덟 명이 살겠네. (김승석 : 그러면 침대를 이렇게 놓았겠네. 11자로) 아니면 일자로 두 개씩을 놓거나.

A (박고봉) : 반 층 있고 2층 있으니까.

Q (양성필) : 여기엔 문이 있어부니까. 어쨌거나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명씩 살게 되어있었다는…?

A (박고봉) : 네 명씩 살게 되어있었어요.

Q (양성필) : 이 부엌에서 밥을 해 먹언마썸?

A (박고봉) : 이 공간(거실 구석)에서. 그때는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서 겨울에 연탄도 피우고 이 자리에서(두 세대의 사이). 이 자리가 연탄 피운 자리구면.

Q (양성필) : 네. 이게 굴뚝이고. 여기(거실)도 난방되나신가마썸?

A (박고봉) : 난방은 그런 건 전혀 없고.

Q (양성필) : 여기(침실)는 난방 되고?

A (박고봉) : 여기는 이제 연탄난로 이거 해서 연통은 어디 걷어다가 빼고는. 겨울에 건디게끔 겨울에 그렇게 살았어.

Q (양성필) : 연탄은 부엌에서 뚝 거 아니마썸?

A (박고봉) : 아니. 부엌 없어.

Q (양성필) : 아, 우유부단에 여기 부엌 없어마썸?

A (박고봉) : 응. 여기 테쉬폰도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 직원 숙소도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우리처럼 두 세대가 양쪽에 이렇게 보면(사진) 두 세대가 양쪽에 살게 되어 있어. 또 어떤 집은 독신들만 살기 위해서. 이 4명이 2층으로 침대를 만들고 살

게 만들어 놓고. 두 가지가 있었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는 공간이 양쪽에. 두 세대.

Q (양성필) : 이것은 부부가 사는 두 세대 같지예? 우유부단 앞에 있는 것.

A (박고봉) : 응.

Q (양성필) : 그러면 이걸 부엌 있는 테쉬폰이고. 이거는 지금 젊음의 집 안쪽으로 가면. 지금 후문 있는 쪽.

A (박고봉) : 아 저기 동산에?

Q (양성필) : 네. 아 지금 두 개 다 동산에 있는데….

A (박고봉) : 계단 올라가지요? 돌계단 올라가지요?

Q (양성필) : 네네. 거기 있는 테쉬폰인데.

A (박고봉) : 그게 제일로 썩썩할 거예요.

Q (양성필) : 여기는 누가 살안마썩?

A (박고봉) : 김봉원씨라고 목장장 그때 당시.

Q (양성필) : 목장장 가족만 산건가마썩?

A (박고봉) : 네.

Q (양성필) : 근데 이것을 목장장이 살다가 직원들 숙소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수과?

A (박고봉) : 이 양반이 여기서 살면서도 또 동생이 옆방에서 살았어요.

Q (양성필) : 이 집에 놀러 간 적 있수과?

A (박고봉) : 이 집에 흔히 갔지요.

Q (양성필) :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제가 많이 헛갈린 게. 여기 현관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다른 집하고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고예. 마루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 막아전예. 여기 마루는 작고, 이걸 길게 되어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창이 두 개가 있거든예? 근데 여기는 문 같은 창라마썩. 보기에 문처럼.

A (박고봉) : 이거 아마 집이 이것(사진에서 좌측)이 앞이로구나. 여기 오른쪽이 동생이 살았고 저 뒷면이 목장장 김봉원씨가 살았었어요.

Q (양성필) : 아. 그럼 여기 뒤에가 목장장. 여기가 동생.

A (박고봉) : 여기가 공터가 있어서 여기서 와상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흔히 많이 놀았어요.

Q (양성필) : 이쪽에 수도도 있더라고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 앞에까지 이 앞에 이 방까지 목장장이 이렇게 썼구나예? 뒤에는 동생들이 쓰고.

A (박고봉) : 네. 꽤 됐고 그러니까 아마 집 개조되었을 거예요.

Q (양성필) :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진은 없는데 이걸 저 젊음의 집이 있으면. 오름 뒤로 이렇게 가면 물통이 하나 있거든예? 그 정물오름 들어가는

물통.

A (박고봉) : 네, 저수지.

Q (양성필) : 저수지까지는 아니고. 정물오름 올라가젠 하민 이쪽에 물통이 하나 있어마썸. 물통 길로 쪽 가면...

A (박고봉) : 아 그 동산에 말입니까? 동산이에요.

Q (양성필) : 네. 동산일 건데. 쪽 가다 보면 여기 후문 같은 게, 옛날에 후문 같은 게 있었고. 그 옆에 보면 언덕배기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들은 말로는 이제 이 집이 px로 쓴 테쉬폰이라고 들었거든마썸?

A (박고봉) : 이 집은 저장조가요.

Q (양성필) : 앞에 막 돈사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A (박고봉) : 네. 이 물이 계속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깐 계속 모아서 이 물을 아침에는 물을 기를 시간에 고루고루 나오게 하도 싸워 싸니까, 물 때문에 싸워 싸니까. 물 저장조를 만들어서...

Q (양성필) : 아 동산 위에 있는 거기.

A (박고봉) : 네. 저장조가 그거예요. 맨날 나오던 곳만 하면 나오던 데만 나오고 안 나온 데는 안 나오니까 맨날 관리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단을 없애려고 물을 맨날 이 바로 뒤에 이 9, 10, 11. 거기서 내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Q (양성필) : 저장조 밑으로 조금 더 가면 테쉬폰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A (박고봉) : 지금도 남아있어요?

Q (양성필) :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마썸. 가면 입구가 두 개 있고 이쪽은 좀 뺨 뚫어져 있고.

A (박고봉) : 아 바로 정물 그 물 나는 쪽에.

Q (양성필) : 네. 물 나는 쪽을 지나가고.

A (박고봉) : 몰라, 나는. 물도 79년도에 나와불고. 갈 일이 없으니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Q (양성필) : 그러니까 그게 후문 쪽에 있는 px로 썼던 테쉬폰 같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예?

A (박고봉) : 그건 여기 와야 할 이기선 씨라고 그 양반이 이 집에서 살았어요.

Q (양성필) :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저장조. 이 물은 어디로 공급되는 거마썸? 저장했다가?

A (박고봉) : 그러니까 정물 산에서 옛날 제일 훈련소 시절에 쓰던 물이 지금도 엄청나게 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품어서 여기도 올리고. 또 이 안에 돈사들이 많으니깐 거기도 공급해주고. 그래요.

Q (양성필) : 지금은 안 쓰는 거잖아예?

- A (박고봉): 네. 이제는 짐승도 없고 보니까.
- Q (양성필): 이거는 세레나 목장이니까 세레나 선생님께 들으면 될 거고.
- A (박고봉): 세레나 목장의 테쉬폰(자료)도 있습니까?
- Q (양성필): 네. 여기마썸.
- A (박고봉): 그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나는.
- Q (양성필): 아 그래요?
- A (박고봉): 네.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봤어. 그 뼈다귀 이렇게 삼나무 이렇게 잘 자란 거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대마냥 휘어지거든. 그래서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가마니를 이렇게 이제 세갈(서까래) 마냥 계속 세우다 보니까 여기다가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하니까 테쉬폰 이렇게 파도처럼 나오더라고요.
- Q (양성필): 네. 삼나무 두 개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다른 집보다 좀 큰 것 같아예.
- A (박고봉): 조금 넓게 보이죠. 몰라. 알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 Q (양성필): 아니, 실제로 좀 넓은 것 같아마썸.
- A (박고봉): 아 그래요? 공사하는 것만 구경하고 뭐.
- Q (양성필): 네, 알겠습니다.
- A (박고봉): 근데 우리가 살던 테쉬폰이 철근을 좀 제대로 넣고. 벌어지지만 않았으면 뭐 그런대로 살 만도 하겠는데 말 그대로 조각조각 벌어져 가지고 이제 풍 빠진 날에는 밑에서 안 나가. 죽을까 겁이 나서 비올 때쯤 잠을 못 자요.
- Q (양성필): 그게 제일 혹시 무너질까 봐 그게 제일….
- A (박고봉): 네. 무너질까 봐.
- Q (양성필): 혹시 살고 계신 동안 그런 사고나 그런 건 없었죠?
- A (박고봉):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하늘을 쳐다보면 뻥 뚫어져가지고 있는데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저기 뭐 좋은 접착제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거, 뭐냐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요즘 뭐 구멍 메우는 재료들 많지 않아요? 이거를 싸서 예를 들면 위에다가 곱게 해놓고 페인트칠해 버리면 단단할 건데,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김승석: 아. 이 파란색이 방수페인트구나. 지금으로 보면.) 아마 이거 지금 파란 것도 비가 하도 새서 몇 번 칠한… 페인트 가지고 칠한….
- Q (김승석): 페인트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물탈은 두께가 두꺼워 가지고.
- A (박고봉): 우리가 이 개간 농장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도 돌아가셨지만은, 하여튼 60년 중반부터 70년 중반까지 제일로 고생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 Q (양성필): 처음 지었을 때 살았던 분 있었으면 그것만 몇 가지만….
- A (박고봉): 누구요?
- Q (양성필): 아니 이 집을, 테쉬폰 처음 지었을 때.

- A (박고봉) : 아, 처음 지었을 때, 우리가 왔을 때는요, 그 분들이 없습디다.
- Q (김승석) : 그러게. 그 분들이 있었으면….
- A (박고봉) : 2~3년 만에 다들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 Q (양성필) : 저는 재밌는 게 길 낼 때 서로 안 나오면 벌금 식으로 일당 5만 원씩 냈다고 했잖아예? 그니까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길을 내자고 마음먹었는지.
- A (박고봉) : 그때 우리 마을에도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고 그랬어요.
- Q (양성필) : 마을 이름은 뭐랜한 마썸? 여기 마을 이름을.
- A (박고봉) : 우리 마을을 개척 농가로 그냥 불렀어요. 개인 농장 이렇게 불렀는데, 길을 이제 저쪽에 내버리고 우리 임신부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개인 농장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해야 되겠는데 길이 없으니까. 자기 뜻이 좌절된 것 같으니까. 그냥 외국에서 자갈 췌는 기계 들고, 또 굵은 대형 트랙터 갖다가 돌맹이 실어서 운반하게 만들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순 힘으로만 지원한 거예요.
- Q (양성필) : 그러면 여기에 길을 만들자 이거를 처음에 제시한 건 맥그린치 신부가?
- A (박고봉) : 신부님은 길을 내야 한다고 뜻은 있었지만, 우리가 돈 없는 것을 임신부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힘으로 고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시돌에 있는 기계를 우리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 Q (양성필) : 그니까 그거를 마을 대표한테 제안을 했마썸?
- A (박고봉) :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마다 회의하다시피 합니다.
- Q (양성필) : 회의를 저녁마다 했던건가마썸?
- A (박고봉) : 네. 그리고 이제 새참을 돌일 하다보면 배가 고파서 그냥 들어가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국수도 삶아 온 집도 있고, 고구마도 삶아 온 집 있고, 지슬도 삶아 먹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참씩 먹고 또 일 시작하고.
- Q (박고봉) : 그러면 그때 무슨 약간 생각나는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은 없었마썸?
- A (박고봉) : 규정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 Q (양성필) : 그냥 오늘은 1호가 새참 했으니까 내일은 2호. 너네가 새참 가져와라. 이런 식?)
- A (박고봉) : 그것도 이제 얻어먹다 보면 자기도 먹는 놈은 양심이 있으니까 사다가 삶아 들고 나오고 그랬어요.
- Q (양성필) : 그러니까 특별한 규칙은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 A (박고봉) : 네.
- Q (양성필) : 그리고 경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했마썸?
- A (박고봉) : 그때는 참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놓고 이거 뭐 그

려면 그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경조사고 하다 보면 내 집 일은 제쳐두고 거기 가서 눌러 붙어서 일 끝날 때까지. 그니까 마을에 못 와도 한, 한 집에 한 두 명씩은 꼭 일이 있어야 하는 집에 가서 붙어서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좋았어요.

Q (양성필) : 그러면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다. 누구 애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가 가지고…

A (박고봉) : 네, 백퍼센트. 지금처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없어요. (김승석 : 삼일동안 내내 이제)

Q (양성필) : 잔치 한 3일 해요?

A (박고봉) : 네. 그리고 내 일처럼 그냥. 꿈수도 안 부리고. 그니까 일이 됐지.

Q (양성필) : 그게 14호까지 그러신 거마썬? 아니면 24호 전체가…?

A (박고봉) : 이 주위에도 몇 집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길을 하던 데는 별로 부역을 안 했어요. 우리 놓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오니까.

Q(양성필) : 그러니까 서로 잘 뭉쳐지고 하는 거는 길 만든 열네 집?

A (박고봉) : 열네 집.

Q (양성필) : 열네 집이 그러셨구나.

A (박고봉) : 나머지 이 주위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 길 하는 데 동참을 안 했어요.

Q (양성필) : 그분들은 약간 따로 하시고.

A (박고봉) : 네. 그 사람들한테는 오늘 안 나오니까 5만 원 내놓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Q (양성필) : 말도 못 했고. 그러면 요 정기적인 어떤 모임 같은 것은 없었수과? 14호 끼리.

A (박고봉) : 저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으니까 무슨 관에서 무슨 지시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또 모여서 막걸리도 한 잔 사다가 먹고 재밌게 놀고 또 그날 저녁에 화투도 잘 치는 사람은 화투도 한 번씩 치고. 그때가 사람 사는 재미가 났어요. 그렇게 일이 고달파도. 근데 지금은. 사람 사는 맛은 하나도 없어.

Q (양성필) : 요새는 그런 모임은 별로 없수과?

A (박고봉) : 없어요.

Q (양성필) : 아. 지금은 별로 없고.

A (박고봉) : 텔레비 앞에, 텔레비가 다 되는 것이여.

박용근 님 인터뷰

날짜 : 2020년 08월 19일 워크샵

.....
질문자 : 이용규

답변자 : 박용근
.....

Q (이용규) : 그때 도와주셔가지구요.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척농가 사실 때 생활상이나 이런 것도 여쭙보고... 저희가 몇 개 남아있는 테쉬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가 우유부단 옆에... 이거는 혹시 몇 호인지 아십니까?

A (박용근) : 여기요?

Q (이용규) : 네 여기에도 테쉬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A (박용근) : 여기에 테쉬폰이 없는데?

Q (이용규) : 아. 여기 지금 하나 있습니다.

A (박용근) : 아. 이거 17호.

Q (이용규) : 아. 이거 17호입니까?

A (박용근) : 여기 나만호 살던 데구나? 나만호씨라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Q (이용규) : 그 집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남아있고... 어디셨죠?

A (박용근) : 9호.

Q (이용규) : 1 2 3 4 5 6 7 8 9... 여기신거죠? 여기서부터가 1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 (박용근) : 저분이 4호.

Q (이용규) : 아. 4호 사셨고요? 근데 이게 테쉬폰이 다 평면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A (박용근) : 여기는 같을 거예요. 안에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변경된 게 있을지 몰라도.

Q (이용규) : 이거 지금 남은 것도 평면이 이렇게 생겨서.

A (박용근) : 이게 아직 건물이 있어요?

Q (이용규) : 네 아직 있습니다. 저기 조사했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젊음의 집 앞에 있는...

A (박용근) : 김봉원이라고 있어 옛날에 목장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시돌 목장장 하던 사람. 그 분이 거기서 살다가.

Q (이용규) : 그 분은 개척 농가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신 거죠?

- A (박용근): 예예. 개척농장 저기 이시돌 목장 직원 목장장인. 이 앞에 또 하나 있는데?
- Q (이용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14호인가요?
- A (박용근): 이게 14호.
- Q (이용규): 15호는 어디 있었습니까?
- A (박용근): 15호는 금악 마을에 있었어요.
- Q (이용규): 근데 왜 개는 금악 마을에 있었죠?
- A (박용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여기다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걸로. 그래서 분양한 거고. 그거는 원래 금악 사람이니까. 나는 내 땅에다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다 보면 동물약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16호가 지금 영보 목장이라고 있는데 영보 목장 자리가 16호 자리. 그거는 중국 사람이 살았었어요.
- Q (이용규): 중국 사람이요?
- A (박용근): 네. 이게 17호.
- Q (이용규): 이게 영보 목장인가요? 여기가 세미소구요...
- A (박용근): 이거, 이거. 지금은 전체가 말 키우는 목장으로 됐고.
- Q (이용규): 여기는 중국분이 사셨고요...
- A (박용근): 여기가 15호. 영보 목장이 16호. 15호 여기도 테쉬폰이 하나 있었어요.
- Q (이용규): 여기가 세미소구요.
- A (박용근): 여기 요 썸에... 15호, 16호, 17호. 그리고 금악이 20호인가 그랬을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게... 15, 16, 17, 18, 19, 20.. 아마 금악이...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금악이 20호인가?
- Q (이용규): 18호는 어디 있었습니까?
- A (박용근): 이걸 여기 안 나와요. 저기니까.
- Q (이용규): 아... 동광 쪽에 있었습니까?
- A (박용근): 아. 동광쪽이 아니고 이게 서귀포 가는 길.
- Q (이용규): 여기가 평화로구요... 이게... 축산단지구요.
- A (박용근): 이게... 서귀포 동광 가는 길. 네, 그죠? 여기가 그 로터리고... 요게 한... 아이구, 헛갈리네... 지금 요게 한림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분뇨 처리장이 있어요. 그 앞쪽으로 거기도 있었고.. 지금은 다 헐어 버렸지만은... 거기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요 로타리에서 여기도 하나 있었고.
- Q (이용규): 이따가 저거. 큰 지도 보면서 그때 한번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죠.
- A (박용근): 지금은 없어졌으니깐...
- Q (이용규): 그러면 처음에 그 24호가 다 분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서 분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서 분양이

된 건가요?

A (박용근) : 아니 한꺼번에 됐어요. 여기도 한꺼번에 하고 14개 뿐 아니라 금악까지...

Q (이용규) : 23호까지요? 같이 지어졌나요?

A (박용근) : 동시에 그건 시작을 했어요. 그건. 처음에는.

Q (이용규) : 24호만 세레나 목장만 나중에.

A (박용근) : 네. 세레나 목장은 나중에...

Q (이용규) : 그러면 여기 마을에 갖고 계시는 분은 20호 분은 이분은 농장을 분양받으신 건 아닌 거죠?

A (박용근) : 농장은 아마 자기 땅으로... 집만 짓고. 땅은 없었으니까. 분양한 땅은 없었으니까.

Q (이용규) : 처음에 사실 때 이렇게 집이 생기셨었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창문 있고 여기는 뭘로 쓰셨습니까?

A (박용근) : 그냥 마루. 마루.

Q (이용규) : 아 진짜 마루로 되어있었습니까? 나무로? 신발은 여기서 벗으시고요? 여기는 현관이었네요?

A (박용근) : 네 현관.

Q (이용규) : 이 방은 뭘로 쓰셨습니까?

A (박용근) : 방이 두 개 됐으니까.

Q (이용규) : 네. 이 방은 뭘로 쓰셨습니까?

A (박용근) : 아. 그거야 뭐. 안방. 안방으로 저쪽에 방 하나 해서. 여긴 부엌.

Q (이용규) : 여기는 부엌으로 쓰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쓰셨어요?

A (박용근) : 그냥 집 안에 창고로. 그냥 뭐. 원래 여기는 화장실로 했었는데 화장실 여기다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야. 아마.

Q (이용규) : 원래는 여기 화장실이었나요?

A (박용근) : 처음엔 화장실이다 했는데 급하니까 공사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가니까 화장실 집안에 안 했지. 한 집이 아마 없을거야. 다 임시로 밖에다 이렇게. 가건물로 이렇게 했지. 가건물이건 뭐건 간에.

Q (이용규) : 아. 그럼 여기는 뭘로.

A (박용근) : 여기도 창고... 그러니까 이거 같이 뭐 따로 용도를 구분할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Q (이용규) : 그럼 세면하시고 목욕하시고 씻고 하는건 어디서.

A (박용근) : 부엌에서 뭐하고 뭐. 따로.

Q (이용규) : 아. 부엌에서 물 데워서 쓰시고요?

A (박용근) : 뭐 그랬지. 글썄 뭐. 그때 목욕이고 뭐고 뭐 따로 뭐. 일하다가 씻고 자고 그냥 그거지.

Q (이용규) : 그냥 창고로 쓰셨네요?

A (박용근) : 네. 창고로 그냥.

Q (이용규) : 여기에 문이 달린 이유는 바깥쪽에서도 쓰시는 거고. 안에서 들어와서 쓰시나요?

A (박용근) : 예. 여기. 문 여기 뭐 막은 집도 있고 뭐 그럴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서 뭐 짓소 새끼 송아지 키워서 내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따로 창고다 이것도 아니고.

Q (이용규) : 다용도로 쓰셨구나. 요 방은 뭐로 쓰셨습니까?

A (박용근) : 작은방.

Q (이용규) : 애들 방으로 쓰시구요? 처음에 결혼하고 처음 들어 오셨을 때는 가정이 어떻게 되셨어요?

A (박용근) : 처음에야...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있다가. 나는 서울 올라가서 결혼하고서는 애는 데리고 내려온 것이 73년도.

Q (이용규) : 73년도에는 부모님... 안 계시고.

A (박용근) : 그때는 이거 안 쓰고. 그 앞에 나는 돌집 새로 해 가지고 거기로. 거기서. 처음엔 조금 살았죠, 여기서.

Q (이용규) : 여기 사신게 몇 년부터예요?

A (박용근) : 63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한창 이거 오니까 기초만 있었어요. 그니까 그담엔 지으면서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67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예... 73년도에 내려왔으니까.

Q (이용규) : 그때까지 요 4년 동안 계실 때 요 방을 쓰신 건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A (박용근) : 흠... 아버지 어머님하고 여기서 아마 잤겠지요. 뭐.

Q (이용규) : 여기에 굴뚝이 있는데 혹시 그때 난방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A (박용근) : 여기에 구들. 부엌이니까 여기서 때 와서 이렇게 나가게.

Q (이용규) : 여기에 뭐 저기 뺏치가 있고 그럴지는 않았나요? 여기서 땀 게 여기로 해서 굴뚝으로 이렇게 갔나요?

A (박용근) :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Q (이용규) : 아, 여기도 하나 더 있었고요?

A (박용근) : 응응. 이 방 것은.

Q (이용규) : 불을 여기서 넣으시면 이리로 가고 여기서 넣으시면 이리로 가고. 이걸 처음부터 다 있었나요? 두 개가 다?

A (박용근) : 이걸 동그런 거 그걸로 그냥 했으니까. 뭐... 이거는 위에 벽돌 조금 싸가지고선.

- Q (이용규) :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러면은 그 돌집을 쌓으신 거는 몇 년도에 쌓으신거예요?
- A (박용근) : 그건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아버님이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는 내려와서... 살았나? 하여튼 다 완전히 완공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래서 들어와서 살았지.
- Q (이용규) : 여기 옆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는 뭐로 쓰셨습니까?
- A (박용근) : 그냥 창고예요. 창고.
- Q (이용규) : 돼지 키운 건 아니시고요?
- A (박용근) : 그런 건 아니고 이게 18평이고 이게 10평이었어요. 창고가 더 컸었어요. 근데 그 때 이게 너무 크니까 스판이 기니까 돌담을 좀 받혀주느라고 두 군데 나중에 쌓았을 거예요. 전부 다 나중에 협회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협회에서 지원 해가지고 높이는 안 쌓고 테쉬폰 그 둥그런데 있잖아요. 가운데는 통로 내놓고 그래서 창고로 쓰고 나중에 한 73년도에 내려와서 거기서 소도 키웠어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 Q (이용규) : 여기 보니까... 이런 그 하나 남아 있는게 있는데. 요게 자꾸... 어떻게 남아있을까. 구멍을... 여기가 10번이나 11번? 12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창고가 하나 남아있는데.
- A (박용근) : 12호... 나 13호 되겠는데? 이걸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나도 여기다가 멧강하고 고구마 절반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게 불으니까 그게 멧강하고. 멧강이 불으니까 그게 딱 터졌더라고. 요 정도 밖에 안 되니까...
- Q (이용규) : 멧강이 뭐죠?
- A (박용근) : 보리... 멧, 멧강. 보리 강. 보리. 껍데기 보리껍데기.
- Q (이용규) : 저기 3년 동안 사실 때 덩어나 습하거나 하신건 그런건 어떠셨어요?
- A (박용근) : 추웠죠. 춥고, 여름엔 덥고.
- Q (이용규) : 이거 난방하시는 걸로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전기장판 갖고 오셔서 사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때는 그런거 없으실 때죠?
- A (박용근) : 전기가... 아마 75년도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 Q (이용규) : 선생님 계셨을 때는 전기가 이런 거 없으셨구요?
- A (박용근) : 그쵸. 그 전에는 호롱불 그거.
- Q (이용규) : 그때 가정살이, 살림살이 같은 거는 거의 없으셨겠네요?
- A (박용근) :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뭐 그런 거랑은 생각도 못하고 정말로 그냥 먹고살고 그러는 거지. 정말로 정말로 어려웠어, 이때는.
- Q (이용규) : 물은 그럼 저기 세미소에서 떠가지고 오신 거예요?
- A (박용근) : 세미소가 아니고요... 이거. 논아진 밭...
- Q (이용규) : 아, 올라가서 가져오셨구나.

A (박용근) : 아 이게 금약봉인가? 아 금약봉이구나. 논아진밭. 논 위에 앉았다고 해서 제주 도말로 논아진밭. 논아진밭. 요게... 요쯤 돼요 요쯤. 요 썸에 웅덩이가 있었다 구요. 그물 바가지로 퍼서 가져다 먹고 그러고 조금 이제 이것이 이제 뭐하니까 음... 여기가 또 물이 한군데 있어요. 거기 물 길어다 먹고.

Q (이용규) : 그럼 물을 어떻게, 떠가지고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A (박용근) : 네. 그냥 양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Q (이용규) : 그럼 뭐 화장실은 있었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화장실은 집 밖에다 두셨나요?

A (박용근) : 네 그렇죠. 시골식이죠. 시골식.

Q (이용규) : 특이한 게 길가에 면해서 집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길에 면해서 들어가시게. 바로 길이 있고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길에서 바로 이렇게...

A (박용근) : 그래도 길에서 한 4, 5미터는 떨어져 있었지. 이 현관이.

Q (이용규) : 여기에 창고 있고.

A (박용근) :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Q (이용규) : 길이 있고, 집이 있고, 창고가 있었구요?

A (박용근) : 그건 조금 집마다 달라요. 위치가.

Q (이용규) : 어떤 집은 창고가 없어진 곳도 있더라구요. 집만 남아있고. 그것들은 안 지은 건가요?

A (박용근) : 짓기는 다 지었죠.

Q (이용규) : 아. 그러면 헐리거나, 사라지거나...

A (박용근) :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헐어버린 데가 7호 집에. 화가 나니까 그냥.

Q (이용규) : 더워서요?

A (박용근) : 창고, 창고. 그냥 헐어버리고.

Q (이용규) : 화장실은 만들어 준 게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서 쓰신 건가요?

A (박용근) : 뭐 있어요? 땅 파고, 돌 쌓고. 뭐 새 배어다가 지붕 덮고 뭐.

Q (이용규) : 그러면 주로 주 식생활, 밥은. 밥에 드신건가요? 어떻게, 곡식이나 이런 건...

A (박용근) : 그때는 이게 이 동네에 보리가 안됐어요. 보리가 안 되고 양배추 이렇게 안됐는데 지금은 돼요. 온난화 때문에 그러는건지 하여튼 그전에는 안됐었어요. 고구마하고 감자 무 땅에 들어가는 건 잘됐어요. 고구마가

Q (이용규) : 이게 엄청 넓었잖아요. 이거를 개척하는 게 엄청 힘들지 않으셨나요? 가족으로 다 되셨나요?

A (박용근) : 처음에는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한림에 살면서 이게 걸어도 오고. 뭐 버스로 그 때도 하루에 한 번 다닐까? 버스로 뭐 언덕도 못 올라서 언덕 만나면 사람 내

려서 걸어서 버스가 언덕 올라오면 타고 가고. 그때에 우리가 삼으로 뭐 하루에 한 평도 파고, 한 평 팔 수 있으면 한평 하고, 새 밭이니까 새 뿌리 걸러내고, 하다보면 한 평도 돼요. 그러면은 금약사람들 일로 소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보고 참 한심한 놈들…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시돌 목장에 처음에 트랙터 들어 왔을 때. 내가 이시돌 목장 하면서 개인농장 지원 나와서 트랙터로 개간을 했는데 그때… 그때는 돌 하나만 걸려도 쟁기가 들려서 볼트가 부러지면 볼트 또 갈고. 뭐 하고 하다보면 하루에 갈지도 못해. 돌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개간을 했죠. 개간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 했으니까…

Q (이용규) : 테쉬폰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처음부터 정착해서 들어가서 사시기보다는 한림에서 계시면서…

A (박용근) : 아 왜냐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왔으니까. 한림에 거주지를 정해놓고. 일로 와야 되니까 당시에 테쉬폰이 안됐을 때니까. 63년도에 이제.

Q (이용규) : 테쉬폰이 되고 나서는 아예 거기서 사셨구요.

A (박용근) : 그렇죠 뭐. 그리고 몇 년도인가 몰라… 그리고 테쉬폰 되기도 전에는요 내 경우에는 우리하고 옆집의 경우에는 돌로 움막을 짓고 해놓고 거기서 그냥 자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던 애가 지지난번에 해병대 사령관 됐지.

Q (이용규) :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A (박용근) : 김인식이라고… 해병대 사령관… 직전인가? 아니 직전은 넘었어요. 해병대 사령관 관두니까 우리 동네 와서 자기 제대했다고… 허허

Q (이용규) : 테쉬폰은 그러면 나중에 사시다가 아버님이 돌집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제 테쉬폰은 좀 불편해서 그러신 거죠?

A (박용근) : 아이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주거 형태로는 좀 안 맞았어요. 신부님께서서는 좋다. 좋다 하셨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Q (이용규) : 머리도 부딪히시고, 걸로도…

A (박용근) : 머리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가구도 가구 놓으면은 갑자기 좁아지고.

Q (이용규) : 여기에 가구 어떤 거 놓으셨습니까?

A (박용근) : 그때 뭐 가구랄게 있어요? 조그만 거 이런 거. 그냥 퀘 이런 거. 그것도 휘니까. 공간.

Q (이용규) : 마루에는 어떤 가구 쓰셨습니까? 방석 같은 거 쓰셨나요? 앉아서 생활하신 거죠?

A (박용근) : 그랬죠.

Q (이용규) : 침대 이런 거 아니고 이불 펴서 사시고. 연료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A (박용근) : 음. 풀 베다가. 나무도 없잖아요. 육지 같으면 나뭇가지라도 꺾어다 쓰겠지만은… 여기는 전부 다 풀로. 밭도 풀로. 나무가 없었으니까. 지금 저거 나중에 심

은 건 저렇게 컸지만.

Q (이용규): 지금 이렇게 나무 심으신 건 나중에 다 심으신 거죠?

A (박용근): 그때 이 정부에서 속성수 라고 해서 삼나무를 준거예요. 삼나무를 심으라고. 묘목 주고 하니까 심었던 거죠.

Q (이용규): 혹시 사시면서 고치거나 이러신 건 없으셨나요?

A (박용근): 테쉬폰이요?

Q (이용규): 네네

A (박용근): 그냥 안에 뭐. 여긴 벽돌 쌓여있고. 이렇게. 이건 문이지만 블록으로 쌓고 여기도 블록으로 싸져 있으니까. 그 다음엔 뭐...

Q (이용규): 비 새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빗물이 새거나.

A (박용근): 썸쵸.

Q (이용규): 테쉬폰 이거 공영건설에서 지었잖아요. 이제 제가 궁금한게 이게 먼저 여기가 먼저 건물이 생기고. 이시돌 목장에 롱테쉬폰하고요. 더블테쉬폰. 그게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오셨을 때 여기가 먼저...

A (박용근): 내가 서울 갔다 오니까 여기는. 뭐. 돈사야, 돈사. 저기 직원 숙소는 이거 두개. 여기 일곱 개 있고. 직원 숙소 여기에 있었고... 뒷 쪽에도, 저기도.

Q (이용규): 여기 롱테쉬폰 있었고. 긴 거.

A (박용근): 이게 다 돈사. 돈사는 규모가 엄청 작고.

Q (이용규): 여기가 아까 전에 목장장 숙소라고 하신거고. 그리고 여기 로타리에 있는 건 교환소라고 하거든요. 교환소에도 사람이 사셨나요?

A (박용근): 아니. 안 살았어. 그리고 이 뒤에 테쉬폰이 하나 있었어요. 그 김부연씨가 살던 데가 여기잖아요.

Q (이용규): 여기가 후문에 있던 테쉬폰이구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평화로에서 내려오는 길이구요.

A (박용근): 우유부단이 어디예요? 우유부단 앞에 테쉬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테쉬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살던 분이 오늘 오려고 했었다가. 뭐하다가 이분이 또 개척농장으로 가셨는데

Q (이용규): 같이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A (박용근): 손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엇그저께 또 약속을 했거든요.

Q (이용규): 개척 농가 지으실 때 공영건설에서 지으셨잖아요? 이제 다 공영건설 분들은. 왜냐면 공영건설이 서울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서울에서 왔을리는 없고... 제주도분들이 와서 지으셨을까요?

A (박용근): 이 부분만 제주도 사람들 금악 마을 사람들이 했고...

Q (이용규): 기술 관리 감독은...

A (박용근) : 기술 뭐 현장 소장 있었을 테고, 그 밑에 감독들 뭐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육지 사람들 데리고 왔었어요.

Q (이용규) : 아 직원들요?

A (박용근) : 직원. 그것도 뭐, 그냥 일하는. 근데 목수라던가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분들이 금악 마을에 집 얻어가지고 살던 게 기억나거든?

Q (이용규) : 아, 그 분들이 이제 시공도 하시구요. 이거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오셨었어요? 이땐 안 계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A (박용근) : 이거 공영이 한건가? 우리 동네는 공영이 한 걸로 아는데.

Q (이용규) : 이게 공영에서 시공을 했는데... 왜, 저는 제주도 집들은 옴팡지게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테쉬폰들은 길가에 집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있고 바로 집이 있는게.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보통 마당이 앞에 있고 집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길가에 바짝 집이 있었을까...

A (박용근) : 마당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무슨 뭐... 그니까 거기다 이제 정원 마냥 꽃도 심고 그랬었지.

Q (이용규) : 서양식 집의 어떤 개념인 것 같아서...

A (박용근) : 앞마당 둔 것이요?

Q (이용규) : 아.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저희가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시돌목장은 집이 이렇게 있고 테쉬폰이 있고 창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테쉬폰은 창고가 앞에 있고 집이 뒤에 있습니다.

A (박용근) : 아마 이걸 그때 그때 봐서 지형 보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무슨 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Q (이용규) : 그러면 마당이 앞에 있는게 더 편했을 것 같은데... 혹시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신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시공을 이렇게...

A (박용근) : 저는 내려오니까 기초가 다 되어있더라니까? 기초가 가장...

Q (이용규) : 줄기초가 이렇게 있었고...

A (박용근) : 그때 공영이 망하는 때예요. 그니까 기초만 해놓고 이것까지는 하다가 나갔나? 뭐 아마 막 공영도 상태가 안 좋았을 때예요. 월남... 뭐 하다가 이렇게 그런 말이 들리고 했으니까...

Q (이용규) : 그 맥그린치 신부님이 공영이 제대로 못해서 화가 나셨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전에.

A (박용근) : 공영 사장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여튼 뭐 월남 뭐 그래서 그때 말 안 좋아서... 그때 보니까 기초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 Q (이용규): 혹시 그 저기 이시돌 목장 말고 금악 말고 월평이나 선흥에서도 개척농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하고 교류나 이런건 없으셨나요?
- A (박용근): 그때는 다 걸어 다녀야 할 때고 그러니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지...
- Q (이용규): 월평이나 선흥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 A (박용근): 응. 교육은 여기 와서 받았지. 돼지 교육이지 돼지 교육.
- Q (이용규): 네, 네. 같이 교육받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야기 나누거나.
- A (박용근): 그런게 뭐 있었어도 교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
- Q (이용규): 그 선흥하고 월평하고 어디가 일곱개 단지가 있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오라에도 있었고... 다른데도 개척 농가.
- A (박용근): 서귀포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Q (이용규): 서귀포요?
- A (박용근): 응... 그리고 음... 요게 평화로. 아니 평화로 지금 바로 붙어. 거기도 테쉬폰 있었어.
- Q (이용규): 이런 식으로요? 일자로요?
- A (박용근): 응... 아, 아니. 개인농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갠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 Q (이용규):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왜 이런 데는 잘라서 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왜 못생긴 땅 그냥 있는 땅 그대로 했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 A (박용근): 이거는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개간을 한 거지.
- Q (이용규): 여기 개간이 되어 있었나요?
- A (박용근): 나름대로 개간 다 했지요.
- Q (이용규): 여기는 개간이 되어 있던 건가요?
- A (박용근): 개간해서 다 농사짓고 하던...
- Q (이용규): 이미 (개간)하던 땅이었고?
- A (박용근): 분양할 때는 몰라. 하여튼...
- Q (이용규): 궁금한 게 애는 1호부터 13호까지는 반듯하게 잘라서 분양을 했는데...
- A (박용근): 이거는 그냥 몇 개 분양하기 위해서 가른 거고. 뒤에 이런 데는 그냥 생긴 대로 지적 상의...그냥 이거 몇 호, 몇 호 이런 식으로.
- Q (이용규): 그럼 애는 큰 땅이라서 잘라서 이렇게 한 거고.
- A (박용근): 아마 이렇게 땅을 사게 되니까 여기 해서 개척 농가 몇 호 만들자 해서 자르자...
- Q (이용규): 근데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 A (박용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달라요. 집, 집마다.
- Q (이용규): 가격은... 그러면 똑같았나요? 달리 하셨나요?

A (박용근) : 평당 얼마지.

Q (이용규) : 면적으로 따져서?

A (박용근) : 평당 7원인가 뭔가... 네. 그래가지고.

Q (이용규) : 결국은 24호는 나중에 생겼고, 처음에 23호까지 생겼고.

A (박용근) : 그렇죠. 24호도 그냥 가르지 않고 생긴 대로 그냥 지적상에...

Q (이용규) : 그럼 월평이나 뭐 어음이나 서귀포나 선흘이나 이런 곳도 개척 농가 생긴 것과 비슷하게 생긴 건가요?

A (박용근) :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땅 구획한 땅을 몇호 까지 만들자 하면은... 그때도 이렇게 하고 했을거예요. 여기는 많이 하니까 가른 거고. 그러니까. 월평도 선흘, 이런데 무슨 교육 있으면 와서 만나고 한 적은 있어도 그것도 뭐 대표들끼리는 뭐 하고 이런거지. 그냥 입주자들은 뭐 없어.

Q (이용규) : 여기에 대표가 있으셨나요?

A (박용근) : 있었죠. 그러니까 개척 농가 대표.

Q (이용규) : 몇 호가 하셨나요?

A (박용근) : 그것도 다 돌아가면서...

Q (이용규) : 왜 여기에 무슨 동네마다 향약이나 계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뭐 물은 어떻게 하나...

A (박용근) : 뭐 그런 것이 있었다 해도... 없어졌을거고. 또, 뭐 하면은 먹고 살기 바쁘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술이나 먹고 화투나 치고 그냥 이 정도지.

Q (이용규) : 왕래가 있고 그러지는 않으셨구요?

A (박용근) : 그래도 그때는, 테레비 나오기 전에는... 자주 모였어요. 술도 자주 먹고 했는데 테레비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놀았지.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하나래도 금이 이렇게 가면 여기는 몇호, 여기는 몇 호...

Q (이용규) : 이 건너편에는 한 동 있었던 거죠?

A (박용근) : 어. 14호.

Q (이용규) : 그런데 여기에도 테쉬폰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저기 블랙스톤 그 골프장 있는 곳이거든요. 15, 16, 17.

A (박용근) : 에 그러니까 16호 17, 18호... 19호 금악이 20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Q (이용규) : 여기 한 3개가 있더라구요.

A (박용근) : 여기 두 개는 개인농장이 있었고...

Q (이용규) : 개인 농장이 개척 농가가 아닌가요?

A (박용근) : 개척 농가가 개인 농장.

Q (이용규) : 개척 농가인거죠?

A (박용근): 네. 개척이라고 하니깐... 끝까지 개척이라 뭐 하니까. 그냥 개인농장. 결국은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하니까 인디비듀얼 개인농장. 원래 개척... 디벨롭먼트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Q (이용규): 여기 계시면서 직원 숙소가... 여기서는 시설 쪽에 계셨나요?

A (박용근): 그거는 나중에 내가 서울 가서 73년도에 내려와서 여기 목장에 건축 담당을 다했죠...

Q (이용규): 저희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여쭙봐 가지고... 이 정도만 여쭙보고 싶구요. 이따가 저희 큰 사진 놓고 위치라던지, 저희가 옛날 사진들 준비 했습니다. 혹시 기억 나는 거 있으시면 그것만 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과자도 좀 드시고 십 분 정도만 잠시 쉬셨다가. 잠시 쉬겠습니다.

A (박용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들어온 사람이에요.

Q (이용규): 아. 교대가 되셨구나.

A (박용근): 그러니까 개간 안 했었을 때, 다른 사람 거를 인수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테쉬폰에서 살았지.

Q (이용규): 중간에 팔고 나가신 분들도 계셨나요?

A (박용근): 다 팔고 나갔죠. 다 팔고 나가고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소만 그냥...

Q (이용규): 테쉬폰에서도 보통 그렇게 오래는 안 사셨겠네요. 집 짓고 하시니까.

A (박용근): 83년도? 84년도? 그때는 주택자금인가 뭔가 나와 가지고 집들을 지었지요. 지었는데 나는 자금도 안 받고 난 그냥 여기다가 집 안 짓고 시에다 집을 하나 샀지요. 나는 시로 나가고, 시로 나가지도 않았지요.

Q (이용규): 이런 이 유형대로 했던 거는 직원 숙소로 쓰신 거죠? 직원 숙소에는 같이 사시는 건가요?

A (박용근): 세대가 다르지.

Q (이용규): 세대는 다른데 이건 같이...

A (박용근): 네.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아마 테쉬폰 지을 때에는 이런 직원 숙소가 없었을 것 같아. 칠테쉬폰이... 일곱 개. 이렇게 칠테쉬폰이... 이게 직원 숙소를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Q (이용규): 이거를 칠 테쉬폰이라고 하신건가요?

A (박용근): 예. 칠 테쉬폰이라고.

Q (이용규): 더블 테쉬폰이라고 한 건 어느건가요? 더블테쉬폰..

A (박용근): 더블 테쉬폰은...여기 신부님 사제관 봤어요? 여기 센터 있죠, 왜.

Q (이용규): 센터요. 예, 예.

A (박용근): 여기 갈라지는데 이시돌 센터라고 커피도 팔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더블

테쉬폰이 있었어요.

Q (이용규) : 아 ~ 그게 더블 테쉬폰이었구나.

A (박용근) : 룡 테쉬폰은...

Q (이용규) : 예, 예... 이거 말씀 하시는거죠. 이게 룡 테쉬폰... 이거 긴 거... 그런데 이게 왜 우유부단처럼... 숙소가 왜 다 떨어져 있는지... 돈사 들은 모여 있었고... 모여 있는게 더 좋을텐데 왜 떨어트려 놨는지...

A (박용근) : 그건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걸 다 직원 숙소였어요.

Q (이용규) : 이걸 관리하기 위한 직원 숙소인가요?

A (박용근) :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있었고, 이쪽 뭐 그쪽에도 오늘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살던데도 있었고... 모르겠어. 뭐야, 초소가 3개... 띄워 놓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있었지, 그러니까. 다 그냥... 여기 살던 사람은 지금 서울에.

Q (이용규) : 아니 혹시 여기 혹시 격납고 같은게 있었습니까? 비행기 격납고?

A (박용근) : 격납고가 아니고...

Q (이용규) : 여기 이렇게 파여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저기 정물오름인데요. 정물오름쪽에 테쉬폰 여기 이시돌 목장쪽에 룡테쉬폰이 있고 직원숙소 하나 있고, 뒤쪽으로 땅이 있고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A (박용근) : 뭐 파여 있을게 없는데...

Q (이용규) : 여기 일본 기지가. 원래는 일본 기지가.

A (박용근) : 일본군? 식당 자리 없애네, 그런 소리는 들었거든요?

Q (이용규) : 격납고가 없었나요? 비행기 격납고.

A (박용근) : 격납고가 아니고... 아마 이게 뭐야 호수라 하기는 뭐하고... 웅덩이일거예요. 웅덩이. 이게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는? 지금도...

Q (이용규) : 인위적으로 여기 파 놓은게 있어가지고... 정물오름 쪽입니다.

A (박용근) : 그런 건 없었어요... 사격장이 뭐 어디, 저기... 지금 축산단지 있는 쪽에 거기에 사격장이고 일본. 또 이... 군인들 사격장인가 처음에 오니까 거기에 이 총 쏘면 총알 날 있잖아요? 그거 줍는다고 사람들 막 다녀오고... 그런 걸 봤거든요?

Q (이용규) : 비행장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었죠?

A (박용근) : 에이... 이게 아마 그러면은 호수가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정물오름. 지금도 정물오름 가기 전에 보면은 이런 웅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엔 물이 나왔었어. 여기 물 양돈 이 사람들은 여기 물도 쓰고... 저분이 잘 알거야.

Q (이용규) : 여기 있는 건물들이 물 근처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A (박용근) : 물이 우리 동네에는 아까 논아진 밭 거기에 물 떠다 먹고 살았지. 그리고 하도 오래 되서..

Q (이용규): 그래도 저희는 이 친구들은 학생들이고 그런데, 제주도에 직접 사셨던 기억 있으시고, 저희한테 도움도 되고...

A (박용근): 정말로 그때는... 몇 년도인가... 육십삼 년도, 오 년도 쯤 될거야. 12월 24일날 제 1 분양이 나왔어요.

Q (이용규): 몇 년도 12월...

A (박용근): 확실한 년도가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 신자니까 미사를 봐야 되는데 한림에 미사를 가야 되는데 20 마을씩 분양을 했어요. 그때 돈사도 잘 안됐어요. 협회도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지 뭐. 그때도 돈사도 잘 안됐어요. 그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뭐. 그거를 그냥 가마니로 문 막아놓고 한림에 미사 참여하느라고 그때는 자정 미사니까 크리스마스때는 자정 미사 봐야 되니까 밤 미사 보기 위해서 걸어 내려갔지... 눈 막 맞으면서 걸어 내려갔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64나 65나.. 아마 그정도 될 거 같아.

Q (이용규): 가축 은행하고는 다른거죠?

A (박용근): 가축 은행은.. 그건 그 이것도 하기 전에 신부님이 한림에서 가축은행을 했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Q (이용규): 혹시 롱테쉬폰하고 더블 테쉬폰 이거는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영건설에서 지었나요?

A (박용근): 이거는... 공영에서 했을 것 같아.

Q (이용규): 저기 비료공장 말씀하셨잖아요? 아 사료공장. 그것도 공영에서 했나요?

A (박용근): 아마 그것도 공영에서 했을 것 같아.

Q (이용규): 그게 사실 그게 규모도 크고 아시바도 있어야 되고 프레임도 쉽지 않을텐데... 이거를 이시돌 목장에서...

A (박용근): 지금은 위에다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 테쉬폰을 얹어 놔으니까...

Q (이용규): 그거를... 이시돌 목장에서 하셨는지 공영 쪽에서 하셨는지... 아마 공영쪽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A (박용근): 공영 쪽에서 했을 거 같아요.

Q (이용규): 정황상...

A (박용근): 네.

Q (이용규): 혹시 제가 보니까 사료공장이 여섯 개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가 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탱크 있는 쪽에 사진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6개가 멀쩡하게 있다가 맨 끝에 있는 요거 하나가 사라졌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 세워가지고... 했을 거 같은데...

A (박용근): 기둥만 있고 왜... 이게 없어요?

Q (이용규) : 이거 자체가 요쪽이 사라진 걸로. 다섯 개만 보이더라고요? 혹시 왜 사라졌는지 아시는지... 저희가 사진이 있어서 혹시 기억나시면... 저희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큰 지도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지도를 보고 사진 준비한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지도 보면서 테쉬폰의 위치라던지...

A (박용근) :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Q (이용규) : 예, 맞습니다. 같이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박고봉 님 인터뷰

날짜 : 2020년 08월 19일 워크샵

.....
질문자 : 이용규, 최호석, 김승석

답변자 : 박용근, 박고봉
.....

(사진보며)

A (박용근) : 이거 뭐야, 2002년도?

A (박고봉) : 02년도? 우리집이구만. 예 요고보니까 우리집이야.

Q (김승석) : 많이 익숙한 집이네.

A (박용근) : 그때 심었나? 아.

A (박고봉) : 우리집이야.

A (박고봉) : 우리가 84년도에 지어 가지고 요것이 2년반 걸렸으니까. 하하

Q (이용규) : 요거는 왜 있었습니까? 굴뚝은.

A (박고봉) : 이거 굴뚝인데, 저 한림에 수직사.

Q (이용규) : 아닙니다. 이거 롱테쉬폰.

A (박용근) : 롱 테쉬폰 같아.

A (박고봉) : 이 이 굴뚝은 지금 사저관 뒤에. 옛날 따블 저 테쉬폰 그것도.

Q (이용규) : 예, 여기 따블 테쉬폰이 사진 있는데... 앉으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혹시 생각이 앉으십시오.

A (박고봉) : 응?

Q (이용규) :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앉으십시오. 보시면은 개척농가 같습니다. 개인농장

A (박고봉) : 허허벌판이라...

Q (이용규) : 예, 예.

A (박용근) : 근데 개인농장에 따로 짓고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연속으로 보였을텐데... 다른 집이잖아.

Q (김승석) : 혹시 아랫단지, 아랫단지.

A (박고봉) : 흥창식이 살던집이거나 아니면 저 저 나만호 살던 집 이렇게 길 가운데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

Q (김승석) : 아랫 단지에 그 위에 있는데 명봉목장, 명봉목장 바로 밑에

A (박용근) : 그러니까 나만호라고...

A (박고봉) : 맞아 명봉 보건소라고 그 옛날 흥창식이 살았던디... 그런거 같은디 잘 모르지.

Q (김승석) : 예. 명봉 목장 거기 앞에 하나 있더라구 마썸.

A (박용근) : 아까 저 나만호가 산 것이 흥창식이가 먼저 살다가 나만호가 살은 거예요.

A (박고봉) : 응.

Q (이용규) : 나만호가 아 여기 말씀하시거예요?

A (박고봉) : 응.

A (박용근) : 이것이, 맞아. 그러면 몰라도...

A 박고봉) : 들어가는데 당시 나무도 썩대낭도 안 컷잖아요.

A (박용근) : 어. 없었지.

Q (김승석) : 저... 목장이고, 축산단지. 거기우다. 이 집이.

A (박고봉) : 이것도 들판인데 그때 당시 지금은 나무가 컷지만은, 나무가 없을 때니까. 칠십, 육십 구 년도, 칠십 년도에 나무 썩대낭들 심고 했던 것들이예요.

Q (이용규) : 예. 여기 인제 따블 테쉬폰.

A (박고봉) : 예, 따블 테쉬폰.

Q (이용규) : 여기도 굴뚝이 있었나요?

A (박고봉) : 여기 지금 요 앞에 여기를 막아가지고 돼지를 길렀어요.

Q (박용근) : 운동장?

A (박고봉) : 여기 운동장. 여기. 어이구. 여기서 사료 2000장까지 여기서 이고 여기까지 가서 다 쟈어요. 사료 창고로 만들었으니까.

Q (이용규) : 앉으십시오. 여기는 공간이 하나로 뚫려있었습니까?

A (박고봉) : 여기는 막혀있었어요.

Q (이용규) : 막혀있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지었나요? 왜 따블로 지었을까요?

A (박고봉) : 아마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거 닳아요. 여기가 중간에 엄청나게 다 두꺼운 벽이에요.

Q (이용규) : 아 여기 벽으로 되어 있구요.

A (박고봉) : 예. 벽에다가 힘을 넣은 것들이라구요.

Q (이용규) : 네... 이거는 돈사로 쓰인거구요?

A (박고봉) : 지금은 다 내렸어요.

Q (이용규) : 아. 그러니까 옛날에.

A (박고봉) : 아. 옛날에 돈사로 썼어요.

A (박용근) : 요고는 운동장.

A (박고봉) : 운동장. 앞, 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Q (이용규) : 요고는 무슨 공원이.

A (박고봉) : 요고 밑에 지금 도로.

Q (이용규) : 요건 누가 사셨습니까?

A (박고봉) : 요 관리자들이요.

Q (이용규) : 아. 요 집의 관리자. 직원 숙소로 쓰신 건가요?

A (박고봉) : 예. 여기가 지금 돈사, 돈사가 있었어요. 요 돈사를 관리해준 관리자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Q (이용규) :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사셨던... 가족숙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신 건 아니고, 직원분들이 사신 건가요?

A (박고봉) : 직원들이 사셨어요.

Q (이용규) : 직원 가족 분들이...?

A (박고봉) : 예. 직원 가족들이...

Q (이용규) : 예. 요게 인제 벽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A (박고봉) : 예. 벽이 엄청나게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 무게를 그 벽에다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요 물이 비가 오면은 물이 양쪽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구.

Q (이용규) : 요고를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재료를 아끼려구?

A (박고봉) : 근데 요 밑에 여 돈사 이게 지금 칠주 쪽에 이 돈사가 두 동 있었어요. 두 동 있었는데, 여기 돼지 이빠이 차가지고 여기서 사료를 내다 메기고, 또 부두에 원곡 이 들어 오면은 차로 실어다가 여기다 가져다 다 재고.

Q (이용규) : 아. 여기다 사료도 보관을 하신 거예요?

A (박고봉) : 아휴. 원곡들이 이 창고가 아머머하게 길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그 천장까지 닿도록 이빠이 쌓아놨어요.

A (박용근) : 아. 저 원곡도 쌓아놨어?

A (박고봉) : 예. 그. 저 그 금약 사람들이 저기서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훔쳐가가지고, 저 얼마나 임신부님한테 당해서.

A (박용근) : 검문소 있었던데 아니냐. 저기.

A (박고봉) : 아이, 장승수라고.

Q (이용규) : 롱 테쉬폰 공사는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더블 테쉬폰 공사. 공사할 때 사람들.

A (박고봉) : 그 사람들은 모르고...

Q (이용규) : 모르시죠? 네, 네. 그럼 혹시 이게 사료공장인데.

A (박고봉) : 예. 사료공장.

Q (이용규) : 네. 이게 원래 6개 있다가 5개만 남았더라구요.

A (박고봉) :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지요?

Q (이용규) :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6개 있다가 하나 끝에 있는 것을 잘라서 없어졌더라구요. 혹시 왜 없어졌는지 모르시죠?

A (박고봉) :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두 동 있던데.

Q (이용규) : 아, 예.

A (박용근) : 그나마 없어졌나?

A (박고봉) : 예

Q (이용규) : 다음에 요게 이제 직원 7동짜리 지을 때 4동 먼저 지은 사진이거든요.

A (박용근) : 7 테쉬폰?

Q (이용규) : 7 테쉬폰 지을 때.

A (박고봉) : 그러면 요, 요 짝에서 정문에서, 저 짝에 젊음의 집 들어간 그 오른쪽 편으로 지을 때.

A (박용근) : 이게 요것이 한 세대, 요것이 한 세대, 그래서 두 세대.

Q (이용규) : 나중에 요걸 잘라서 몇 세대가 살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A (박고봉) : 이 저희들이 와서 볼 때는. 여기 살림을 살던 사람들. 두 세대가 맞는 텍스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 칸막이를 가운데 해 가지고 2층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8명씩 생활을 하게...

Q (이용규) : 아, 이 안에서요?

A (박고봉) : 예.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또 가운데 저 들어가는 입구 난로를 피워서. 겨울 예.

Q (이용규) : 요게 이제 목장장님 숙소인 것 같고, 요게 이제 룡 테쉬폰인거 같고. 아, 7개 테쉬폰이구요.

A (박용근) : 그렇죠. 이게 7테쉬폰이면, 요것이 김동호씨 살던 데.

A (박고봉) : 음. 저 안에. 요게 지금 돌집.

A (박용근) : 이리로 가면은 룡테쉬폰 있고.

Q (이용규) : 예. 이게 일본군, 무슨 뭐 일본군 기지로 이용한 건가요?

A (박고봉) : 지금 이거 다 걷어 불고. 여기 지금 돌집으로.

A (박용근) : 이게 그거라?

A (박고봉) : 예, 그거요. 돌집. 그 뒤편에.

Q (이용규) : 취사장으로 쓰였던 자리라고.

A (박용근) : 지금 숨비소리 자리라고?

A (박고봉) : 예, 예. 요고 김봉호씨 살던 집이면은. 요기 모다풀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

Q (최호석): 그러면 지도에서 어디?

A (박용근): 이리로 길이 나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다.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숨비소리 자리. 이것도 직원 숙소였으니까. 이게 방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예.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이게 그거면은.

A (박고봉): 여기서 술도 팔다가, 소비잡도 하고, 뭇도 하고, 예비군 총 만드는 공장도 하고.

A (박용근):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길이. 요기는 길이 이렇게 나서. 영선반도하고…

A (박고봉): 그 집 한 대, 여섯 번 변경했구만.

A (박용근): 지금은 숨비소리라고.

Q (이용규): 예

A (박고봉): 그때는 나무들이 없으니까 평지는 평지였었네.

Q (이용규): 그 요게 저기 롱테쉬폰 만들 때 사진인데, 요런것들 혹시 이 때 계셨었나요? 요거 만들 때? 안 계셨나요?

A (박고봉): 이~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중간에 고속정씨 집 지을 때는. 예, 나무를 휘어서 거는 것은 구경은 했어도~ 아마 이렇게 힘을 줘야지 공사를 했을 거예요.

Q (이용규): 요 집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A (박고봉): 예 요고. 저, 저 이기선씨라고. 이거 오늘 이거 와야 할 분. 예, 그 분.

Q (이용규): 아, 이분이 이기선씨구나. 예, 6호.

A (박고봉): 84년도, 86년도에 찍은 사진이겠구만. 그러면 저게.

A (박용근): 아, 84년도에 찍혔으니까.

Q (이용규): 아까 86년도요?

A (박고봉): 예, 아까 그 사진이 86년도 사진이에요.

Q (이용규): 요고는 누군지 모르시죠? 여기는. 아니, 이 집.

A (박용근): 우리 동네 사람 아니에요.

A (박고봉): 딴 동네 사람이라든가.

Q (이용규): 제가 70년대 사진이 있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틀며) 여기에 건물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직원숙소.

A (박용근): 예, 직원 숙소. 봉승 위에 살던 데군.

A (박고봉): 산을 봐야돼. 산을.

A (박용근): 이게 여기… 이게 매점 자리고.

A (박고봉): 여기 정문 돌집 아니요?

A (박용근): 어어, 매점 자리. 여기 이런 게 있었나?

A (박고봉):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 A (박용근) : 길 건너편에 요기 있잖아.
- A (박고봉) : 아니. 그것은 7테쉬폰 들어가는데고. 예, 7테쉬폰 들어가는 자리고. 요것은 저 로타리에. 길 건너 테쉬폰 하나 있었어요.
- A (박용근) : 모이사 살던데.
- A (박고봉) : 아니요, 고 누구요. 저 고 하르방 살았잖아요.
- Q (김승석) : 이걸 지금 교환입니까?
- Q (이용규) : 이걸 교환이구요.
- A (박용근) : 교환대, 교환대. 맞아. 교환대. 응.
- Q (이용규) : 여기는 교환대는 사람이 살지 않았나요?
- A (박고봉) : 여가 교환대지요? 동그란. 바로 위 길 건너 여기 저. 고하르방.
- A (박용근) : 고하르방이 테쉬폰 1호에서 살았는데?
- A (박고봉) : 아니. 여기서 살았어요.
- Q (김승석) : 흥씨 아니과, 흥씨?
- A (박용근) : 고씨. 예, 맞아요.
- Q (김승석) : 흥씨 아니과, 흥씨?
- A (박용근) : 흥성훈이라 해서 난 흥성훈이라 아는데. 근데,
- Q (김승석) : 예, 친구네 집인데.
- A (박고봉) : 예, 예. 맞아요.
- Q (김승석) : 흥은희네. 은희네.
- A (박고봉) : 황승수가 여기서 살고, 여 짝 방에는 그, 저, 그 키 큰 고하르방 안 있었수과. 저, 저 모다풀에.
- A (박용근) : 난 내가 저기, 고하르방 할 때는 테쉬폰 1호에 살았었어. 거기 살다 글로 간지는 몰라도. 응. 이것은 교환대가 맞네.
- A (박고봉) : 고하루방 오기전에. 저 그 누구냐. 옛날에 그, 저.
- A (박용근) : 저기 수근이 살던 데 아니고? 거기 두 개가 있었어?
- A (박고봉) : 이걸 정물 앞이구. 저 뒷산 이추록.
- Q (이용규) : 마을길, 금악에서 이제 이시돌 가는길. 이게 전신하고.
- A (박고봉) : 이게 우리 우리 마을... 어, 아닌데?
- A (박용근) : 전 번, 다시 한번 아까 거.
- A (박고봉) : 우리 동네 이렇게 길가에 돌맹이 쌓아놓은 집은 없었는데?
- A (박용근) : 아니 금악, 금악. 금악에는 저렇게.
- Q (이용규) : 금악에서 이시돌로 들어올 때 사진이랍니다. 길 포장할 때.

Q (김승석): 아. 금악 그 밑에 동물 동물병원 그쪽 위쪽 같습니다. 지금 신헌 위에. 신헌 위에. 쪽 올라오는 길.

A (박용근): 방앗간 자리인가?

A (박고봉): 아. 고용부. 고용부 방앗간 자리가 모양이네. 응.

A (박용근): 그러면 신헌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쯤에는 동물약국이 있지.

Q (이용규): 그러면 테쉬폰이 여기 있었겠네요?

A (박용근): 그렇죠. 테쉬폰 여쪽에 있었죠. 아, 방앗간이면 몰라도. 응.

Q (이용규): 요거는 전화인지 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A (박용근): 전화는 뭐 나오고 들어왔으니까.

A (박고봉): 그때 당시 전주서 있는 것 보니까 금악 본동은 본동인데.

A (박용근): 응? 금악 본동엔 이런 거 없었어. 이건 금악 아니야 금악은 아닌 거 같애.

Q (이용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개척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 좀.

A (박고봉): 옛날 이거 저 뒷길 이거 고압선 봤잖아요. 옛날에.

A (박용근): 아. 텍스폰 있네. 요거네. 알 수가 있나. 하하. 이래 봐. 선이 이렇게 있는 데가.

A (박고봉): 조금만 올려보세요. 옛날 전라도 살았던 집이고. 호용이 아버지 살았던 집 아니요?

A (박용근): 호용이 아버지는 길가야. 지금도 길가지. 큰 길가. 정순이네?

Q (최호석): 요기가 길이 아니었을까요? 요렇게 길?

A (박용근): 요 뒤를 좀 보게. 산 같은거.

Q (이용규): 예, 이 한라산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14호에서 13호 쪽에서 보고 계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A (박고봉): 저 저 옛날 우창이형 살았던 저기 아니요? 한라산 보이면은?

Q (이용규): 여기도 테쉬폰이 있습니다. 여기도 테쉬폰 있고.

A (박용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Q (이용규): 예, 뒤에 한라산 보이고, 전신주 있고,

A (박용근): 여기 이상하네,

A (박고봉): 글썸. 아니 근데 옛날에 쪼그마한 돌맹이 집에 슬레트 없는 집은 옛날 호영이 아버지 살던 집. 근데 거리가 그때 당시 나무?

Q (이용규): 70년대입니다. 70년대

A (박용근): 70년대요?

Q (이용규): 네,네. 70. 한 새마을 운동 때 사진입니다.

A (박용근): 아. 그때 찍은 거 가져온 거예요?

Q (이용규) : 예, 예.

A (박용근) : 이 산이. 이 산이 우리 동네 산이 아닌?

A (박고봉) : 우리 동네 뒷산은 아니요.

Q (이용규) : 예.

A (박용근) : 산에. 더군다나 이런 전봇대가 두 개씩 지나가는 건 우리 동네 없었어.

Q (이용규) : 75년도에 민방위 할 때 이게 저기 정문 목장이라 되어 있구요.

A (박용근) : 이게 맞아. 수용이 살던데.

A (박고봉) : 박과장이야?

A (박용근) : 박용찬씨?

A (박고봉) : 박용찬씨? 긴 것도 닳네. 이것이 매점 자리.

A (박용근) : 그 때 직원도 많고, 몇백명 되니까.

A (박고봉) : 그 때 도청 직원보다도 숫자가 많았다고 그랬으니깐.

A (박용근) : 이거 지금 스몰 테쉬폰들.

Q (이용규) : 이거는... 어딴니까?

A (박고봉) : 이거는 김보근씨 집.

Q (양성필) : 김보근씨 집이고.

Q (이용규) : 예, 예. 동영상으로 한 번 볼까요? 옛날 영상도 있더라구요. (영상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한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테쉬폰입니다. 요게 이제 7테쉬폰 완성과 그 앞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목장장님 덕, 지금 남아있는거죠?

A (박용근) : 네... 이게 테쉬폰이고

Q (이용규) : 근데 이분은 서양분 같으신데 이렇게... 66년도거든요. 이게.

A (박용근) : 그 때... 고문관이 그 때 있었나? 이거 있을 때?

A (박고봉) : 예... 이거 돌볼 때 있었어요.

A (박용근) : 이게... 맞아. 7테쉬폰. 이게 스몰 테쉬폰 아냐?

Q (이용규) : 여기 이제 7테쉬폰인거 같은데. 이 두 번째 거가 6번 테쉬폰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A (박고봉) : 지금 여기 지금, 마감하고 있구만. 마지막.

Q (이용규) : 66년도에 요거 아일랜드에서 와서, 아일랜드에서 이 다류를 찍어갔던 겁니다. 혹시 요때 기억은 없으시죠?

A (박용근) : 일곱개 중에 하나만 색깔이 하얗다고요?

Q (이용규) : 네, 두 번째 것.

A (박용근) : 아, 그러면 뭔가 하면. 비가 새니까 임신부님이 그때 이 에폭시라는게 나왔어요. 에폭시 기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7개 중에... 몰라. 허나만 시범적으로 했을는지 몰라. 색깔이 다르다니까. 에폭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때 서양 사람 왔었어요.

Q (이용규) :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색깔 이것만 달라요.

A (박용근) : 그러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Q (이용규) : 요게 이제 처음 지은 창고. 시범으로 하나 지었던 게 후문 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롱테쉬폰 뒤쪽에 이렇게. 롱테쉬폰 뒤는 이렇게 직각이 생겼더라고요.

A (박용근) : 네 마리 이렇게 채우니까. 자연히 이렇게 된 것...

Q (이용규) : 여기 이제 농장...

A (박용근) : 그럼 에폭시가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안 나오지? 아까 그거.

Q (이용규) : 66년도입니다.

A (박용근) : 66년도요?

Q (이용규) : 네, 이 영상이 66년도에 찍은 겁니다.

A (박용근) : 아, 그럼 에폭시가 아니...

Q (이용규) : 아닌가요?

A (박고봉) : 66년도는... 거의 70년대에 저 에폭시가. 너무 강해가지고. 금 간 곳에다 칠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A (박용근) : 여기 우리 아버님.

Q (이용규) : 아... 아, 그러신가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A (박용근) : 뭐, 금악 쪽일거예요. 아버지 다른 데는 안 가셨으니까.

(사진보며 대화 시작)

A (박고봉) : 언제 찍은 항공사진인지는 몰라도...

A (박용근) : 79년도래. 79년도.

A (박고봉) : 79년도?

A (박용근) : 아닌 거 닻아...

A (박고봉) : 여기는 연수원... 그리고 우리 동네 가는 길이고. 요거 새미소. 지나가는 길.

A (박용근) : 1, 2, 3, 4. 그 다음 시내. 맞아?

A (박고봉) : 예, 맞아요.

A (박용근) : 그니까 땅이 넓었지.

A (박고봉) : 그러니까 밑에 하고 우리 동네하고 이렇게 딱 가로지르면은 최소한도 한 3,4천

평은 차이가 나겠네.

A (박용근) : 만 팔천 평 밖에 안 될거라? 여기?

Q (이용규) :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호. 그 다음에 14호. 그 다음 15호, 16, 17. 그 다음에 18이 여기 있는 것들인가요?

A (박고봉) : 18이 저기 저...

A (박용근) : 아니, 아니. 저기 흥문영.

A (박고봉) : 흥문영~ 아... 그러면 요기로 내려가는 길. 요 쪽으로 빠질 건디.

Q (이용규) : 요게 18호요?

A (박용근) : 거기가 하난가?

Q (이용규) :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A (박용근) : 이름이 뭐냐, 죽은 아이.

A (박고봉) : 그 저... 호연이. 양호연.

A (박용근) : 양호연이. 부인이 흥금녀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럼 여기 하난가?

A (박고봉) : 예, 그거 하나. 텍스폰은 그거 하나고.

A (박용근) : 그러면 17, 18, 19가 이중석, 전라도.

A (박고봉) : 전라도.

Q (이용규) : 여기 19.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어요.

A (박용근) : 두 개였어요?

Q (이용규) : 세 개가 여기 있었어요.

A (박고봉) : 이것이 금약봉 밑에... 그러면은...

A (박용근) : 그것은 모르겠네? 거기도 있었다고요?

Q (이용규) : 네. 20호 있었어요. 여기 길 들어와서.

A (박용근) : 분노 처리장 쪽 되는데?

A (박고봉) : 글썸. 그 부분인데.

Q (이용규) : 그럼 여기 18호고, 여기 19호.

A (박용근) : 김경옥이가 20호가?

A (박고봉) : 아, 본동에. 본동에도 하나 있는데.

Q (이용규) : 그니까 이게 19호가 맞으신거죠? 이 삼각형.

A (박용근) : 거기 김종선씨... 테쉬폰 있었지? 거기에.

A (박고봉) : 벨라도. 요거 벨라도 집이구만.

A (박용근) : 김종선. 이름은.

Q (이용규) : 김종선씨고, 요거는 테쉬폰이...

A (박고봉): 그 테쉬폰은요, 도중에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못 봤어요.

Q (이용규): 그러면은 여기 마을에 있는 게 이제 20호.

A (박고봉): 예, 이제 김경옥씨라고. 경옥이가.

A (박용근): 명옥이가 동생.

Q (이용규): 혹시 그러면은 21호부터 23호까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A (박용근): 24호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Q (이용규): 세레남이 24호거든요. 21, 22, 23호가 없어가지구... 혹시 이 위쪽으로는 없었나요?

A (박용근): 성식이형네가 테쉬폰은 없어도 호 수가 있었나?

A (박고봉): 흥창식이 살았던 데가?

A (박용근): 아니. 그건 흥창식이 살은 데고.

A (박고봉): 16호, 17호고 한데요, 거기?

A (박용근): 16호. 여기 분도네, 성일이네, 모시네, 여긴 성식이형. 16, 17. 여기 이름이 3호 이름이랑 같애요. 같은 사람. 이 농장, 너무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면 저게 20, 21... 아마 그러면은 테쉬폰은 없어도...

Q (이용규): 저기 그러면, 여쭙보고 싶은게... 제일 먼저 생긴 게 직원 숙사... 개척농가가 먼저 생겼습니까?

A (박용근): 개척농장이 먼저지.

A (박고봉): 집은 동시에 세워졌던 거 다향요. 저기 7개 테쉬폰이나 농장 거기나. 같은 시기에 세워진 거 다향요.

Q (이용규): 비슷한 시기에... 요거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룡테쉬폰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더블 테쉬폰 세워진 순서가 맞습니까?

A (박고봉): 우리가 67년도에 왔을 때는 다 들어서 있었어요.

Q (이용규): 그 저기, 옛날 사진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 격납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 없나요? 비행기 격납고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A (박용근): 내가 볼 때는 호수 같애.

A (박고봉): 여기 물구덩이였다. 물구덩이. 물웅덩이. 여기 물이 저장이 되가지고 미꾸라지 엄청나게 많았어. 여기 이 자리가 생수 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올려가지고 동산에 올려서 물을 주고...

Q (이용규): (동영상 자료)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산 뒤에 격납고 같은 게 하나 보여 가지구요. 자세히 보시면 이 신부님 뒤로 까맣게 점이 있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비행기 격납고처럼 생긴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동굴 같기도 하고, 네.

A (박용근): 여기 조금 확대해 보세요. 우리 동넨가 보게. 우리 동네 같지는 않야. 신부님이

어디를 가서 찍었을지도 모르지. (웃음) 그리고 이게 거기 격납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Q (이용규) : 네.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 확인하며 천천히 대화.)

A (박고봉) : 70년대에는 관광객이 무척 많이 왔어요.

Q (이용규) : 이거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A (박고봉) : 그 저 텍쉬폰 옆면, 벽을 보니깐 거 우리집 닭기도 하고, 다 똑같이 생겨 놓으니까... 똑같애. (웃음.)

Q (이용규) : 알겠습니다...

Q (김승석) : 혹시 여기가 돈사... 낮은 돈사. 거기 아납니까? 그러니깐 여기가 축산단지 올라가는 길 아납니까. 옛날에 축산단지 올라가는 길. 여기가 우유부단.

A (박고봉) : 여기 연수원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A (박용근) : 2단지, 2단지.

Q (김승석) : 여기가 축산단지고, 여기가 돈사. 제가 맨날 학교 걸어 다닐 때 여기가 돈사였거든 마썸. 여기가 스몰 돈사.

A (박고봉) : 어어 후문 뒤에. 맞다. 요것이 2단이 뒤에고.

Q (최호석) : 그럼 요것도 개척농가였나요?

A (박고봉) : 아니아니, 이시돌 목장

Q (김승석) : 예, 목장설. 이시돌 목장이고.

A (박용근) : 이 때는 이 쪽이 1단위, 2단위. 이렇게 했었거든요.

A (박고봉) : 2단위. 단위별로. 그리고 여기 스몰 테쉬폰 여기는 또 3단위. 그래서 양 쪽에서는 생산하고, 돼지를 생산하고, 여기서는 비육하고, 그랬어요.

Q (이용규) : 그럼 더블 테쉬폰에서는 뭐하신 거예요?

A (박고봉) : 거기도 비육 돈사로 들어가요. 비육돈사에 포함됐어요.

Q (김승석) : 그럼 여기 스몰로 돈사가 있었다가...

A (박고봉) : 그 돈들 발정나면은 여기서.

Q (김승석) : 아 그 칸칸이 있드라고?

A (박용근) : 그 칸칸이 돼 있던 데는 여기 아니?

A (박고봉) : 아 거기서 모았다가 임신한 거 확인하면은 갖다가 넣었지.

Q (김승석) : 제 기억으로는 돼지들이 여기서 칸칸이 갇혀 있었어요.

A (박고봉) :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신 확인이 되면은 여기다가 차근차근...

Q (김승석) : 아. 임신을 하니까 따로따로 놓았던 거구나. 모아 놓지 않고.

- A (박고봉): 그 때 요 짝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돈사들은... 나는 못 본 거 다행.
- Q (김승석): 여기는 가서. 이 쪽에 약간 커브가 있고.
- A (박용근): 여기가 현재 우유부단.
- Q (김승석): 아 우유부단 여기 아닙니까? 네. 우유부단 지나서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가. 근데 테쉬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A (박용근): 여기 대나무 숲이네.
- A (박고봉): 대나무숲? 그러면 지금 커피집이 여기라?
- Q (이용규): 네, 그렇죠. 우유부단 아래 있는 커피집이 거기죠.
- A (박용근):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뭐가 있었다.
- Q (김승석): 저쪽으로 가서 영보 목장이 저 밑에고.
- Q (최호석): 여기는 아까 관리자 숙소라고 그러셨나? 더블 테쉬폰?
- Q (이용규): 더블 테쉬폰이 아니고.
- Q (김승석): 여기가 쌍둥이네 살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네. 강씨.
- A (박고봉): 이시돌 정문에?
- Q (김승석): 아니, 교환.
- A (박고봉): 교환대? 여기 더블 테쉬폰 자리 같네? 여기 밑에 테쉬폰 옛날 그 저... 응 맞아. 강승수씨라고.
- Q (김승석): 강씨, 강씨. 우리 친구가 동생이고. 오빠가 쌍둥이거든요.
- Q (최호석): 어, 그러면 직원 숙식으로...
- Q (이용규): 그 맞은 편에 있는 거에는 뭐 있습니까?
- Q (김승석): 거기가 구제주의 형님이 살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여기가 쌍둥이네고 이 뒤에가 그 맨날 우리 성당에서 부활절 행사하면 그 형님이 거의 주도해서 행사를 했었던 거 맞음. 아,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그 형님이 거기 살았고. 앞에 쌍둥이네 살고. 근데 그 뒤의 건물은 잘 모르겠네.
- Q (이용규): 근데 궁금한게... 왜 숙소가 안 모여 있고 저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 A (박용근): (웃음) 나 생각에는 처소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 Q (이용규): 네... 그 교환소 옆에 있는 테쉬폰에도 누가 사신 건가요?
- A (박용근): 그 전에 흥... 수웅이 살았었지. 수웅이. 테쉬폰 교환대 옆에. 7테쉬폰 가기 전에... 이게 요양원이고. 요기 있었지.
- A (박고봉): 성하르방. 그 저저 자기 딸 뭐도 허고.
- A (박용근): 성하르방 어디서 살았어?
- A (박고봉): 여기서 살았지.

- A (박용근) : 테쉬폰 안 살고?
- A (박고봉) : 요기 요 돌집.
- A (박용근) : 지금 있는 돌집? 매점 자리?
- A (박고봉) : 매점 자리 말고, 이 뒤편에.
- A (박용근) : 또 있었어? 어어. 그건 잘 모르겠네.
- A (박고봉) : 옛날엔 이 뒤편이 서울 사람들 농장 아니여. 이 모다풀 이쪽.
- Q (이용규) : 저기 옆에 있는 테쉬폰 양식은...
- A (박고봉) : 여기 이시돌 농장이 아닌 땅들이 좀 있었어요.
- Q (이용규) : 거기엔 누가 사셨나요?
- A (박고봉) : 여기 이기선씨. 아까 얘기 했던.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 텍스폰. 여기 살았어요. 지금도 있다 그러네?
- Q (이용규) : 네네.
- A (박용근) : 지금요? 거기는 이것이. 웅덩이가 맞아요. 우리 여기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랬거든. 지금도 여긴 있어요. 여기는 돌로. 이 정도 되게 샘물이 나와요.
- Q (이용규) : 그럼 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신 거네요? 이쪽에 있던 것들. 여기에는 누가 사셨나요?
- A (박고봉) : 여긴 후문이네. 여기 옛날에 우창이형 여기서 살기도 하고.
- A (박용근) :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 산거라?
- A (박고봉) : 예. 여기서 소비 조합 했지요.
- Q (최호석) : 여기는 누가 사셨나요?
- Q (이용규) : 그건 테쉬폰 아니에요.
- A (박용근) : 이거는 돌집인데. 아까 숨비소리 얘기한 데.
- Q (이용규) : 숨비소리 거기도 테쉬폰인가요, 그러면?
- A (박용근) : 거긴 아니.
- Q (이용규) : 아... 저기 뭐냐. 우유부단에는 누가 사셨어요? 우유부단 있는 자리.
- A (박용근) : 그 테쉬폰에 거기도 직원이. 지금 있는 거?
- Q (이용규) : 네, 네. 양쪽으로 두 세대가 살았다는 말씀이시죠?
- A (박고봉) : 네네. 요 텍스폰 서 있죠?
- Q (이용규) : 네네.
- Q (최호석) : 텍스폰 하나 짜리는 거의 직원분들이 사셨네요?
- A (박용근) : 전부 다 직원이죠.
- Q (이용규) : 그쵸.

Q (최호석): 여기 이거는…

A (박고봉): 저희가 그것은 못 봤어요. 1967년도 후로는.

Q (이용규): 혹시 그러면은 21호, 22호, 23호는 왕래가 없으셨던 건가요? 아까 20호까지는 기억하셨잖아요? 금악 마을에 있는거. 그거 말고는 그러면 테쉬폰으로 지어진 개척 농가는 없었던 건가요?

A (박용근): 저기… 호수로 들어가도 테쉬폰은 없었거든? 그 사람들 같애. 고진성이라고 개가 어디쯤 되냐 하면은…

A (박고봉): 고진성이 그 농장. 옛날에 농장 바로 그 옆에 아니여?

A (박용근): (지도 확인) 이쪽에 그냥… 회원이죠, 회원. 회원들이 농장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나만호가 여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친하게 지냈었거든.

Q (이용규): 옛날에 테쉬폰 비슷한거 흔적이 있긴 했거든요. 옛날에 테쉬폰 같은거 60년대에 있더라구요. 아니었나요?

A (박용근): 그냥 돌로 지은 집 같애. 테쉬폰은 아니고, 테쉬폰은 여기까지 있었어. 고진성이, 전성식이.

A (박고봉): 요것이 지금 돌집으로. 전성식이 살던 집이죠?

Q (이용규): 네네…. 고진성씨, 전성식씨. 21, 22. 뭐 이런식으로 있었던 거죠? 23호가 없습니다.

Q (최호석): 이 쪽에 하나 없었을까요? 이쪽에도 보면 끝에…

A (박용근): 13호 밑엔 없었어요. 13호가 끝이지.

Q (이용규): 20호까지는 같이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시기에.

A (박용근): 개척농가하고 같이. 경옥이네.

A (박고봉): 네. 그거 본동에 아까 저기 김경옥씨라고…

Q (이용규): 네, 알겠습니다.

A (박고봉): 여기가 지금 옛날에 고숙정이가. 농장이 너무 커서 노나부렸어요.

Q (이용규): 네네. 이제 좀 앉으세요. 저희 너무 감사드리구요.

A (박고봉): 저희들이 먼저 오고, 알았으면 좋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진 것도 많네요.(웃음)

A (박용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웃음) 오래되니까.

Q (이용규): 이게 제주도의 중요한 기록이고 자산이고 기억인데.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하면 이시돌 목장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개척농가 분들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도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게 엮어지는 것 같아서…

A (박고봉): 이 사진이 몇 년도에…

Q (이용규) : 79년도요. 이거 말고 60년대 사진도 있습니다.

A (박고봉) : 근데, 79년...

A (박용근) : 돼지 파동 났던 해지.

A (박고봉) : 우리 아스팔트가 몇 년도에 완공 돼수과?

A (박용근) : 73년도에 내려와가지고선 그 해 막 돌 깔았거든? 돌 나르고.

A (박고봉) : 그러고도 한 2년 걸렸으니까 한 75,76년?

A (박용근) : 74, 75년?

A (박고봉) : 하여튼 석유 파동 하루 전엔가 끝났어. 그 저 끝나고 기름 파동 났다고 난리더라구.

Q (이용규) :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이들 자주 모이십니까?

A (박고봉) : 지금은...(웃음) 지금은 텔레비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을 판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끝날때까지 완전히 자기 일들처럼 붙어서 하는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지금처럼 차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어디 갔다 오라 하면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장보고 오고 그랬어요.

A (박용근) : 그리고 그 전에는 때는 지금 결혼하듯이 제사 때도 그렇게 크게 돼지 잡구. 그래서 제사 때도 사람들 막 모이고 그랬는데. 말마따나 텔레비전 때문에 다 없어 지구. (웃음)

Q (이용규) : 텔레비전이 참.

A (박고봉) : 텔레비전이 67년, 7,80년대까지. 제가 육지서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제일로 어리더라고요. 나보다 다 위인데 화투 쳐 가지고 닭먹으려고 새벽되는 닭 사오라 하면은 길도 없는데. 저 금약까지 가서 닭 사오고 그랬어요. (웃음) 그래도 불만 안하고 새벽에 닭 사가지고 와서 그 날 먹고, 또 뒷 날 벌겁게 밤 새고, 그래도 다들 형제간처럼 안 다투고 살았어요.

Q (양성필) : 저기 1호에서 14까지 계신 분들은 다 신자 생활을 하신 거죠?

A (박고봉) : 네. 백프로는 아니고.

Q (이용규) : 그러니까 주로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이 라인에 계신 분들. 요 13호까지. 아까 말했듯이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친하시고. (21-23호)

A (박용근) : 여기가 셋이니까 우리한테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놓고.

Q (이용규) : 이 두 분은 어떠셨어요?

A (박용근) : 여기는 중국 사람이고. 여긴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들이 김성일인데. 뭐 주로 이리로 놀러오긴 하지만은.

Q (이용규) : 네. 그럼 이분도 마을 안 쪽에 있으셨으니까 여기서 노셨겠네요.

A (박용근) : 그 분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Q (이용규) : 이쪽 분들은 어땠나요? 이 분들하고 왕래가 있으셨나요?

A (박용근) : 거기는 왕래는 없어도, 그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까 종교 얘기 했잖아요? 우리 동네도 13호에서는 우리는 천주교로 하고,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와서 목회를 하고, (웃음) 그리고 아주 미신 그런 것 믿는 사람도 있었고.

Q (최호석) : 선생님, 저기 길 건너 쪽에, 오름 밑에 쪽에, 85년도 사진에 보면 테쉬폰이 하나 보이거든요. 테쉬폰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 보여요. 혹시 이쪽에 뭐가 있었나요?

A (박용근) : 아 그것은 새왓인데.

A (박고봉) : 금약봉 밑에 저 노나진 밭.

A (박용근) : 노나진 밭. 그거지?

A (박고봉) :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A (박용근) : 요게 우리집인데. 그냥 테쉬폰 아니구 그냥 짓고 살라 그러니까 살았었거든. 돌 집

Q (최호석) : 길 건너에.

A (박용근) : 한 집 있었어요. 6호 앞에.

Q (최호석) : 그렇군요. 14호 뒤쪽에는 하나 없었나요?

A (박용근) : 네.

Q (이용규) : 그러니까 요 라인에는 하나밖에 없었디는 말씀이시죠?

A (박용근) : 그쵸.

Q (이용규) : 노나진 밭이 물 나오는데가 여기이고, 물 나오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A (박고봉) : 요 길로 올라가다가. 요기

Q (김승석) : 여기가 왕명이네. 내 친구입니다. 저는 여기 축산 단지 막내.

A (박용근) : 우리가 여기서 뭐 하다가 좀 뭐하니깐 일루 내려가서 한 이쯤 될 거예요. 그 쪽에 샘이 있어요. 또 거기루 하나 갔더라구.

Q (이용규) : 그 다음에 이쪽도 물이 있었다고.

Q (김승석) : 저희 동네에서 먹었던 거는 지금은 잘렸는데. 저희 집이 축산 단지라서 잘렸는데...이렇게 해서 여기 명보 농장이고.

Q (이용규) : 개척 농가에서 쓰신 물은 노나진밭 물 쓰신 거죠?

A (박용근) : 처음에는 노나진 밭 물 쓰다가...

Q (최호석) : 여기 세레나 목장이 보니까. 세레나 목장이 테쉬폰 뒤쪽으로 물길이 흐르던데 혹시 이게 물이 흐르던...

A (박용근) : 물이 많이 흐른 거 뿐이지.

A (박고봉) : 물이, 통과해서 나온 물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요래 통과를 했어요.

Q (최호석) : 네. 그래서 세레나님이 이 물을 받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A (박용근) : 그랬을지도 모르지.

Q (이용규) : 이 쪽에 물통은 없었습니까? 요거 물통인가요 그것도?

A (박용근) : 아까 3개

Q (이용규) : 아 요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썼을까요?

A (박고봉) : 그 사람들도 아마 집 주위에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파서 용천수 받아서 썼을거
예요.

A (박용근) : 용천수가 많았어요.

Q (김승석) : 여기가 그 처녀물. 여기도 그 물통 하나 있잖아요? 처녀물이라고.

A (박고봉) : 응. 거기가 나는 물이었어. 처녀물 동산.

Q (김승석) : 여기가 박통(박정희)이 만든 길이라부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길 안 만
들고 여기에 만들었다는. (웃음) 박정희 대통령 오다가 자빠져서 길 댄 데. 거기
가 여기 마쌌.

A (박고봉) : 그러니까 우리 이시돌 정문에서, 금악에서 오는 길이나 우리 동네서 빠지는 길
이나 길이가 같아요. 몇키로? 4.7키로? 모르겠어.

Q (이용규) : 그럼 제일 큰길이? 이시돌의 메인 도로가 이 길이였을까요?

A (박용근) :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 길만 아스팔트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일
로 해야 우리가 되니까. 안 해줄 거니까. 우리가 발담을, 여기 발담을 다 걷어서
깎았다. 그래서 여기에 발담이 없어요. 여기에. 다 깔았어요. 여기서 여까지. 깔
고. 이시돌 목장에서 기계 빌려다가. 자갈도 깨구. 그 다음에 다 날라.

A (박고봉) : 이 많은 돌. 전부 다 우리 등으로 쳐다가 기계로 자갈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자
갈 까는 기계로 했지만은. 하여튼 이 철조망, 서로 담 경계 없애불고. 이 철조망
비가 우리 상환할 돈하고 맘먹어 버렸어요.

A (박용근) : 그래서 아무튼 돌담이 없어요. 그니깐.

Q (김승석) : 그래서 여기가 다 철조망이었구나.

A (박고봉) : 응. 여기서 가져다가 다 깔아 버렸어.

A (박용근) : 그래서 여기는 아스팔트가 좀 두껍고. 여기는 얇고.

Q (이용규) : 네. 혹시 그 전환선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A (박고봉) :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딱 아스팔트 하나밖에 없어요.

Q (이용규) : 전기하구 전화요.

A (박고봉) : 전기? 전기는 한전에서 해주는 거니까.

Q (이용규) : 이쪽으로 들어왔나요? 아님 이 쪽으로 들어왔나요?

A (박고봉) : 이것은 전선부터 이 길로 따로 떨어져서 왔어요.

A (박용근) : 처음엔 저기로만 왔었죠.

A (박고봉) : 네. 저기로만 왔는데. 우리가 양돈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제 별도로.

A (박용근) : 그리고 전화는. 이게 광주 지구에 속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서 낮에 광케이블? 근데 여기는 광케이블 없어요. 여까진가? 요기만. 그래서 여기는 전화가 안와서 막 사정을 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Q (이용규) : 그럼 교환소는 여기만...

Q (김승석) :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A (박용근) : 근데 이 교환도 이시돌 목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쓰는 교환대였지. 다른 데 교환이 아니라.

Q (이용규) : 그럼 여기는 여기로 해서 끌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Q (김승석) : 여기가 지금 돈사하고 있잖아요? 경남이네.

A (박용근) : 그 경남이네는 아니고 그 옆에 지금 흥군여를...

A (박고봉) : 흥금녀. 그 큰언니 이름이...

Q (김승석) : 큰아들은 경남이. 그 다음에 충남이고.

A (박용근) : 호연이 아들 말하는거 아니?

Q (김승석) : 네. 여기가 말목장인데 지금. 옛날에는 모르겠고. 아, 여기도 테쉬폰이 있었네.

A (박용근) : 여기 테쉬폰이 있을 리가 없는데?

Q (이용규) : 아 여기 테쉬폰 2개가 개척농가처럼 있습니다.

(사진 확인중)

A (박용근) : 확실하게 테쉬폰이에요?

Q (이용규) : 네. 맞습니다. 60년대하고 70년대 사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A (박고봉) : 저희가 아는 것이 없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렇네요.

A (박용근) : 한 이삼년 뒤에 오셨으면 더 몰랐을거예요.(웃음)

Q (이용규) :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다 기억들 하시고. 말씀해주셔서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구...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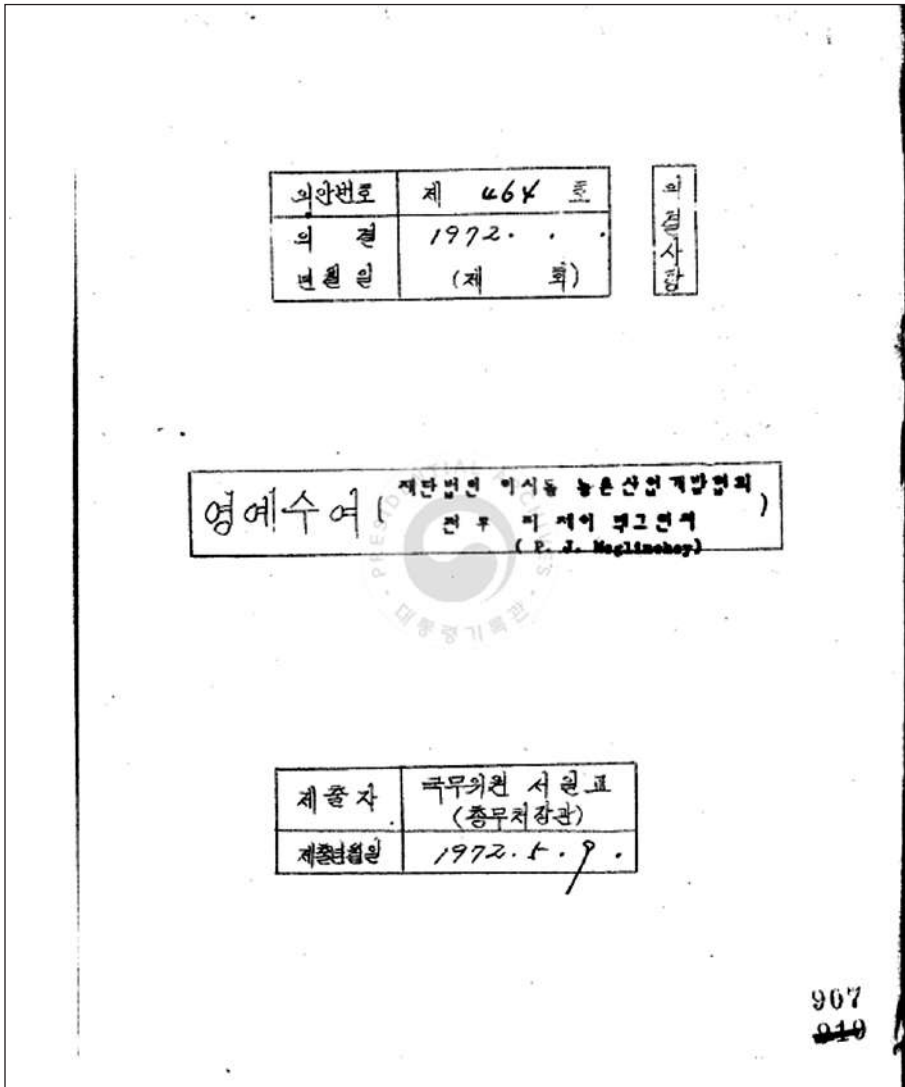
(단체 사진 촬영)

<부록 2> 성 이시돌 목장 관련 정부 문건

출처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 대통령기록관(www.pa.go.kr)

1) 석탑산업훈장 영예 수여 - 재단법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 피제이 맥그린치 (1972년 5월)

: 총무처장관이던 서영교장관이 재단법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 피제이 맥그린치 신부에게 석탑산업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문서이다.



1. 의견주문

다음 사람에게 법적 훈장증(안)과 같이 석탄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견한다.

<u>소속</u>	<u>직위</u>	<u>성명</u>	<u>년월</u>	<u>훈장</u>
재단법인 이시돌	전 부	피 자이 프그민치	44	석탄산업훈장
농촌산업개발협회		(P. J. Neglinchey)		

(이상 1명)

2. 적인 이유

1953년 4월 전도사로 영국인이래 19년간 가축사육과 양모 가공에 관한 기술지도 및 토지개간(1,920헥타) 가축사육관련(국내 61,270두 수출16,000두) 병원개설(약 30%부토전료) 특히 제주도 육산의 문제점인 고사비와 전드 기본제를 관련 해결이 우미나라 육산개발에 기여한바 있음.

3. 참고사항

- 가. 훈장법령조문 (상훈법)
제 17조 (산업훈장) (이하생략)
- 나. 이산조치
1972년도 기정예산에서 지원함.
- 다. 함 의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한함.
- 마. 기 타
1972. 5월 12일 수여예정. 끝.

제 오

문 장 종(간)

소속
권회 안명

귀하는 육산계란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르르도 육산계란의 생산과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수익을

신민산업회

1972년 1월 1일

국 부 총 미 김 종 권

이 공은 신민산업회장부 역 기념함.



총부적장관 서 영 고

909
923

2) 국세청 원천징수 질의 -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족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1973년 5월)

: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이사 맥그린치 신부가 국세청에 보낸 질의문이다.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에서 사육한 가족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 및 행정적인 불편함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들어줄 수 있는지 질의하는 문서이다.

기안용지

입인 1234-10114-70-4532	국 상
73. 5	102/10
73. 5	
과 장	
사무관	
우 내림	
제주도 복제우군한림읍 태림리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이사 맥.재.맥그린치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족에 대한 원천징수"질의"	
1. 이람 제144호 (73.5.2)에 대한 취신입니다.	
2. 범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사의 영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시급 또는 영수할때에는 소	
징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징위 절차에 의해서 면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소득	
세법 제 44조). 끝	
	
102	
290	

항

(14)

민원서류처리권

1. 내용 요약

2. 접수 일시

3. 처리 기간

4. 처리 주판자

5. 처리 의견

이 민원서류는 다지독보다 우선하여 신속, 정확, 친절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시돌 목장 테슈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제 44 회



INDONESIA DEVELOPMENT ASSOCIATION
P.O. BOX 10000
JELUTONG, MALAYA

이 름 거 124호

1973. 4. 29.

수 신 국 제정장

제 목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족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제 1항의 원천징수제안인으로서 규정을 엄격하고
있지만, 상한선 폐지후 즉시 원천징수 문제로 다음 사항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우려적인 불합응 제시되어 주시기 갈망합니다.

다름

1. 본 협회에서 생산된 가족을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시 수입
감정이나 개인의 실수요자 증명을 제시시 국가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
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에서 자료권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상 이
원천징수 불성실로 경고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사육확인서나
실수요자 증명을 제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 대한 사
후관리 확인은 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또한 사육확인서나 실수요증명을 받고서 살시도 행정당국이나 시군구
에서 확인 출장은 가리상이나 교통관기상 매우 많은 일이며 개인 또한 1,2주의
가족을 구입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여비를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실정입니다.

101

291

3. 상술한 내용과 같이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할 시 20,000 원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원천징수한것을 사실미량으로 인정하여 주신수 있는지, 또한 이,동,읍,면장이 발행하는 사유확인 증명서나 제주자치국에서 발행하는 실수로용명서를 첨부 할시 제주군민이 육인을 할수 있도록 조정을 제시한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찍는지 여부등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시돌농촌산입개발협회
전두이사 지. 지. 박그림화



3) 대통령 비서실 보고 : 제주도 초지 조성 실태조사 보고 (1973년 7월 7일)

: 대통령비서실 보고문서로 제주도의 초지 조성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문서이다. 보고 내용으로는 초지 조성 현황, 초지의 실태, 불량초지 발생원인, 불량초지 대책, 마무리 제의 등이 들어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경제 1</div>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보 고</p> <p style="margin: 0;">보고번호 제 174 호</p> <p style="margin: 0;">대통령 각하</p> <p style="margin: 0; text-align: right;">보고관 尹 勳 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추진실 상</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통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 승</td> <td style="text-align: center;">7/9</td> </tr> </table>	추진실 상	대통령	서 승	7/9	<p style="text-align: right;">1973. 7. 7</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제 목: 濟州道 草地 造成 實態 調査 報告</p> <p>閣下 指示에 依據, 濟州道의 草地 造成 實態를 6.18~6.23 間에 現地 踏査를 爲한 爲 濟州道 關係官과 合同으로 現地 踏査를 結果 66~72년까지 造成된 草地面積 10,250 ha中, 良好한 草地가 50% 以上 補植을 要하는 草地가 49% 이며, 更新해야 할 草地가 31% 인것을 다음과 같이 報告드립니다.</p> <p style="font-weight: bold;">【結論】</p> <p>1. 草地 造成 現況</p> <p>가. 66~72년까지 7年 間에 國費補助 416萬圓, 地方費補助 94萬圓, 自費捐 56萬圓等, 合計 697萬圓을 投入하여 10,250 ha의 草地를 造成하였음.</p> <p>나. 73 年度에든 新規 600 ha (82萬圓), 更新 및 補植 1,200 ha (38萬圓), 牧柵施設 1,200 ha (20萬圓)를 計劃 推進하고 있음.</p>
추진실 상	대통령					
서 승	7/9					

39691 681

대통령비서실 94 39747

72

2. 草地의 狀態

가. 造成된 草地 10,250ha 中 50% (5,085 ha)는 草地가 良好
 하나 19% (1,977 ha)는 補植을 要하며, 나머지 31% (3,185 ha)는 草地로서 利用價値가 低으므로 更新 의
 必要 甚.

나. 草地의 狀態를 造成 年度別로 보면

46-48年間에 造成된 5,200 ha는 上級草地가 30% 程度이며
 餘하여 中級草地 6-25%, 下級草地 64-43%로서 成績이
 매우 不良한데 反하여, 49-51年間에 造成된 3,550 ha는
上級草地가 50-80% 이고, 中級草地가 36-14%, 下級草地
 가 16-5%로서 成績이 良好하여, 72年處에 造成된
 ② 1,000 ha는 모두 上級草地로서 成績이 매우 優良함.

다. 規模別로 보면 草地造成面積의 37%를 占有 하는 20-50ha
規模가 가장 良好한 狀態(上: 68%, 下: 7%)이고 그 다음은
100ha 未滿이 比較的 良好(上: 46-50%, 下: 40-31%)하여,
 規模가 커짐에 따라 不良한 草地가 減함.

라. 經營形態別로 보면 企業牧場과 協業牧場(第1, 第2)의 草地
 는 大體로 良好(上: 88%, 下: 3%) 한데 反하여 部落
共同草地와 協同畜産田地草地가 大體로 不良함(上: 34-22%,
下: 37-42%)

대 동 령 비 서 실 95 682
39692 39748

3. 不良草地 發生原因

가. 66-68년까지의 草地造成 初期에는 草地造成에 關한 技術이 開發되지 못하였고, 機械가 없어 調整이 徹底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잘 造成된 草地에 對하여도 牧草施設과 牧道 등이 施設되지 못하여 合理的인 管理條件이 不備된데다가 事後管理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없어 退割效果를 향으로써 不良草地化된 壤面가 많았음.

나. 特別 部落共同草地는 部落民의 所有觀念과 責任觀念이 稀薄하므로 自己所有地에 比하여 管理를 疏忽시키는 傾向이 濃厚하여, 家畜數에 比하여 草地面積이 < 남으므로 部落民들이 集約草地 造成의 必要性을 深刻하게 認識하지 못하였음.

4. 不良草地 對策

가. 既造成 不良草地對策

- 1). 政府支援에 依하여 造成된 不良草地를 政府支援에 依하여 更新, 補播를 不平等한 支援惠澤을 줄 뿐만 아니라 農民들에게 政府에만 倚靠케 하는 태성을 正려주는 필요 못한 結果가 되므로.
- 2). 69年以後에 造成된 草地中 不良草地 1,265ha (舊更新 235ha, 要補播 930ha)에 對하여는 草地造成法 18條 2項에 依하여

대통령기록관 96 683
39693 39749

草地所有者에게 善後를 管理를 하도록 命치고 이를 履行치 않은 境遇에는 다른 能力과 資格있든 者에게 救済措置를.

- 3). 66-68년에 造成된 不實草地 3,900ha (更新 2,853ha, 養滿播 1,047ha)
 는 草地造成技術이 未發達, 開發裝備 缺如, 牧種施設 不備, 草場管理
 에 關한 知識과 經驗 不足 等의 理由로 百하여 不實化된 草地가
 萬어 部廳長官의 自力으로 更新할 余力이 缺으므로 所費材料代는
 國庫 및 地方費에서 支拂하되, 勞賃은 所有者 何體負擔으로 하여 更新
 補給을.

種子代 14萬圓	國庫補助, 肥料代 17萬圓	1年以上 價格.
牧種代 40萬圓	融資支援, 開發費材料 18萬圓	地方費補助
人件費 27萬圓	農家負擔.	

나. 不實草地 滋防對策

念後 草地에 關하여는 市長, 郡守 責任下에 다음 事項을 徹底의 履行함으로써 草地의 不實化를 防止함.

- 1) 放牧을 徹底의 履行함으로써 過剩放牧을 防止하되,
- 2) 每年施肥, 雜草除去를 草場管理를 徹底의 履行함.
- 3) 部落共同草地에는 放牧頭數에 依하여 一定의 放牧料(現在 道에서 1日1頭當 50圓으로 10項地域 實施中)을 徵收하여 草地管理費를 確保하도록 함.

대 동 영 > 〃 서 실 97 684
 39694 39750

提議

1. 新造成된 草地는 土地, 土壤肥沃度 등이 固에서 新理로 造成된 草地보다 條件이 良好하고 造成效果도 크므로 (私省所費用: 新理, 160千畝, 更新 100千畝, 精播 66千畝) 66-68年間に 新造成된 不實草地에 轉하여는 25年 까지 年次計劃을 樹立, 新發費時代는 國庫 또 地方費에서 支援 하고, 勞費는 農家自體負擔하도록 하여, 余他不實草地에 轉하여는 草地法에 依하여 市長, 郡守責任下에 更新, 補播 및 管理의 徹底를 期하도록 하여,

(單位: 百畝)

區 分	新發面積	不實年數	支 援 方 案			
			國庫補助	地 方 費 補助	自 費 担 當	其 他
66-70 造成	2,900 ⁴²	480	49	156	187	102
要更新	2,853	415	60	114	177	124
要補播	1,047	69	9	42	-	18
69-70 造成	1,265	110	-	-	-	110
要更新	335	49	-	-	-	49
要補播	930	61	-	-	-	61
不實草地計	5,165	594	49	156	187	252
要更新草地	3,188	464	40	114	177	173
要補播草地	1,977	130	9	42	-	79

2. 如斯한 不實草地는 濟州道 뿐만 아니라 全國적으로 豫想되므로, 7月末까지 全國草地에 對한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不實草地 對策을 調査하도록 할 것을 建議드립니다.

대통령령서 제 98 685
39695 39751

4) 이시돌 농촌산업협회 건의사항 검토 (1976년)

: 이시돌 농촌산업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법인세와 법인영업세에 대한 면제 및 감세에 대한 건의, 12km 거리의 도로포장에 대한 건의, 전화선 가설에 대한 건의, 양돈자금 장기저리 융자에 대한 건의에 대한 검토내용이 담겨있다.



이시돌 農村産業協會 建議事項檢討

建議事項	檢討意見
<p>1. 法人稅, 法人營業稅, 關稅免除 (理由)</p> <p>가. 畜産補助, 牧野開發 等 社會共 育美 事業을 위한 非營利 法人인</p> <p>나. 政府의 價格도 監督을 받고 있음</p> <p>다. 利益은 再投資를 事業終了時에 모든 財產은 政府에 歸屬하기로 되어 있음</p> <p>라. 畜産業에 對하여는 法人稅가 79년까지 全額 免除, 77년까지 50% 免除로 되어 있음. 一部 技術指導項目(이소, 전할)의 主要費에 法人稅와 法人營業稅가 賦課되고 있음</p>	<p>(1) 法人稅 및 法人營業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法人稅法上 非營利法人이라고 해서 法人稅을 免除하여서 一般의 規定은 改하여 若干 稅率內에서 若干 優待를 하는 程度에 있고 있음 (600萬원 超 超過利益 40% → 35%)</p> <p>(나) 따라서 法人稅와 法人營業稅의 免除은 不可否</p> <p>(다) 非營利 法人에 對한 稅率 減免制度를 法制化하는 方面으로 考慮할 수 있고 있음. 似則非 非營利 團體의 應用과 稅稅 免稅가 效否</p> <p>(2) 關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關稅 免除 規定에 依하여는 耕作乘來, 土地改良事業과 畜産業에 對하여는 一部 稅捐 (농도야, 스코이리, 구야카, 德畜 牧草種子 雜糞稅, 분비기 等)에 對하여는 關稅을 免除하여 주는데 있음. 그 中 日이 制限의 目</p> <p>(나) 이시돌 協會에 對하여서만 그 輸入 物品에 對하여 包稅 免除하는 것이 困難함</p>
<p>2. 翰林 이시돌 牧場間 道路 補裝 (2000)</p>	<p>同下 指하여 依하여 今年 路에 完工 豫定임</p> <p>704</p>

120

40188 40544

建議事項	檢討意見
<p>3. 翰林 牧場間 電話 架設 - 一般 電話 架設</p>	<p>(1) 總務科에 對하여서 73年度 里洞年度 通信網 設置計劃(豫算 4,000,000)은 一部 支拂되어 總計 一百여 개(211,100名)間 電話 架設 工事를 完了 且 終고 (80%)</p> <p>(2) 各牧場 一般 牧場間 (90%) 電話 架設은 이시돌 牧場 自體 負擔으로 實施 且 支拂 費 (自體 負擔金 1,092,000)임</p> <p>(3) 總務科가 翰林 一般 牧場間을 全部 架設 工事を 하는 것은 十分이 難은 難矣기 效否</p> <p>(가) 支拂이 되지 牧場-이시돌 總務科를 爲하여는 電話 非設置 區域에 이 國庫 負擔으로 電話 架設을 할 수 效否</p> <p>(나) 各牧場가 牧場間 一般 牧場間에 所在하고 있음은 이시돌 一般 牧場間에 一 牧場의 電話 非設置가 이시돌 牧場間의 均衡上 困難함</p> <p>(다) 總務科 負擔金 2,200萬원 所定임</p>
<p>4. 이시돌 協會 畜式 養豚 12間 世帶에 對하여 養豚 資金 26 百萬元 長期 低利 借款</p>	<p>養豚 科를 養豚을 事業 資金 檢討 且 政府 資金 一 時 回 收 資金 中에서 貸出 長期 低利 借款을 提議 且 提議</p>



705

120

40489 40545

5) 대통령 비서실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협회 : 증여재산 반입건 (1964년 2월 1일)

: 1962년 11월부터 발생한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협회에서 증여재산 반입 관련 문제에 관해 건의한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문서 내용에는 맥그린치 신부님과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협회가 불하받아 온 PL480과 같은 외부 원조 물자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報 告 書

報告番號 () 第 448 號

大 統 領 閣 下

1964. 2/1

106

6/28

報告者 秘書官 鄭 亨 燮

題目: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협회 (贈與財産半入件)

建議
 (口頭로
 閣下
 官
 說
 要)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협회」와 濟南島 中榮瑞 資金援助印으로 半入料 贈與財産에 關하여 申請과 此는 由國의에 申請 許可로서 申請이 申請狀에 依하여 行해 되니 請願해 주시기 바라르 陳情임

1. 問題의 現況

此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協會는 1962年 11月 美國人 神文 中心으로 우리나라의 農村發展과 産業發展을 目的으로 創設된 社団法人體로서 濟南島에서 5年차 次計畫으로 不規則의 陶製, 畜產, 栽培等은 著者 事業을 實施하고 있으며, 此중 此의 事業資金은 PL480, Title 2에 依한 飼料用 穀物 40,500T (韓元 100)의 正式協定에 依한 半入料을 半入料 美國 共同人의 識意에 依한 物量을 半入料에 充當시켜 轉리하, 去船 經濟企画院長官의 同意에 依한 半入料 申請을 奉致한 事에 關하여 此 半入料의 所有權은 轉入 共同人에 爲어 事業의 發展에 爲어 轉入 共同人에 爲어

24

37524 0915

171 大統領秘書官 37580

甲小産物에 對한 實況

4 以下까지 同協會가 導入해 온 實況
 導入中의 事業物實況 以下

- A. 鋼轉用 橡轆 9,000 屯
- B. 現在까지의 高附加 435,000
- C. 高附加物 25,000
 (如 鋼轉用 橡轆)
- D. 船積中 分 25,000
- E. 船積市 分 25,000

合計 4,000,000 (2億 4500萬) 으로써 이는 事業物
 所要資金의 約 30% 以上을 차지 計畫임 (橡轆分은 除
 外)

乙 問題의 檢討

外國의 特權과 事業選擇
 同協會는 農林部에 登錄되어 農之 利用性人體로서
 韓國政府에 對한 十分 認知하고 있어 代表의 合量機
 關이나 美國政府에 對한 PL 480 法案에 依從
 國內 事業團體로서도 試驗的 特權을 同協會
 事業結果를 크게 注目하고 있으며 2 結果가 多
 으면 濟南을 以外의 他地方에 亦히도 轉次 移入
 計畫으로 對함

4 事業進行 概況

112 大統領 秘書室 37525 0916 37581

劉沛 陳浩善 向亮 (徐付 高英主 参照) 과 如引 事業
은 予를 대리 進行中 이며, 向 事業 이 目標 達成 時
까지 中斷 될수 故로 予를 以나, 向 事業 이 一經 라도
中斷 된다면 倭寇 하면 아래와 같은 訓練 用 이 일어
날것임

2. 840時步 向望 事業 이 中斷

1. 陸隊 出動 時 各處 (每處 2,000,000 輪土 目標)

2. 陸隊 向 事業 中斷

3.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4.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5.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6.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7.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4. 陸隊 向 事業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陸隊 向 事業 이 中斷 時 陸隊 中斷 時

9-1

173

大統綱 秘密 120

37526

0917

37582

普通의 國民을 對象으로 (내외로) 政府의 恩惠를
사도록 故로 一事二高博常例의 通例로 爲는 것인
(此項 詳細한 것은 別紙 附屬爲計)

라 國家의 眼目에서

1. 同協會의 事業은 國家의 道義를 爲
기하여 雙手로 勤勞해來할 筈 아니라 半은 半은
이들을 協會를 誘致하여 必否가 있을진대 行政的
인 方法을 안배하여 同協會의 事業을 中斷케 함이
宜한 處에 在함.

2. 吾國者의 專賣權을 專賣權을
換物 輸入하게 되었을은 從前 우리 나라의 對外換
率의 非改定條으로 同示여 專賣權을 輸入하여 換錢
해서는 專賣權을 目標로 爲는 것이 不可能한 것 때문이
同示의 輸入에 換錢하여는 方法에서 難한 難한
方法인바 (換率 改定以前 輸入 專賣品) 此等 輸入物
品이 吾國者의 直接 需要品이 아니라도 이는 通義
의 爲는 爲는 爲는 責任의 問題이며 同協會가 換錢
을 強要 專賣權을 欲는 것인

3. 建設

以上 極計을 同示여 아래와 같은
結論을 내리리 此는 豫見 豫見 豫見 함나

大經濟院 院長의 法務部 次長 檢視

177

大統領 圖書室

37527

0918

37593

此 財產事後招領受入格于 不爲此 此意是不
할 것

4. 此時 懸得權은 是은 「이시돌農林產
業開發協會」의 受贈財產移入許可 未決件之 理由
如何는 莫論하고 國家의 恩地에 對 命狀 許可로 是
措置 할 것

別添

1. 陳情書(協美善 附添)
2. 受贈財產移入名 目詳
3. 才32次 自給公報 改定事項(4月7日)
4. 이시돌 協會 濟世島 事業 實況 要覽

經濟企劃院 長官의 措置
는 一覽 外 是은 送狀 性 欲 之
一 律 的 應 用, 特 許 逆 反 應 用
은 再 考 査 的 可 能 性 有 否, 特 許
本 陳 情 件 之 陳 情 理 由 充 分
하 以 善 處 하 的 可 能 性 有 否

Q

175 大統領 郵書室 37528 0919 37584

6)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보고서 : 뉴질랜드에서의 제주도 개발 협조 건의 - 면양 기증 (1966년 5월 2일)

: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1966년 2월 이시돌 농촌 개발협회에서 면양 반입과 기술자 입국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를 건의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문서 작성 이후인 1966년 10월 말까지 지시사항 이행에 따른 계획을 담고 있다.

대통령

**大統領指示事項
確認報告書**

報告書號 (66) 第 539 號 대미경(인) 신장 대통령

1966. 5. 2.

大統領 閣下

報告官 河 名 浩

指示事項 뉴시랜드에서 제주도 개발 협조의 협조 건의
(贈羊等贈)

大統領 閣下에서 月 日 農林部長官에게 指示하신 上記 事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그 施行狀況을 確認 報告 하신다.

濟州道 이시돌 협회 羊隻 贈與 輸入 次 New Zealand
技術者 Mr. Holmes 來韓의 對한 贈與 次 5마
차의 報告 等.

本協회는 뉴시랜드 CORSO (民間團體)로 부터
濟州道 이시돌 農村産業開發協會에 贈與 되는 것으로
서 1隻 輸入 贈與는 아예 차 查는

1. 6. 2. 9: 이시돌 農村産業協會로 부터 1,500 頭의
贈羊 輸入 次 技術者 入國에 對한 便宜 策
圖謀에 對한 要旨의 公文 接受

2. 6. 2. 11: 農務部長官으로 부터 1,500 頭의 贈羊 輸入 次

368 大統領秘書室 37706 1110

기 37762

13

유시돌의 技術者 承傳의 對한 公文接受

3. 11. 2. 23: 經濟金副院長의 呈請 電通通信의 對한
유시돌의 技術者 Mr. Holms의 承傳의
農林部의 受諾

4. 11. 2. 23: 外務部長官의 呈請 1,600 兩의 餉手 導入의
徵收의 技術者의 待遇의 對한 公文接受

5. 11. 2. 23: 經濟金副院長의 呈請 餉手 1,600 兩 (3月
의 州道 到着) 導入의 技術者의 稅捐
關係 (稅捐 徵收科 以 外給, 日當의
유시돌의 政府의 負擔計 韓國의 旅費
及 宿食費의 韓國側 負擔) 의 對한
公文接受

6. 11. 2. 23: 技術者 (Mr. Holms) 招請 額의 農政
局長 稅捐計의 經濟金副院長의 呈請
額의 (韓國 到着 3月甲)

7. 11. 3. 25: 유시돌의 技術者 Mr. Holms 外 3月 25日
韓國의 到着計의 3月 26日의 海州直營 出發.

369 大統領秘書室 37707 1111 37763
72

8. Mr. Helms 은 30日月間 韓國滞在 頭役은
現在 濟州道에 滞在 하던 牧場造成, 女性
製衣, 綢緞 綢緞管理에 對한 技術的인 指導을
想當 하신 故로.

9. 綢緞導入: 7月頃 京畿에서 出發하여 8月頃 濟州
道에 到着 是

10. 綢緞 綢緞 現況

1. 1966年 尚未 現在 綢緞數 415 項

2. 羊毛 處理 現況

안산에서 이시 羊毛 手織 加工 技術者 6人

之 協同 實地 手織 加工 想當 州

道 故로 毛織 又 毛織物 販賣

加工 生産 計에 關한 販賣 計에 故로

1966年 設 毛織 類 先 手算 12,200,000 也

370

大統領 郵 書 室

73

37708

1112

37764

연구진

연구책임	이 용 규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동연구	양 성 필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연구보조	최 호 석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부 기 흥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제주학연구 67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ISBN : 979-11-90748-08-7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